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2022. 12.



경 상 남 도

1. 이 보고서는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의 결과를 수록한 것임
2.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조사대상 연령
 -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2. 5. 20. 현재임
 - "지난 1년"은 2021. 5. 20.~2022. 5. 19. 동안임
 - "최근 2주"는 2022. 5. 6.~2022. 5. 19. 동안임
3.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숫자 없음 0.0 : 단위 미만
4.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055-211-26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I.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개요

1. 경상남도 사회조사 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법적근거 및 조사연혁	3
다. 조사체계	3
라.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4
마. 조사항목	4
바. 표본설계	6
사. 표본규모	6
아. 가중값 및 추정	7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9
가. 가구 특성	9
나. 응답자 특성	12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15
가. 특성항목 반영 사유	15
나. 조사항목	16

II.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1. 보건 부문	21
1) 참여 희망 운동 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	23
2) 정기적인 운동 빈도 및 주당 운동 시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25
3)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이유	27
4)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 치료방법	29
5) 의료비의 부담정도	31
6)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32

2. 가족과 가구 부문	33
7)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37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39
9) 부모 부양 책임자	44
10) 결혼에 대한 견해	46
11)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	47
12) 이상적인 자녀 수	50
13)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51
14)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52
15) 분거가족	53
16) 가족관계 만족도	56
17) 월 평균 가구소득	64
3. 사회 부문	67
18) 자원봉사활동 참여	73
19) 기부 참여	75
20) 사회적 지원	77
2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78
22) 관공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축	80
23) 사회단체·모임 가입·참여	81
24) 스마트폰 이용	83
25) 도정 참여	85
26)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	88
27)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90
28) 삶에 대한 만족감	92
29) 일반인에 대한 신뢰	93
30) 공동체 의식	94
31) 사회적 계층의식	95
32) 소득 불평등 정도	96
3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97
34)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98
35) 양성평등 수준	99
36) 양성평등 우선 지원	100
37) 에너지 절약 실천	101
38)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102
39)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103

40)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104
41) 공공갈등 심각 정도	105
42) 공공갈등 발생 원인	106
43) 공공갈등 분야	107
44)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108
4. 안전 부문	109
4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13
46) 학교(학원)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115
4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117
48)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119
49) 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	120
50) 농축산물 인증제도	121
51)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122
5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23
53) 안전교육 받은 경험	124
5. 환경 부문	127
54) 주관적 환경 체감도	129
55) 환경오염 방지노력	130
56) 재활용품 관리 대책	132
57)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133
58)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134
6. 부가조사	135
59) 이주계획	137
60)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인지도	140

I .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개요

1. 경상남도 사회조사 개요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1. 경상남도 사회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 세계화·지방화·정보화 등 급변하는 경제시대에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상태를 총체적,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지표가 필요함
- 경남도민의 사회적 관심사, 주관적 생활수준 및 의식에 관련된 항목 등을 조사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도민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경상남도가 지역의 균형 발전, 낙후지역 개발, 복지정책 개발, 현실적 실업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

나. 법적근거 및 조사연혁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217001호)

2) 조사연혁

- 1992.05.18. : 제1회 “경상남도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실시
- 1993.03.06. : “경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로 명칭 변경
- 2009.03.06. : “경상남도 사회통계조사”로 명칭 변경
- 2010.04.01. : “경상남도 사회조사”로 명칭 변경
- 2020.08.20. : 제29회 “경상남도 사회조사” 실시
- 2022.05.20. : 제30회 “경상남도 사회조사” 실시

다. 조사체계

- 당초 “경상남도 사회조사”의 결과는 도 단위로 공표되었지만, 조사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군 단위까지 공표하기 위해 매년 시·군의 특성항목을 추가하고, 시·군별로 표본을 늘려 조사함
 - 매년 실시하는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시·군 특성항목을 반영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 사회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조사 가능
 - 2011년 3개 시·군을 시작으로 2012년 6개 시·군, 2013년 7개 시·군, 2014년과 2017년 9개 시·군에 이어 2016년부터는 도내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

라.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1)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22. 5. 20. 0시
- 조사대상 기간 : 2021. 5. 20. ~ 2022. 5. 19(1년간)
- 조 사 기 간 : 2022. 5. 20. ~ 2022. 6. 10.

2) 조사방법

- 경상남도(기획) → 도내 18개 시.군(조사원 모집) → 조사원(현장조사 실시)
-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방문면접조사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면접이 어려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

마. 조사항목

- 경상남도 사회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분할하여 매년 조사

홀수년도 (2021년 조사)		짝수년도 (2022년 조사)	
계	7개 부분 43개 항목	계	6개 부분 60개 항목
주거와 교 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후 내 집 마련 시까지 이사 횟수 ○ 지역거주기간 및 향후 정주 의사 ○ 주거환경 만족도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및 소속감 ○ 거주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 통근·통학 여부, 교통수단 및 시간 ○ 교통수단 만족도 ○ 지역 교통문제 해결 방안 ○ 지역 교통안전 해결 방안 ○ 보행만족도 	보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희망 운동 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 ○ 정기적인 운동 빈도 및 주당 운동 시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 이유 ○ 유병기간 및 외병기간, 치료방법 ○ 의료비의 부담정도 ○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문화와 여 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주말(공휴일 포함)의 여가 활용 ○ 여가활동 만족도 ○ 문화예술체육행사 관람 ○ 지역문화제 개최에 대한 견해 ○ 도내 관광 경험 및 개선할 점 ○ 타 지역민에게 경남 관광지 소개 	가족과 가 구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부모 부양 책임자 ○ 결혼에 대한 견해 ○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 ○ 이상적인 자녀 수 ○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 분거가족 ○ 가족관계 만족도 ○ 월 평균 가구소득

출수년도 (2021년 조사)		짝수년도 (2022년 조사)	
일자리 노동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충분도 ○ 지역의 실업정도 ○ 지역의 고용전망 ○ 지역의 경제전망 ○ 일자리 만족도 ○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자리 지원 분야 ○ 일자리 창출 분야 ○ 청년일자리 지원 분야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분야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분야 	사회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여 ○ 기부 참여 ○ 사회적 지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관공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축 ○ 사회단체모임 가압참여 ○ 스마트폰 이용 ○ 도정 참여 ○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 삶에 대한 만족감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공동체 의식 ○ 사회적 계층의식 ○ 소득 불평등 정도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양성평등 수준 ○ 양성평등 우선 지원 ○ 에너지 절약 실천 ○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 공공갈등 심각 정도 ○ 공공갈등 발생 원인 ○ 공공갈등 분야 ○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소득과 소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만족도 ○ 장래 가구소득에 대한 견해 ○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 소비생활 만족도 ○ 가구 부채정도과 이유 ○ 노후대비 소득보장 ○ 삶에 대한 만족감 	안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학교(학원)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 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 ○ 농축산물 인증제도 ○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안전교육 받은 경험
교육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 교육환경 만족도 	환경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환경 체감도 ○ 환경오염 방지노력 ○ 재활용품 관리 대책 ○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부가조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구 유출 ○ 청년인구 유입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 	부가조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계획 ○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인지도

바. 표본설계

1)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 목표모집단 : 기준시점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
- 조사모집단 :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18년 인구총조사 조사구 명부(조사하기 어려운 섬조사구 제외)

2) 조사모집단 분포

- 2018년 인구총조사 모집단을 활용하여 모집단 분석을 실시

3) 표본추출틀의 작성

- 2018년 인구총조사의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조사구 중 조사하기 어려운 섬지역과 기숙시설, 사회시설은 제외함

4)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 공표범위 및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18개 층으로 층화

○ 분류지표

- 시군별 층화지표 외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 추출 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면, 보조층화 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층화지표 외에 시군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가구 및 인구특성 중 층화목적 및 통계 정도(정확도와 정밀도)를 고려하여 분류지표로 활용

사. 표본규모

1) 표본규모 결정 및 배분

○ 표본규모

- 상대표준 오차(RSE)를 활용한 표본 규모 설정

$$n_1 \times RSE_1^2 = n_2 \times RSE_2^2$$

- 2018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주요항목(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남 RSE는 0.5%이며, 시군별로는 1.2~3.3% 수준으로 나타남
- 목표 RSE는 시군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

2) 표본추출

○ 방법: 층화2단 집락추출법

- 추출단위

-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법(MOS=가구 수)
- 가구: 단순임의추출법으로 시작가구 추출(시작가구를 포함한 연속된 20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

- 조사단위: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가구주 포함)

○타 조사와 중복된 조사구에 대해 대체 처리

아. 가중값 및 추정

1) 가중값

○ 설계가중값 : 층별 추출확률의 역수로 작성

$$w_{hij}^{(1)} = \frac{M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M_h}{n_h \times 20}$$

- M_h : h 층 전체 가구수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전체 가구수(크기척도)
 - n_h : h 층 표본 조사구수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h = 1, 2, \dots, 18$: 설계층(시군), $i = 1, 2, \dots, n_h$: 조사구, $j = 1, 2, \dots, m_{hi}$: 가구

○ 무응답조정 가중값 : 조사구별 응답률의 역수로 작성

$$w_{hij}^{(2)} = w_{hij}^{(1)} \times \frac{m_{hi}}{m_{hi}(0)}$$

- $w_{hij}^{(1)}$: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j 번째 표본 가구의 설계 가중값
- m_{hi} :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 $m_{hi}(0)$: h 층 i 번째 표본 조사구에서 조사 완료된 표본 가구수

○ 사후층화 조정계수

- 권역.성.연령그룹별로 최신(조사기준 시점)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
- 벤치마크 모집단: 2018년 5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f_{rsa} = \frac{X_{rsa}}{\hat{X}_{rsa}}$$

- rsa : 권역×성별×연령별 그룹(사후층)
- X_{rsa} : 사후층별 모집단 크기
- \hat{X}_{rsa}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 최종 가중값

$$w_{hij} = w_{hij}^{(2)} \times f_{rsa}$$

- w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최종 가중값
- $w_{hij}^{(2)}$: h 층 i 조사구 j 가구의 무응답 가중값
- f_{rsa} : 사후층별 가중값의 합

2) 추정

○ 평균(모비율)

$$\hat{\mu} = \bar{y} = \frac{\sum_h^{18}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h^4 \sum_i^{n_h} \sum_j^{m_{hi}} w_{hij}}$$

- $h = 1, 2, \dots, 18$: 층(시군)
- $i = 1, 2, \dots, n_h$: 조사구
- $j = 1, 2, \dots, m_{hi}$: 대상가구주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 j 번째 가중값

○ 분산(테일러선형근사)

$$\widehat{Var}(\bar{y}) = \sum_{h=1}^{18}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w_{hi\cdot} = \sum_{j=1}^{m_{hi}} w_{hij}$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widehat{RSE}(\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2.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분포

가. 가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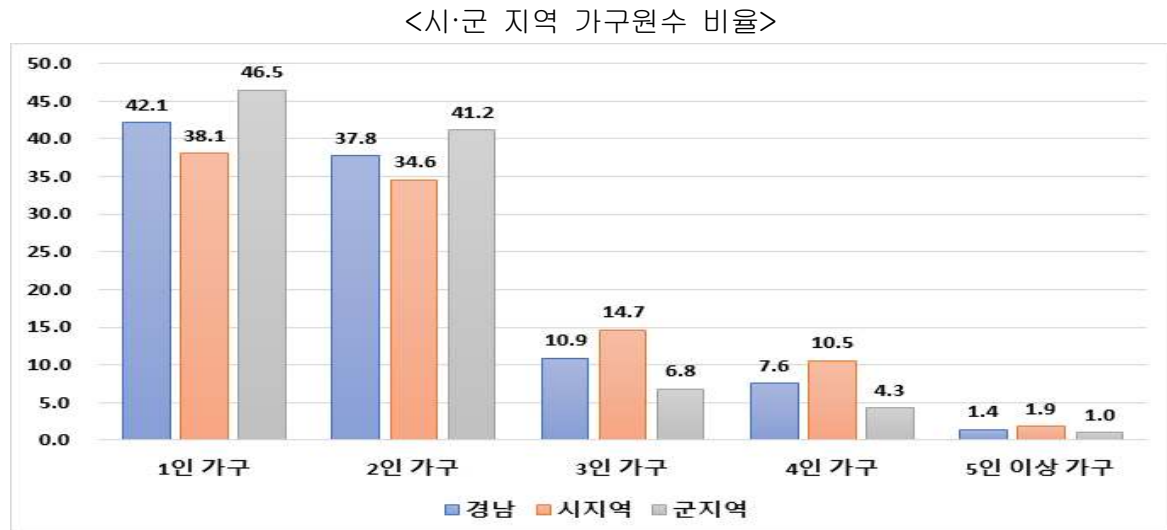
○ 시·군별 가구분포

지역명	가구수	비율(%)	지역명	가구수	비율
경남 합계	15,000	100.0	의령군	640	4.3
창원시	1,600	10.7	함안군	800	5.3
진주시	1,000	6.7	창녕군	800	5.3
통영시	800	5.3	고성군	800	5.3
사천시	800	5.3	남해군	640	4.3
김해시	1,000	6.7	하동군	640	4.3
밀양시	800	5.3	산청군	640	4.3
거제시	800	5.3	함양군	640	4.3
양산시	1,000	6.7	거창군	800	5.3
시 합계	7,800	52.0	합천군	800	5.3
			군 합계	7,200	48.0

○ 가구원 수별 분포

지역명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경남 합계	100.0	42.1	37.8	10.9	7.6	1.4
창원시	100.0	31.5	35.2	17.9	12.9	2.0
진주시	100.0	40.7	36.5	12.3	8.7	1.8
통영시	100.0	46.9	33.5	11.8	6.8	1.1
사천시	100.0	42.5	36.4	12.5	6.0	2.1
김해시	100.0	34.2	33.3	17.8	12.5	2.1
밀양시	100.0	40.1	42.4	10.6	5.6	1.0
거제시	100.0	38.3	27.9	14.4	16.8	2.4
양산시	100.0	37.7	31.6	16.3	12.2	2.1
시 합계	100.0	38.1	34.6	14.7	10.5	1.9
의령군	100.0	54.8	34.1	6.7	3.4	0.9
함안군	100.0	50.6	36.3	6.4	5.1	1.4
창녕군	100.0	45.9	40.1	7.9	5.1	1.0
고성군	100.0	46.5	40.1	6.6	4.9	1.5
남해군	100.0	35.9	50.0	7.3	5.5	1.1
하동군	100.0	46.4	44.2	5.0	3.3	0.9
산청군	100.0	49.4	40.8	5.8	3.3	0.5
함양군	100.0	42.5	42.3	8.0	5.3	1.6
거창군	100.0	48.8	40.6	6.1	3.6	0.6
합천군	100.0	43.4	44.4	7.9	3.6	0.4
군 합계	100.0	46.5	41.2	6.8	4.3	1.0

○ 가구원 수별 분포(시·군 지역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1인 가구가 42.1%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37.8%, 3인 가구 10.9%, 4인 가구 7.6%, 5인 이상 가구 1.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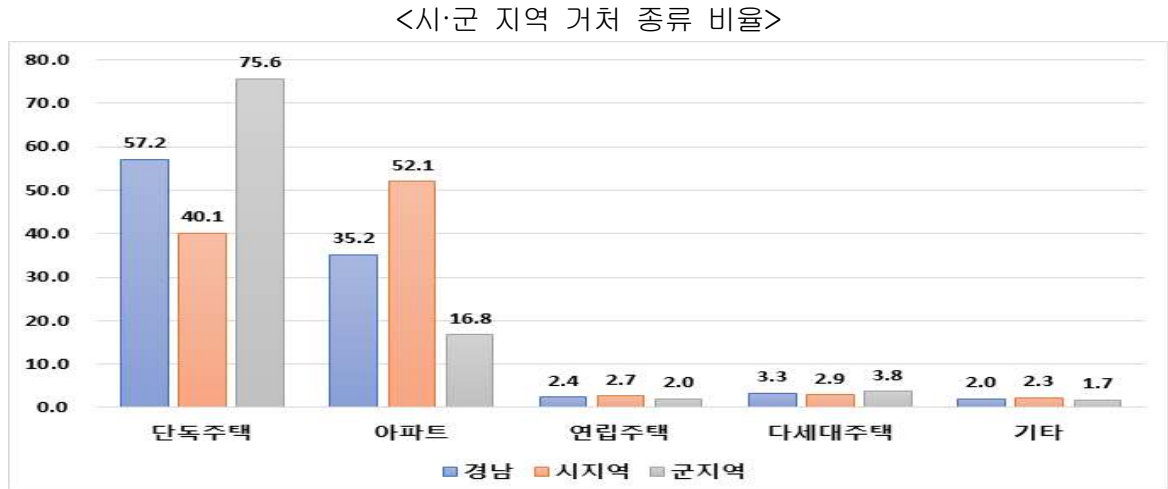
○ 1인 가구의 비율이 시 지역(38.1%)보다 군 지역(46.5%)이 8.4%p 높게 나타남

-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7.9%p, 6.2%p 각각 높음

○ 거주종류별 분포

지역명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경남 합계	100.0	57.2	35.2	2.4	3.3	2.0
창원시	100.0	37.6	50.0	5.8	1.6	5.1
진주시	100.0	46.3	48.0	2.2	3.2	0.3
통영시	100.0	46.0	50.0	0.1	2.4	1.5
사천시	100.0	50.6	42.5	5.0	1.6	0.3
김해시	100.0	30.3	60.0	0.4	9.1	0.2
밀양시	100.0	61.9	30.0	2.6	1.0	4.5
거제시	100.0	35.9	57.5	3.1	3.3	0.3
양산시	100.0	20.7	74.0	0.2	1.3	3.8
시 합계	100.0	40.1	52.1	2.7	2.9	2.3
의령군	100.0	82.7	9.4	2.3	5.3	0.3
함안군	100.0	60.6	35.0	2.1	2.3	0.0
창녕군	100.0	65.4	20.0	1.8	6.3	6.6
고성군	100.0	72.4	19.1	2.0	6.3	0.3
남해군	100.0	88.9	6.3	0.2	3.0	1.7
하동군	100.0	81.3	12.5	1.1	2.5	2.7
산청군	100.0	82.8	12.5	0.3	3.9	0.5
함양군	100.0	79.2	12.5	3.0	1.6	3.8
거창군	100.0	65.0	27.5	4.3	2.0	1.3
합천군	100.0	85.4	7.5	2.6	4.3	0.3
군 합계	100.0	75.6	16.8	2.0	3.8	1.7

○ 거처 종류 비율(시·군 지역 비율)



○ 조사대상의 거처 종류는 단독주택이 57.2%, 아파트가 3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립주택 2.4%, 다세대주택 3.3%, 기타는 2.0%로 나타남

○ 시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52.1%), 군 지역은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음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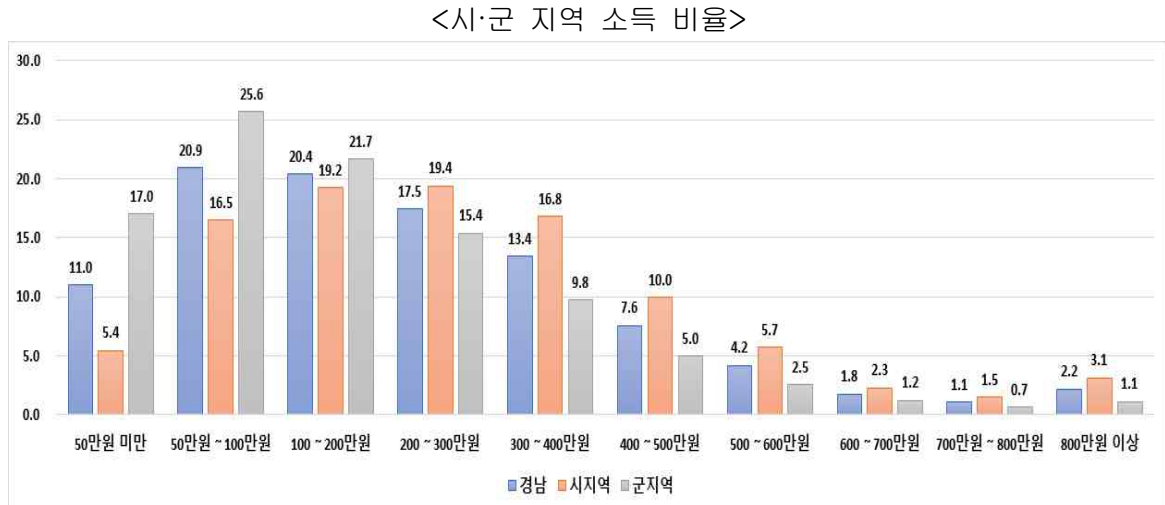
- 단독주택 비율의 경우 시 지역은 밀양시(61.9%), 군 지역은 남해군(88.9%)이 가장 높음

- 아파트 비율의 경우 시 지역은 양산시(74.0%), 군 지역은 함안군(35.0%)이 가장 높음

○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분포

지역명	계(%)	50만원 미만	50 ~100	100 ~200	200 ~300	300 ~400	400 ~500	500 ~600	600 ~700	700 ~800	800만원 이상
경남 합계	100.0	11.0	20.9	20.4	17.5	13.4	7.6	4.2	1.8	1.1	2.2
창원시	100.0	2.9	13.6	20.6	19.7	15.6	11.0	6.6	3.6	2.3	4.1
진주시	100.0	5.1	22.1	20.3	17.9	14.6	8.2	4.3	1.9	1.5	4.1
통영시	100.0	4.3	18.0	22.8	24.4	14.6	8.4	5.6	1.1	0.4	0.5
사천시	100.0	10.1	19.5	16.4	19.5	14.4	9.5	4.6	1.6	1.9	2.5
김해시	100.0	4.6	12.7	17.3	23.5	19.4	10.1	5.2	2.6	1.4	3.2
밀양시	100.0	11.6	23.0	21.4	14.5	14.0	6.0	3.8	1.0	1.0	3.8
거제시	100.0	6.4	12.5	18.4	18.1	21.6	11.4	5.3	2.4	1.4	2.6
양산시	100.0	2.2	13.7	16.3	17.1	20.2	13.6	9.4	2.7	1.6	3.2
시 합계	100.0	5.4	16.5	19.2	19.4	16.8	10.0	5.7	2.3	1.5	3.1
의령군	100.0	23.1	33.4	16.7	11.7	6.4	4.2	1.7	0.8	0.3	1.6
함안군	100.0	21.8	19.9	19.3	14.6	11.0	5.4	3.1	2.9	1.4	0.8
창녕군	100.0	11.5	19.1	23.1	17.4	16.3	7.5	2.3	1.4	0.8	0.8
고성군	100.0	15.1	26.0	21.8	14.1	11.9	5.4	3.9	0.8	0.3	0.9
남해군	100.0	14.2	27.3	21.7	16.3	11.1	3.8	2.0	2.0	0.5	1.1
하동군	100.0	10.9	31.1	24.4	17.8	6.4	4.2	2.8	0.3	0.3	1.7
산청군	100.0	23.4	26.1	20.6	15.8	8.0	3.3	0.9	0.5	0.8	0.6
함양군	100.0	12.3	25.8	23.9	19.1	8.8	4.2	2.3	1.3	0.9	1.4
거창군	100.0	12.9	26.6	22.5	16.1	9.4	6.6	2.6	1.3	0.6	1.4
합천군	100.0	24.6	24.1	22.4	11.5	6.9	4.5	3.1	0.9	0.8	1.3
군 합계	100.0	17.0	25.6	21.7	15.4	9.8	5.0	2.5	1.2	0.7	1.1

○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시·군 지역 비율)



○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은 “50~100만원 미만”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 20.4%, “200~300만원 미만” 17.5% 순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은 “200~300만원 미만”(19.4%)이 가장 높고, 군 지역은 “50~100만원 미만”(25.6%)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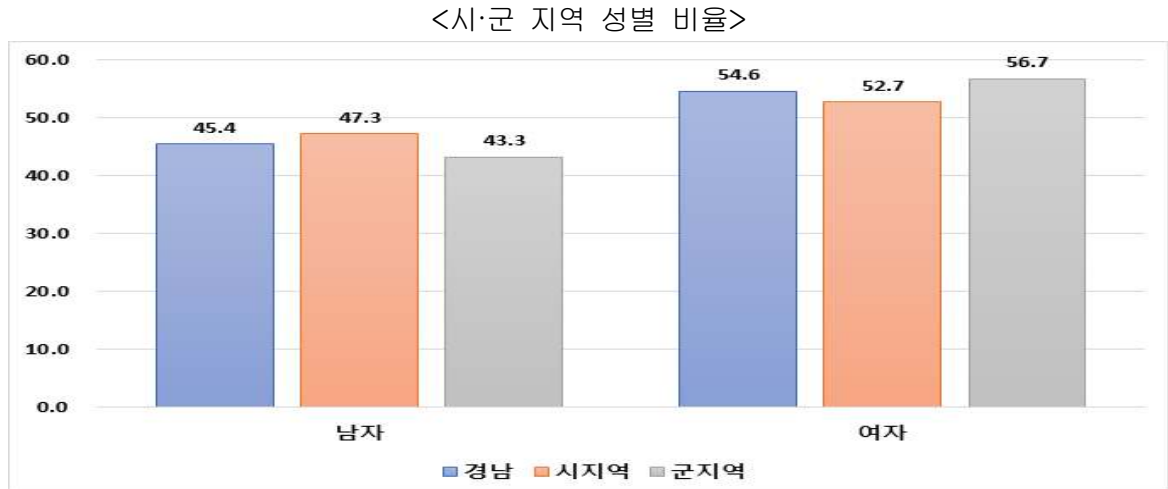
- 시 지역의 소득이 군 지역보다 높음

나.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성별 분포

지역명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계(%)	남자	여자
경남 합계	25,011	100.0	100.0	45.4	54.6
창원시	3,037	12.1	100.0	47.7	52.3
진주시	1,688	6.7	100.0	47.2	52.8
통영시	1,273	5.1	100.0	46.0	54.0
사천시	1,318	5.3	100.0	46.0	54.0
김해시	1,845	7.4	100.0	48.2	51.8
밀양시	1,353	5.4	100.0	44.1	55.9
거제시	1,296	5.2	100.0	50.1	49.9
양산시	1,751	7.0	100.0	47.9	52.1
시 합계	13,561	54.2	100.0	47.3	52.7
의령군	958	3.8	100.0	39.9	60.1
함안군	1,221	4.9	100.0	42.3	57.7
창녕군	1,287	5.1	100.0	43.3	56.7
고성군	1,263	5.0	100.0	42.8	57.2
남해군	1,106	4.4	100.0	44.6	55.4
하동군	1,024	4.1	100.0	45.0	55.0
산청군	1,009	4.0	100.0	45.7	54.3
함양군	1,054	4.2	100.0	45.8	54.2
거창군	1,214	4.9	100.0	40.7	59.3
합천군	1,314	5.3	100.0	43.0	57.0
군 합계	11,450	45.8	100.0	43.3	56.7

○ 성별 비율(시·군 지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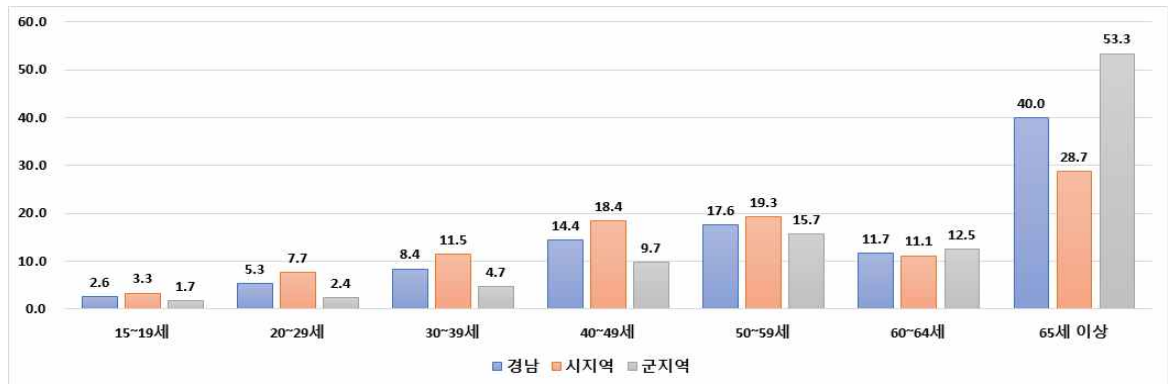
- 총 응답자는 25,011명, 시 지역 13,561명(54.2%), 군 지역 11,450명(45.8%)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45.4%, 여자가 54.6%로 나타났고, 시 지역의 남자는 47.3%, 여자는 52.7%, 군 지역의 남자는 43.3%, 여자는 56.7%로 나타남
-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제시(50.1%), 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령군(60.1%)임

○ 연령대별 분포

지역명	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경남 합계	100.0	2.6	5.3	8.4	14.4	17.6	11.7	40.0
창원시	100.0	3.9	9.7	12.2	17.5	20.3	10.3	26.1
진주시	100.0	3.3	9.4	10.5	15.0	17.7	11.2	32.9
통영시	100.0	2.6	4.7	10.4	17.1	18.9	12.5	33.8
사천시	100.0	2.3	6.8	7.0	16.8	17.7	12.1	37.3
김해시	100.0	3.9	8.8	12.8	20.4	22.9	10.7	20.5
밀양시	100.0	1.6	4.6	5.0	11.5	19.2	14.6	43.5
거제시	100.0	3.3	4.6	14.7	28.6	19.9	9.5	19.4
양산시	100.0	4.1	8.9	16.7	21.4	16.2	9.7	23.0
시 합계	100.0	3.3	7.7	11.5	18.4	19.3	11.1	28.7
의령군	100.0	1.1	3.7	4.9	7.1	14.9	8.3	60.0
함안군	100.0	1.7	1.6	7.7	14.6	16.0	10.8	47.6
창녕군	100.0	1.6	3.2	5.7	8.9	17.1	13.2	50.3
고성군	100.0	2.0	1.9	5.2	11.2	15.3	12.5	51.9
남해군	100.0	1.4	2.8	4.1	8.9	13.7	13.9	55.2
하동군	100.0	2.0	2.1	2.6	7.3	16.4	14	55.6
산청군	100.0	2.1	2.2	3.9	8.3	15.3	13.4	54.8
함양군	100.0	2.1	3.1	4.2	10.3	16.5	12.5	51.3
거창군	100.0	1.6	1.4	5.2	12.9	14.4	13.5	51.0
합천군	100.0	1.2	2.3	3.0	6.8	16.8	13	56.9
군 합계	100.0	1.7	2.4	4.7	9.7	15.7	12.5	53.3

○ 연령대별 비율

<시·군 지역 연령대별 비율>



○ 응답자의 연령대 중 “65세 이상”이 40.0%로 가장 많고, “50대” 17.6%, “40대” 14.4%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군 지역의 “65세 이상” 비율은 53.3%로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임
 - 시 지역은 “65세 이상”(28.7%), “50대”(19.3%), “40대”(18.4%) 순으로 많고, 군 지역은 “65세 이상”(53.3%), “50대”(15.7%), “60~64세”(12.5%) 순으로 많이 나타남

○ 교육정도별 및 혼인상태별 분포

지역명	교육정도					혼인상태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경남 합계	100.0	26.6	14.3	33.3	25.8	100.0	12.6	65.5	16.9	5.0
창원시	100.0	11.2	12.9	38.9	37.1	100.0	19.5	65.6	9.5	5.4
진주시	100.0	19.8	12.6	33.9	33.7	100.0	17.4	64.3	13.2	5.1
통영시	100.0	22.3	16.7	38.8	22.2	100.0	13.5	62.0	15.4	9.1
사천시	100.0	23.9	14.5	33.8	27.8	100.0	13.7	63.7	15.7	6.9
김해시	100.0	9.2	12.8	42.4	35.5	100.0	20.0	64.8	8.6	6.6
밀양시	100.0	26.5	14.6	33.9	25.0	100.0	10.6	66.9	17.9	4.7
거제시	100.0	10.6	12.1	42.9	34.3	100.0	13.7	72.7	9.1	4.6
양산시	100.0	9.4	11.8	39.2	39.6	100.0	19.1	65.2	10.1	5.6
시 합계	100.0	15.5	13.3	38.2	33.0	100.0	16.7	65.6	11.9	5.9
의령군	100.0	48.0	12.7	24.3	14.9	100.0	7.8	57.6	31.1	3.4
함안군	100.0	33.2	11.5	31.0	24.4	100.0	6.0	65.9	22.9	5.2
창녕군	100.0	33.4	16.4	32.6	17.6	100.0	9.2	65.3	20.5	4.9
고성군	100.0	39.6	15.8	28.2	16.5	100.0	6.3	66.8	23.0	3.8
남해군	100.0	37.4	18.1	29.0	15.5	100.0	8.1	69.4	19.1	3.3
하동군	100.0	43.4	18.8	23.9	13.9	100.0	8.7	64.2	22.7	4.5
산청군	100.0	39.8	14.2	27.2	18.8	100.0	7.2	64.5	24.1	4.2
함양군	100.0	39.2	14.9	28.5	17.5	100.0	9.6	66.3	20.5	3.6
거창군	100.0	38.5	15.2	27.2	19.1	100.0	6.6	67.3	22.2	3.9
합천군	100.0	46.7	16.4	22.8	14.2	100.0	7.5	65.3	23.8	3.3
군 합계	100.0	39.7	15.4	27.6	17.3	100.0	7.7	65.4	22.9	4.0

○ 교육정도별 및 혼인상태별 비율



○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졸 이하”(26.6%), “대졸 이상”(25.8%), “중졸”(14.3%)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는 65.5%가 배우자가 있고, “사별” 16.9%, “미혼” 12.6%, “이혼” 5.0%로 나타남
- 군 지역의 사별은 22.9%로 시 지역(11.9%)보다 11.0%p 높음

3. 시·군 특성항목 조사

가. 특성항목 반영 사유

○ 경상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시·군의 특성항목을 별도로 조사하여 시·군에 대한 조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 조사 체계,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은 경상남도 사회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매년 실시하는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시·군 특성항목을 반영하는 조사하는 경우 시·군에서 자체 사회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도별 시·군 특성항목 조사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3개 시·군
- 2012년 :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6개 시·군
- 2013년 :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7개 시·군
- 2014년 :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9개 시·군
- 2017년 :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9개 시·군
- 2016년 이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8개 시·군

나. 조사항목

○ 도 단위 조사의 6개 부문 60개 항목을 공통항목으로 하여 해당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 123개를 추가하여 총 183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시·군	항 목	시·군	항 목
창원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도시 모습 및 중점 추진 시정 분야 ○ 문화관광도시 건설 지원 분야 ○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 창업의사 ○ 창업 희망 분야 ○ 창업 희망 이유 ○ 창업 필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활성화 지원 희망 프로그램 ○ 빅데이터 정책 반영 ○ 기후위기 인식 ○ 기후위기 참여정도 ○ 여성친화도시 인식 ○ 여성친화도시 중점추진 분야 ○ 아동친화도시 인식 ○ 아동친화도시 중점추진 분야
진주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조건 ○ 도서관 이용 현황 ○ 서적 종류별 독서량 ○ 자전거 보유 현황 ○ 자전거 이용 현황 	통영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조성에 대한 견해 ○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인식여부 ○ 시민 의식 변화의 필요성 ○ 문화·예술·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 분야 ○ 향후 도시모습 및 개선점 ○ 공공데이터 인지 유무 ○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천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 관광객 수용태세 ○ 사천바다케이블카에 대한 견해 ○ 사천에어쇼에 대한 견해 ○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해 	김해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창업 희망 분야 및 지역 ○ 희망 일자리 ○ 일자리의 차이 정도 ○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 직업교육 훈련 ○ 직업교육 희망 분야 ○ 다문화 가정·외국인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 다문화가정 정착 필요 정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견해
밀양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시 향후 바람직한 도시형태 ○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견해 ○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시민문화행사 선호도 ○ 건강도시 추구를 위한 시설 확충 방안 	거제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일자리 ○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의 차이 정도 ○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 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 축제 참여 정도 및 만족도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 아동교육 희망 정책

시·군	항 목	시·군	항 목
양산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교육도시 건설 ○ 건강도시 추구에 대한 견해 ○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견해 ○ 양산시 미래비전 및 개선점 ○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견해 	의령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도시 모습 및 개선점 ○ 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견해 ○ 농민 소득증대 방안 ○ 건강정책 분야 ○ 외부관광객 추천 관광지 ○ 희망하는 문화예술 행사 ○ 부림 일반산업단지 유치, 조성에 대한 만족도 ○ 군민이 생각하는 시민의식
함안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 ○ 노인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호도 ○ 함안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 지역 축제·문화 행사 참여 및 만족도 	창녕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업종에 대한 견해 ○ 우포늪에 대한 만족도 ○ 지역 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
고성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미래 발전상 ○ 거주지역 만족도 ○ 주거정책 필요 분야 ○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 고성군 부족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우선 필요한 정책 ○ 고성군 지역 축제 참여 및 만족도 ○ 희망 문화예술행사 ○ 고성군 관광산업 발전 방향 ○ 우선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남해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군 발전 잠재력 ○ 남해군 발전 저해요인 ○ 중점 육성산업 ○ 관광자원 개발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 청년인구 유입 ○ 군정 뉴스 취득 경로 ○ 군 행정서비스 만족도 	하동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 ○ 지역 문화행사 참여 및 만족도 ○ 재활용품 분리배출 형태 ○ 음식물쓰레기 배출 형태 ○ 보건소 이용목적 및 만족도 ○ 레포츠 시설 이용 만족도
산청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교육도시 건설 ○ 농업경쟁력 강화 ○ 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 축제행사 참여 및 만족도 	함양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청년인구 유입 방안 ○ 함양군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견해 ○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견해
거창군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만족도 ○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보행환경 개선 ○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만족도 ○ 희망하는 문화예술행사 ○ 외부 추천 관광지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 농업경쟁력 강화 ○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합천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천군 농축산물 이용현황 ○ 합천군 농축산물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 합천군 농축산물 홍보 ○ 농축산물 판매 ○ 합천군 관광 명소 ○ 관광 활성화 방안 ○ 지역 축제·문화 행사 참여 및 만족도

II. 2022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

1. 보건 부문

2. 가족과 가구 부문

3. 사회 부문

4. 안전 부문

5. 환경 부문

6. 부가조사

1. 보건 부문

[조사항목별 요약]

1) 참여 희망 운동 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

- 경남도민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은 “걷기, 달리기”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헬스” 15.6%, “간단한 운동” 14.1% 등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 30.1%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헬스장 또는 체력단련장” 22.7%, “수영장”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정기적인 운동 빈도 및 주당 운동 시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경남도민의 정기적인 운동 빈도는 “1주일에 2~3번 정도”가 46.8%, 다음으로 “거의 매일”이 33.4%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50.3%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24.1%, “아파서 또는 다쳐서”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 이유

- 경남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의원” 56.3%, “병원” 28.9%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만족” 35.1%, “불만” 20.0%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중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가 비싸다” 19.4%,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유병 기간 및 와병기간, 치료방법

- 도내 가구의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에 대하여 “유병률”은 31.6%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병일수” 10.8일, “평균 와병일수” 0.5일로 나타남
- 진료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치료일수”는 11.1일이며, “병원 평균 치료일수” 10.7일, “의원 평균 치료일수” 10.6일, “보건소 평균 치료일수” 8.9일로 나타남

5) 의료비 부담 정도

- 경남도민 의료비 부담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57.6%, “(아주) 비싼 편이다” 28.8%, “(아주) 싼 편이다” 13.6%로 나타남

6)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 경남도민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는 “없었다”가 94.4%, “있었다”가 5.6%로 나타났으며, 자살 충동에 대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33.2%,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 참여 희망 운동 종목 및 필요한 체육시설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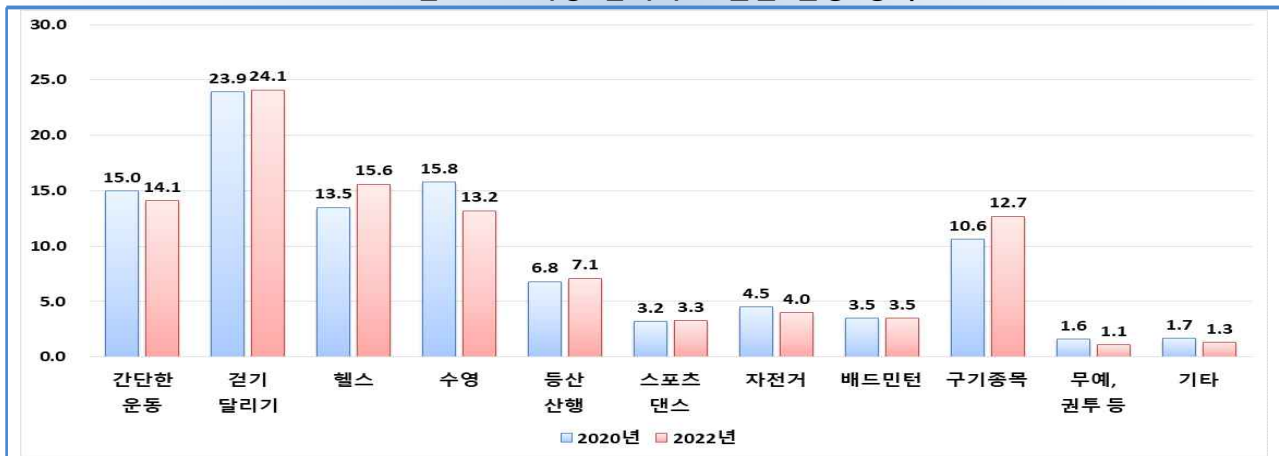
귀하는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 경남도민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은 “걷기, 달리기”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헬스” 15.6%, “간단한 운동” 14.1% 등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중 “걷기, 달리기”의 비율은 시 지역(23.5%)이 군 지역(27.6%)에 비해 4.1%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중 “걷기, 달리기”의 비율은 남자(19.5%)가 여자(28.7%)에 비해 9.2%p 낮게 나타남

<그림 1-1>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표 1-1> 가장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단위 : %)

		합계	간단한 운동	걷기, 달리기	헬스	수영	등산, 산행	스포츠 댄스	자전거	배드민턴	구기종목	무예	기타
	2020	100.0	15.0	23.9	13.5	15.8	6.8	3.2	4.5	3.5	10.6	1.6	1.7
	2022	100.0	14.1	24.1	15.6	13.2	7.1	3.3	4.0	3.5	12.7	1.1	1.3
지역별	시 지역	100.0	13.5	23.5	16.0	13.5	7.2	3.4	4.2	3.6	12.8	1.1	1.2
	군 지역	100.0	17.6	27.6	13.1	11.7	6.3	3.2	3.1	2.6	12.2	0.8	1.9
성별	남 자	100.0	9.5	19.5	21.4	8.5	9.0	0.7	6.0	3.4	19.2	1.6	1.2
	여 자	100.0	18.8	28.7	9.7	18.0	5.2	6.0	2.0	3.5	6.0	0.6	1.5
연령별	15~19세	100.0	11.3	9.3	25.1	14.3	1.1	1.9	4.3	7.5	20.7	3.2	1.2
	20~29세	100.0	9.6	10.5	32.1	14.0	1.6	2.6	3.6	4.9	16.6	3.3	1.2
	30~39세	100.0	13.2	11.2	21.4	19.8	3.4	4.1	3.8	3.4	17.6	1.0	1.1
	40~49세	100.0	11.4	15.1	15.9	17.1	7.2	4.8	5.1	5.0	16.3	1.0	1.2
	50~59세	100.0	12.1	23.1	12.8	12.4	11.8	4.5	4.9	3.3	13.5	0.5	1.2
	60세 이상	100.0	19.6	43.0	6.7	8.4	8.7	1.9	3.1	1.4	5.1	0.4	1.7
	65세 이상	100.0	21.6	47.3	5.1	7.4	7.2	1.4	2.4	1.0	4.2	0.4	1.9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 경남도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 30.1%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헬스장 또는 체력단련장” 22.7%, “수영장” 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의 비율은 시 지역(28.9%)이 군 지역(37.4%)에 비해 8.5%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은 남자는 “체력단련기구”(26.3%), 여자는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35.5%)이 각각 높게 나타남

<그림 1-2>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표 1-2>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육시설

(단위 : %)

		합 계	수영장	테니스 장	골프장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 턴장	볼링장	걷기 또는 달리기 트랙	헬스장 또는 체력단 련장	탁구장	기타
	2020	100.0	22.7	2.5	3.7	3.8	1.2	1.2	5.1	2.7	28.8	23.0	2.8	2.6
	2022	100.0	19.2	2.8	6.4	3.7	1.3	1.4	5.1	2.5	30.1	22.7	2.7	2.1
지역별	시 지역	100.0	19.8	3.0	6.4	3.9	1.4	1.5	5.1	2.6	28.9	22.6	2.7	2.0
	군 지역	100.0	15.4	1.6	6.4	2.3	1.1	0.7	5.0	1.9	37.4	23.3	2.2	2.7
성별	남 자	100.0	13.7	3.3	8.1	6.4	2.5	2.2	5.2	2.3	24.8	26.3	3.2	2.1
	여 자	100.0	24.7	2.3	4.7	0.9	0.2	0.5	5.0	2.8	35.5	19.1	2.1	2.1
연령별	15~19세	100.0	14.0	2.9	1.9	11.1	2.1	7.5	9.0	4.6	14.5	29.0	2.6	1.0
	20~29세	100.0	19.3	4.1	3.8	7.8	2.4	2.7	6.4	4.0	14.0	31.7	2.2	1.8
	30~39세	100.0	27.3	4.3	5.4	6.3	1.3	2.0	5.5	2.9	16.6	24.7	1.9	1.8
	40~49세	100.0	24.0	3.3	9.6	2.8	1.5	1.2	7.8	3.7	19.9	21.3	2.5	2.3
	50~59세	100.0	17.9	2.5	10.2	2.3	1.3	0.5	4.3	2.4	28.7	24.5	3.7	1.7
	60세 이상	100.0	14.7	1.6	4.3	1.1	0.8	0.3	2.7	0.9	51.6	16.9	2.6	2.7
	65세 이상	100.0	13.5	1.3	3.4	0.9	0.6	0.3	2.1	0.7	57.2	15.0	2.1	2.9

2) 정기적인 운동 빈도 및 주당 운동 시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문항	귀하는 건강을 위하여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산, 수영 등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주당 운동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적인 운동 빈도

○ 경남도민의 정기적인 운동 빈도는 “1주일에 2~3번 정도”가 46.8%, 다음으로 “거의 매일”이 33.4%로 나타나, 도민의 80.2% 정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정기적인 운동 빈도 중 “거의 매일”의 비율은 시 지역(32.9%)이 군 지역(36.3%)에 비해 3.4%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정기적인 운동 빈도는 “1주일에 2~3번 정도”의 비율은 남자(45.1%)가 여자(48.6%)에 비해 3.5%p 낮게 나타남

<그림 2-1> 정기적인 운동 빈도



<표 2-1> 정기적인 운동 빈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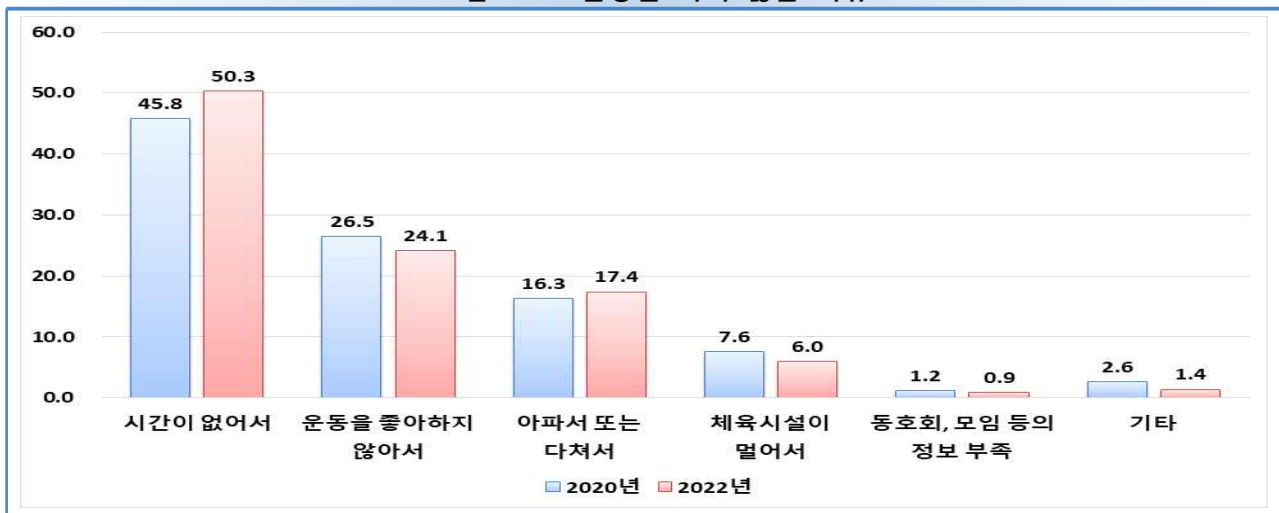
		합 계	거의 매일	1주일에 2~3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2주일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연도	2020	100.0	31.7	47.4	15.5	3.0	2.4
	2022	100.0	33.4	46.8	15.3	2.6	1.9
지역	시 지역	100.0	32.9	46.7	15.7	2.7	2.0
	군 지역	100.0	36.3	47.7	13.1	1.7	1.3
성별	남 자	100.0	32.9	45.1	16.7	3.1	2.2
	여 자	100.0	33.9	48.6	13.8	2.1	1.6
연령	15~19세	100.0	30.3	43.7	18.6	4.1	3.4
	20~29세	100.0	34.0	44.6	14.0	4.3	3.1
	30~39세	100.0	25.4	48.3	19.8	3.6	2.8
	40~49세	100.0	25.2	49.9	19.6	2.9	2.3
	50~59세	100.0	27.6	50.8	17.0	2.8	1.9
	60세 이상	100.0	44.5	43.1	10.4	1.2	0.8
	65세 이상	100.0	46.3	42.6	9.5	0.8	0.7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경남도민의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50.3%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24.1%, “아파서 또는 다쳐서”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아파서 또는 다쳐서”의 비율은 시 지역(14.9%), 군 지역(29.5%)로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14.6%p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은 남자(57.0%)가 여자(43.9%)에 비해 13.1%p 높게 나타남

<그림 2-2>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표 2-2>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합계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파서 또는 다쳐서	체육 시설이 없어서	동호회, 모임 등 정보 부족	기타
2020		100.0	45.8	26.5	16.3	7.6	1.2	2.6
2022		100.0	50.3	24.1	17.4	6.0	0.9	1.4
지역	시 지역	100.0	50.8	25.3	14.9	6.4	1.0	1.5
	군 지역	100.0	47.5	17.7	29.5	4.0	0.7	0.5
성별	남 자	100.0	57.0	20.7	13.4	6.6	1.2	1.0
	여 자	100.0	43.9	27.2	21.1	5.5	0.6	1.7
연령	15~19세	100.0	69.5	22.7	0.8	6.2	0.4	0.4
	20~29세	100.0	48.6	34.6	4.1	8.7	1.5	2.5
	30~39세	100.0	64.6	22.9	2.5	7.2	0.5	2.2
	40~49세	100.0	58.7	25.3	5.2	8.0	1.5	1.2
	50~59세	100.0	58.3	23.9	9.9	5.8	0.9	1.1
	60세 이상	100.0	27.7	19.1	48.7	3.0	0.6	0.9
	65세 이상	100.0	21.3	18.0	56.5	2.5	0.5	1.1

3)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 이유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1. 5. 20. ~ 2022. 5. 19.)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이며, 그 곳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 경남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내 의료기관은 “의원” 56.3%, “병원” 28.9%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만족” 35.1%, “불만” 20.0%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의원”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중 “만족”은 시 지역(35.9%)보다 군 지역(31.0%)이 4.9%p 낮게 나타남

<그림 3-1> 이용한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 만족도



<표 3-1>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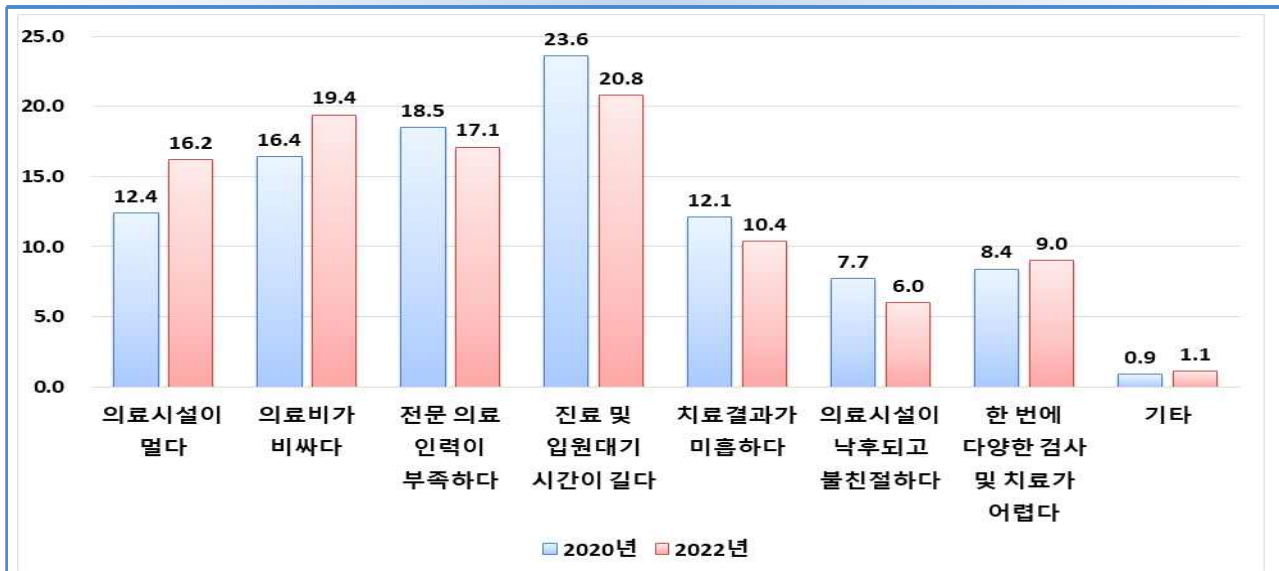
		합계	도내 의료 기관 이용	이용한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소	약국 (한약국)	기타	만족	보통	불만
2020		100.0	72.9	32.5	50.1	8.8	3.4	1.9	3.2	0.1	34.5	46.6	18.9
2022		100.0	71.4	28.9	56.3	7.7	3.0	1.9	2.1	0.0	35.1	44.9	20.0
지역별	시 지역	100.0	69.9	28.9	55.3	8.7	3.2	1.6	2.4	0.0	35.9	44.2	19.9
	군 지역	100.0	79.9	28.5	61.8	3.0	2.0	3.8	0.8	0.0	31.0	48.3	20.7
성별	남 자	100.0	67.8	30.7	53.3	9.0	2.7	2.2	2.0	0.0	34.6	45.3	20.2
	여 자	100.0	74.9	27.2	59.1	6.6	3.3	1.7	2.2	0.1	35.6	44.5	19.9
연령별	15~19세	100.0	49.6	31.0	50.5	6.6	1.3	6.2	4.5	0.0	41.2	46.0	12.8
	20~29세	100.0	52.5	28.1	50.2	10.2	3.0	3.7	4.7	0.0	35.6	46.0	18.3
	30~39세	100.0	64.3	28.2	56.4	8.3	2.6	1.6	2.7	0.2	32.5	46.0	21.5
	40~49세	100.0	68.5	27.1	56.5	9.7	2.8	1.3	2.7	0.0	31.6	46.0	22.4
	50~59세	100.0	72.0	27.3	56.1	10.0	3.7	1.1	1.8	0.0	31.6	45.3	23.1
	60세 이상	100.0	86.5	30.6	58.4	5.0	3.1	1.9	1.0	0.0	38.7	43.4	17.9
	65세 이상	100.0	89.4	30.9	59.3	3.9	2.9	2.1	0.8	0.0	39.9	42.8	17.4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 경남도민의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중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의료비가 비싸다” 19.4%,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는 시 지역은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22.9%)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군 지역은 “의료시설이 멀다”(24.8%)를 많이 응답함

<그림 3-2>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표 3-2>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단위 : %)

		합계	의료 시설이 멀다	의료비가 비싸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진료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의료 시설이 낙후되고 불편하다	한 번에 다양한 검사 및 치료가 어렵다	기타
연도	2020	100.0	12.4	16.4	18.5	23.6	12.1	7.7	8.4	0.9
	2022	100.0	16.2	19.4	17.1	20.8	10.4	6.0	9.0	1.1
지역	시 지역	100.0	14.4	20.8	16.8	22.9	10.2	5.3	8.2	1.2
	군 지역	100.0	24.8	12.3	18.8	10.5	11.0	9.5	12.4	0.7
성별	남 자	100.0	14.7	19.6	18.7	21.3	10.9	6.1	7.5	1.4
	여 자	100.0	17.6	19.2	15.7	20.4	9.9	6.0	10.3	0.8
연령	15~19세	100.0	8.4	17.4	20.5	13.2	26.2	7.6	4.3	2.4
	20~29세	100.0	8.9	18.5	19.4	23.3	13.0	9.4	5.4	2.1
	30~39세	100.0	16.6	12.6	22.5	22.2	9.6	8.3	6.5	1.6
	40~49세	100.0	12.0	17.0	23.6	17.5	10.8	8.0	9.4	1.6
	50~59세	100.0	12.2	20.7	16.8	23.9	10.1	5.0	10.9	0.6
	60세 이상	100.0	23.5	22.7	10.9	20.1	8.9	3.9	9.5	0.6
	65세 이상	100.0	26.5	21.3	10.0	19.9	8.7	3.8	9.5	0.5

4)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 치료방법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

문항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2022. 5. 6.(금) ~ 5. 19.(목))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 도내 가구의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에 대하여 “유병률”은 31.6%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병일수” 10.8일, “평균 와병일수” 0.5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유병률은 시 지역(29.0%)이 군 지역(46.9%)에 비해 17.9%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남자(28.5%)가 여자(34.7%)에 비해 6.2%p 낮게 나타남

<그림 4-1> 유병률



<표 4-1> 유병기간 및 와병기간

(단위 : %, 일)

		합계	유병률 ¹⁾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와병일수
2020		100.0	28.6	9.8	0.7
2022		100.0	31.6	10.8	0.5
지역별	시 지역	100.0	29.0	10.3	0.5
	군 지역	100.0	46.9	12.5	0.3
성별	남 자	100.0	28.5	10.6	0.4
	여 자	100.0	34.7	11.0	0.5
연령별	15~19세	100.0	5.9	6.6	0.3
	20~29세	100.0	7.0	7.5	0.9
	30~39세	100.0	11.5	6.8	1.0
	40~49세	100.0	17.1	8.2	0.7
	50~59세	100.0	31.1	9.8	0.5
	60세 이상	100.0	62.6	12.1	0.4
	65세 이상	100.0	68.8	12.4	0.4

주 : 1) 지난 2주일 동안 가구원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치료방법

문항

지난 2주일(2022. 5. 6.(금) ~ 5. 19.(목))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일수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중복응답)

- 진료자가 있는 가구의 “평균 치료일수”는 11.1일이며, “병원 평균 치료일수” 10.7일, “의원 평균 치료일수” 10.6일, “보건소 평균 치료일수” 8.9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평균 치료일수”를 보면, 시 지역이 10.6일, 군 지역이 12.9일로 군 지역의 평균 치료일수가 2.3일 더 길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평균 치료일수”는 남자(10.9일)와 여자(11.3일)가 약 0.4일 정도의 차이를 보임

<그림 4-2> 치료기관에 따른 진료자 및 평균치료 일 수



<표 4-2> 치료방법

(단위 : %, 일)

	합계	진료자 ¹⁾	평균 치료 일수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한약국)		기타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진료 자	평 균 치 료 일 수	
2020	100.0	98.7	10.8	30.8	7.6	54.0	7.0	9.9	4.0	6.0	5.1	3.3	8.1	36.9	9.8	1.3	3.0	
2022	100.0	97.5	11.1	33.5	10.7	58.3	10.6	8.3	4.1	5.4	5.7	2.0	8.9	9.2	6.1	0.7	2.9	
지역 별	시 지역	100.0	97.1	10.6	33.3	10.1	58.2	10.0	9.7	4.0	5.9	5.9	1.1	5.4	10.6	6.0	0.6	3.5
	군 지역	100.0	98.9	12.9	34.1	12.9	58.6	12.4	3.4	4.5	3.7	4.4	5.1	11.6	4.3	6.5	0.8	1.3
성별	남 자	100.0	97.9	10.9	35.7	10.6	55.1	10.4	9.3	4.0	4.2	6.1	1.9	8.4	9.0	6.1	0.6	3.8
	여 자	100.0	97.2	11.3	31.7	10.8	60.9	10.6	7.4	4.2	6.5	5.4	2.0	9.3	9.4	6.1	0.7	2.3
연령 별	15~19세	100.0	100.0	6.6	32.9	9.4	54.9	4.9	9.2	2.7	0.0	-	2.1	7.0	11.9	3.0	2.5	1.0
	20~29세	100.0	94.9	7.3	41.4	7.6	38.6	6.9	14.2	3.6	3.9	7.8	0.0	-	10.7	4.7	3.2	4.7
	30~39세	100.0	96.7	7.3	28.1	7.3	57.1	6.4	14.4	3.8	5.2	5.2	1.7	3.0	14.5	5.3	0.0	-
	40~49세	100.0	96.9	8.3	33.6	8.3	53.6	7.4	12.6	2.8	7.4	4.8	1.0	6.0	13.9	5.5	1.0	4.7
	50~59세	100.0	98.2	10.4	31.8	9.6	56.1	10.4	11.1	5.3	4.8	6.2	0.5	7.2	10.4	5.6	0.7	4.5
	60세 이상	100.0	97.6	12.3	34.1	11.8	60.7	11.5	6.0	3.9	5.5	5.7	2.7	9.5	7.6	6.7	0.5	1.4
	65세 이상	100.0	97.3	12.6	34.3	11.9	61.3	11.8	5.2	3.8	5.5	5.6	2.9	9.7	7.0	6.8	0.6	1.3

주 : 1) 유병기간 중 병·의원 치료를 1회 이상 받았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5) 의료비의 부담정도

문항	귀하는 의료비(치료비와 약값 등)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병원이나 의원 등을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의료서비스를 감안할 때, 의료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 의료비 부담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통이다”이 57.6%, “(아주) 비싼 편이다” 28.8%, “(아주) 싼 편이다” 13.6%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의료비 부담정도 중 “(아주)비싼 편이다”의 비율은 시 지역(29.0%)이 군 지역(27.9%)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의료비 부담정도 중 “(아주)비싼 편이다”의 비율은 남자(28.4%)가 여자(29.2%)에 비해 0.8%p 낮게 나타남

<그림 5> 의료비 부담정도



<표 5> 의료비 부담정도

(단위 : %)

		합계	의료비 지출한다	아주 비싼 편이다	비싼 편이다	보통이다	싼 편이다	아주 싼 편이다
2020		100.0	64.8	1.9	24.8	60.6	11.1	1.6
2022		100.0	67.7	2.6	26.2	57.6	12.1	1.5
지역별	시 지역	100.0	65.9	2.6	26.4	58.7	10.9	1.5
	군 지역	100.0	78.2	2.5	25.4	52.5	17.9	1.7
성별	남 자	100.0	63.4	2.9	25.5	58.4	11.9	1.3
	여 자	100.0	72.0	2.4	26.8	56.9	12.2	1.7
연령별	15~19세	100.0	44.0	1.1	19.6	69.2	9.6	0.6
	20~29세	100.0	47.3	2.5	24.1	60.4	12.0	1.0
	30~39세	100.0	58.4	2.2	19.9	65.1	11.9	0.8
	40~49세	100.0	63.3	1.7	26.6	61.9	8.9	0.8
	50~59세	100.0	69.8	2.9	29.4	57.2	9.4	1.1
	60세 이상	100.0	84.7	3.2	27.1	52.2	15.1	2.4
	65세 이상	100.0	87.3	3.1	26.7	51.1	16.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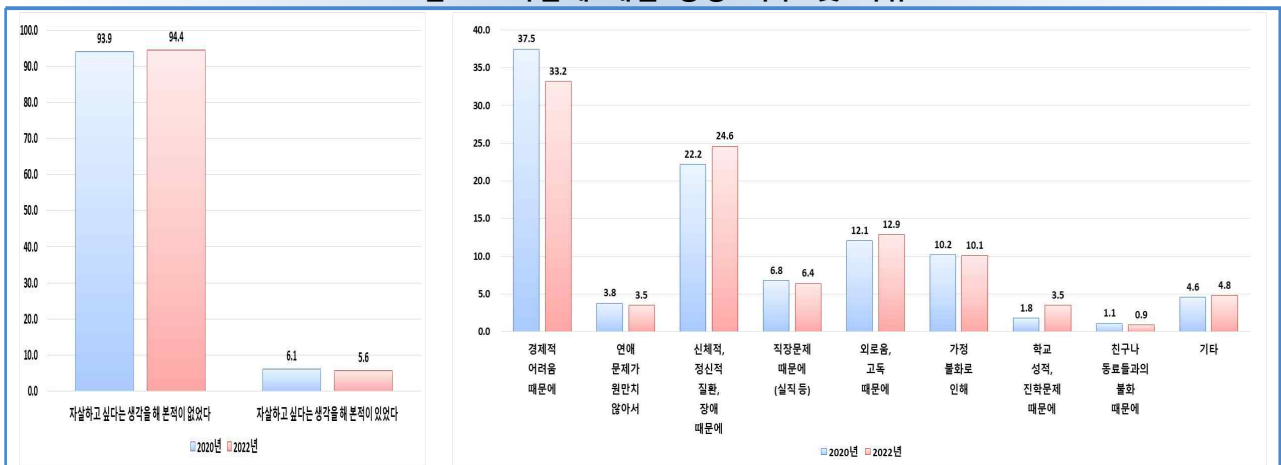
6)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1. 5. 20.~2022. 5. 19.)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는 “없었다”가 94.4%, “있었다”가 5.6%로 나타남
- 자살 충동에 대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33.2%,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중 “없었다”의 비율은 시 지역(93.9%)이 군 지역(97.5%)에 비해 3.6%p 낮게 나타남

<그림 6>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표 6>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

	합계	없었다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성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실직 등)	외로움, 고독 때문에	가정 불화로 인해	학교 성적, 진학문제 때문에	친구나 동료들과의 불화 때문에	기타
2020	100.0	93.9	6.1	37.5	3.8	22.2	6.8	12.1	10.2	1.8	1.1	4.6
2022	100.0	94.4	5.6	33.2	3.5	24.6	6.4	12.9	10.1	3.5	0.9	4.8
지역별												
시 지역	100.0	93.9	6.1	34.0	3.5	23.4	6.6	13.0	10.1	3.7	1.0	4.7
군 지역	100.0	97.5	2.5	21.8	4.2	41.4	3.6	11.3	10.2	1.0	0.0	6.5
성별												
남 자	100.0	95.2	4.8	38.3	3.0	21.1	8.0	15.5	8.4	3.1	0.0	2.6
여 자	100.0	93.6	6.4	29.4	4.0	27.2	5.2	10.9	11.4	3.8	1.6	6.4
연령별												
15~19세	100.0	94.4	5.6	9.8	0.0	14.8	0.0	8.8	6.2	49.1	11.3	0.0
20~29세	100.0	95.8	4.2	24.2	5.5	3.3	27.9	16.9	7.5	5.1	2.4	7.1
30~39세	100.0	93.6	6.4	38.2	2.1	9.5	9.9	10.0	17.6	1.4	0.0	11.3
40~49세	100.0	94.9	5.1	41.5	6.2	18.0	5.6	11.6	9.9	0.3	0.0	6.9
50~59세	100.0	93.7	6.3	41.8	4.5	27.5	2.0	10.3	9.8	0.9	0.0	3.1
60세 이상	100.0	94.3	5.7	27.1	2.2	40.5	3.2	16.3	8.3	0.0	0.4	2.0
65세 이상	100.0	94.1	5.9	21.0	1.7	44.4	3.7	19.6	7.1	0.0	0.5	1.9

2. 가족과 가구 부문

[조사항목별 요약]

7)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경남도민은 가사분담에 대하여 “부인이 주도”가 34.8%, “여건이 되는 사람”이 28.7%, “공평하게 분담”이 27.4%임
- 경남도민의 가사분담 실태에 대하여 “부인이 주도”가 48.8%,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27.4%이며, “공평하게 분담”이 10.6%, “여건이 되는 사람”이 10.0%로 나타남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경남도민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원”이 74.7%로 나타났고, “일부 지원” 22.8%, “지원하지 않음”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은 자녀의 생활비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52.5%로 나타났으며, “전적으로 지원” 33.7%, “지원하지 않음”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자녀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74.8%로 나타났으며, “지원하지 않음” 15.5%, “전적으로 지원”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63.5%로 나타났으며, “지원하지 않음” 32.0%, “전적으로 지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음”이 60.0%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원” 36.7%, “전적으로 지원”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9) 부모 부양 책임자

- 도내 가구 중 부모님 모두 안 계신 비율은 37.6%이며, 부모님 모두 계신 비율은 38.7%, 아버지만 계신 비율은 3.4%, 어머니만 계신 비율은 20.2%로 나타남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83.8%, 다음으로 “모든 자녀 공동” 8.5%, “장남”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0) 결혼에 대한 견해

- 경남도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1.3%로 2019년 (39.4%)에 비해 1.9%p 증가, “하는 것이 좋다”는 38.3%, “반드시 해야 한다”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1)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결혼가치관 변화” 23.6%,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20.8%,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방안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이 31.1%,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24.9%, “자녀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 해결방안은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이 26.4%,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해소” 24.1%, “출산친화적인 문화장려” 19.5%, “결혼가치관 변화”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 이상적인 자녀 수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 62.4%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명” 19.0%, “3명”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13)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 도내 가구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6.7%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이 44.0%, “유치원” 31.4%, “본인이나 배우자”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68.1%, “보통” 25.3%, “불만족” 6.7% 순으로 나타남

14)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서비스”가 2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4%, “공공보육 확대” 16.8%,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5) 분거가족

- 경남도민 중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는 21.8%이며, 가구당 평균 분거가족 수는 1.4명으로 나타났고, 따로 살고 있는 지역은 “타시도”가 59.2%, “도내 타 시군” 38.5%, “국외(해외)” 2.3%로 나타남
-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직장(직업)”이 62.3%,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26.1%로 나타남
-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은 “5년 이상”이 24.5%, “1~2년 미만” 21.4%로 나타남

16) 가족관계 만족도

- 경남도민의 가족관계 만족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7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69.1%, “나의 부모와의 관계” 6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 69.1%, “보통” 26.2%, “불만족” 4.7%로 나타나, “만족”의 비율은 2020년(67.6%)에 비해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74.5%로 나타났으며, “보통” 23.1%, “불만족” 2.5%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73.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67.3%, “보통” 29.1%, “불만족” 3.6%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66.4%)에 비해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6.0%, “보통” 37.9%, “불만족”은 6.1%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5.5%)에 비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4.3%, “보통” 40.4%, “불만족” 5.2%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2.9%)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45.3%로 나타났고, “보통” 47.1%, “불만족”은 7.6%로 나타남. “만족”은 2020년(44.6%)에 비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8.5%, “보통” 38.6%, “불만족” 2.9%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6.5%)에 비해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7) 월 평균 가구소득

- 경남도민의 주된 가구 소득원은 “가구주 근로소득” 49.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소득” 17.1%, “정부의 보조금”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 23.1%, “100~200만원 미만” 19.6%, “200~300만원 미만” 19.1%, “300~400만원 미만”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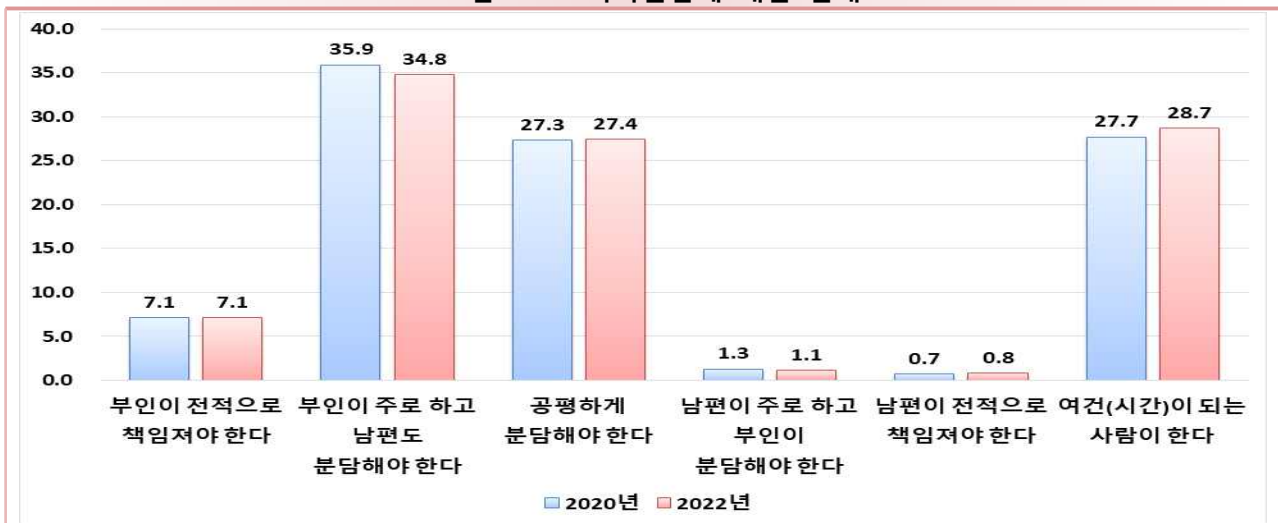
7)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문항 귀하는 평소 가사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은 가사분담에 대하여 “부인이 주도”가 34.8%, “여건이 되는 사람”이 28.7%, “공평하게 분담”이 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중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의 비율은 시 지역(6.5%)이 군 지역(10.3%)에 비해 3.8%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중 “공평하게 분담”의 비율은 남자(25.5%)가 여자(29.4%)에 비해 3.9%p 낮게 나타남

<그림 7-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표 7-1>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단위 : %)

		합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고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여건(시간)이 되는 사람
2020		100.0	7.1	35.9	27.3	1.3	0.7	27.7
2022		100.0	7.1	34.8	27.4	1.1	0.8	28.7
지역별	시 지역	100.0	6.5	33.6	28.0	1.2	0.9	29.8
	군 지역	100.0	10.3	41.7	24.4	0.5	0.5	22.6
성별	남 자	100.0	7.3	35.9	25.5	1.3	1.0	28.8
	여 자	100.0	6.8	33.7	29.4	0.9	0.6	28.7
연령별	15~19세	100.0	0.9	7.5	45.8	0.4	0.5	44.9
	20~29세	100.0	1.0	9.6	40.1	1.0	0.7	47.6
	30~39세	100.0	2.4	24.4	34.9	0.8	0.6	37.0
	40~49세	100.0	3.9	36.1	29.3	0.8	0.7	29.0
	50~59세	100.0	7.0	42.2	22.1	1.5	0.9	26.4
	60세 이상	100.0	14.3	48.1	18.7	1.3	1.1	16.6
	65세 이상	100.0	16.6	48.7	17.2	1.1	1.0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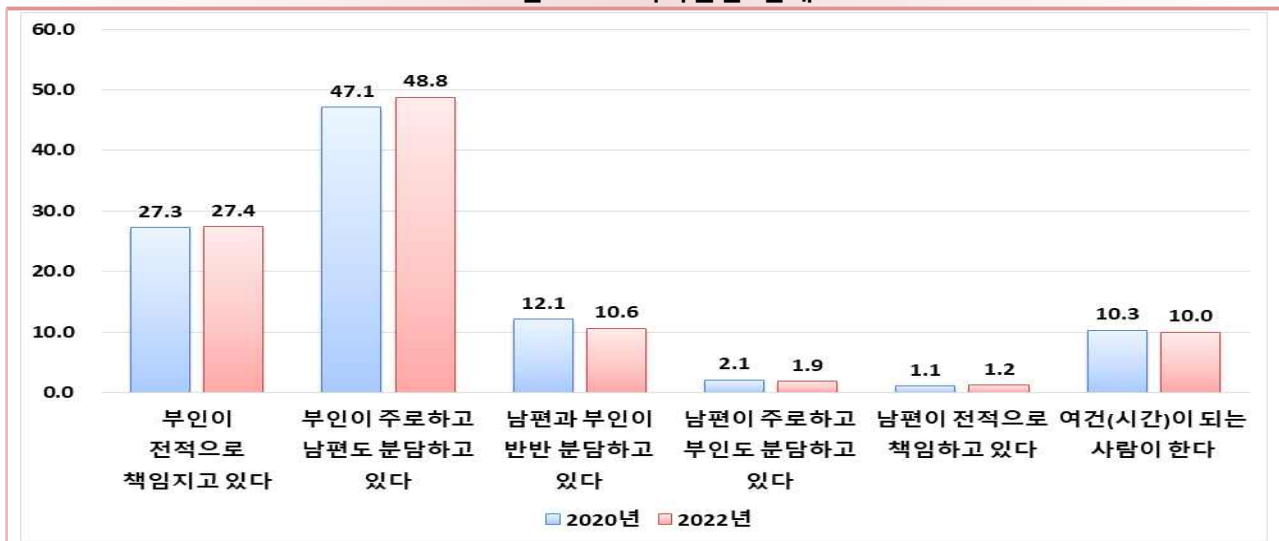
가사분담 실태

문항

귀댁에서는 평소 가사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가사분담 실태에 대하여 “부인이 주도”가 48.8%,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27.4%이며, “공평하게 분담”이 10.6%, “여건이 되는 사람”이 10.0%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가사분담 실태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의 비율은 시 지역(26.4%)이 군 지역(33.4%)에 비해 7.0%p 낮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가사분담 실태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의 비율이 남자(27.2%)가 여자(30.0%)보다 2.8%p 낮음

<그림 7-2> 가사분담 실태



<표 7-2>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합계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고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여건(시간)이 되는 사람
2020		100.0	54.7	27.3	47.1	12.1	2.1	1.1	10.3
2022		100.0	52.1	27.4	48.8	10.6	1.9	1.2	10.0
지역별	시 지역	100.0	53.0	26.4	49.2	10.9	2.1	1.2	10.2
	군 지역	100.0	47.2	33.4	46.8	8.7	0.9	1.0	9.3
성별	남 자	100.0	71.0	27.2	49.4	10.7	1.9	1.2	9.6
	여 자	100.0	13.2	30.0	42.8	10.0	1.8	1.1	14.4
연령별	15~19세	100.0	0.0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11.3	4.5	44.0	28.7	4.5	0.0	18.4
	30~39세	100.0	57.1	16.4	47.0	18.1	2.4	1.1	15.0
	40~49세	100.0	63.2	21.1	52.6	12.4	0.7	1.0	12.1
	50~59세	100.0	57.3	25.8	49.2	8.6	1.9	1.1	13.3
	60세 이상	100.0	48.5	34.0	47.4	8.8	2.3	1.3	6.2
	65세 이상	100.0	44.9	36.9	45.4	8.6	2.5	1.2	5.4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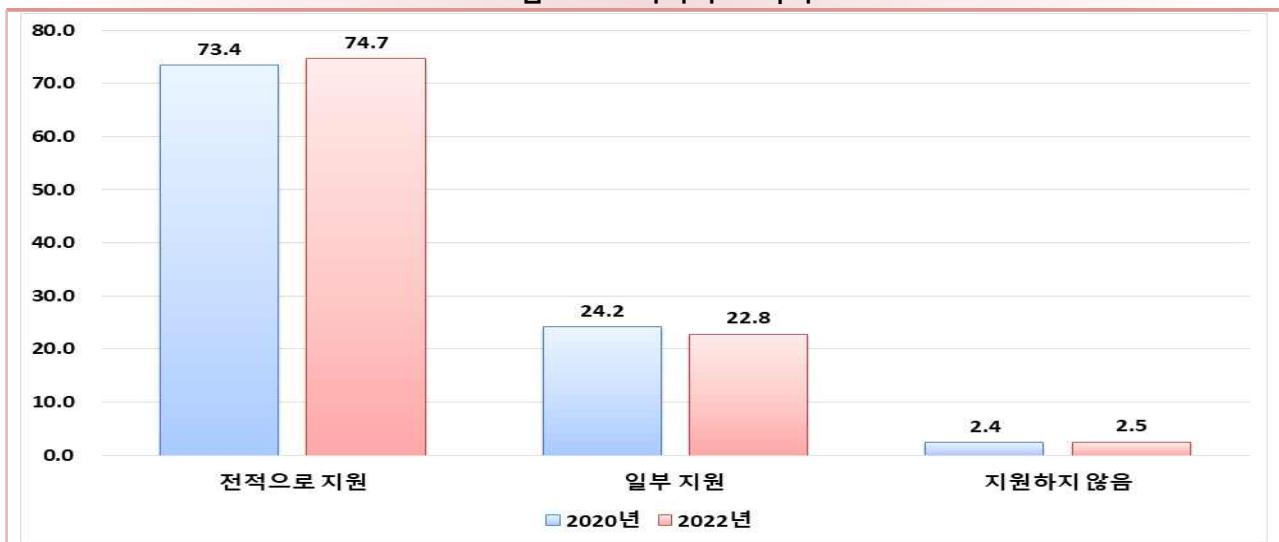
귀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교육비

○ 경남도민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원”이 74.7%로 나타났고, “일부 지원” 22.8%, “지원하지 않음”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원”의 비율은 시 지역(73.9%)이 군 지역(79.6%)에 비해 5.7%p 낮게 나타남

<그림 8-1> 자녀의 교육비



<표 8-1> 자녀의 교육비

(단위 : %)

		합계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연도	2020	100.0	73.4	24.2	2.4
	2022	100.0	74.7	22.8	2.5
지역	시 지역	100.0	73.9	23.4	2.7
	군 지역	100.0	79.6	19.3	1.1
성별	남 자	100.0	73.8	23.5	2.6
	여 자	100.0	75.6	22.1	2.3
연령	15~19세	100.0	78.2	20.7	1.2
	20~29세	100.0	68.6	29.4	2.0
	30~39세	100.0	80.6	17.9	1.5
	40~49세	100.0	81.3	17.5	1.3
	50~59세	100.0	75.7	21.8	2.5
	60세 이상	100.0	69.7	26.4	3.9
	65세 이상	100.0	68.5	27.4	4.1

자녀의 생활비

○ 경남도민은 자녀의 생활비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52.5%로 나타났으며, “전적으로 지원” 33.7%, “지원하지 않음”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자녀의 생활비에 대하여 “일부 지원”의 비율은 시 지역 52.9%, 군 지역 50.2%로 나타났으며, “전적으로 지원”의 비율은 시 지역 33.1%, 군 지역 37.0%로 나타남

<그림 8-2> 자녀의 생활비



<표 8-2> 자녀의 생활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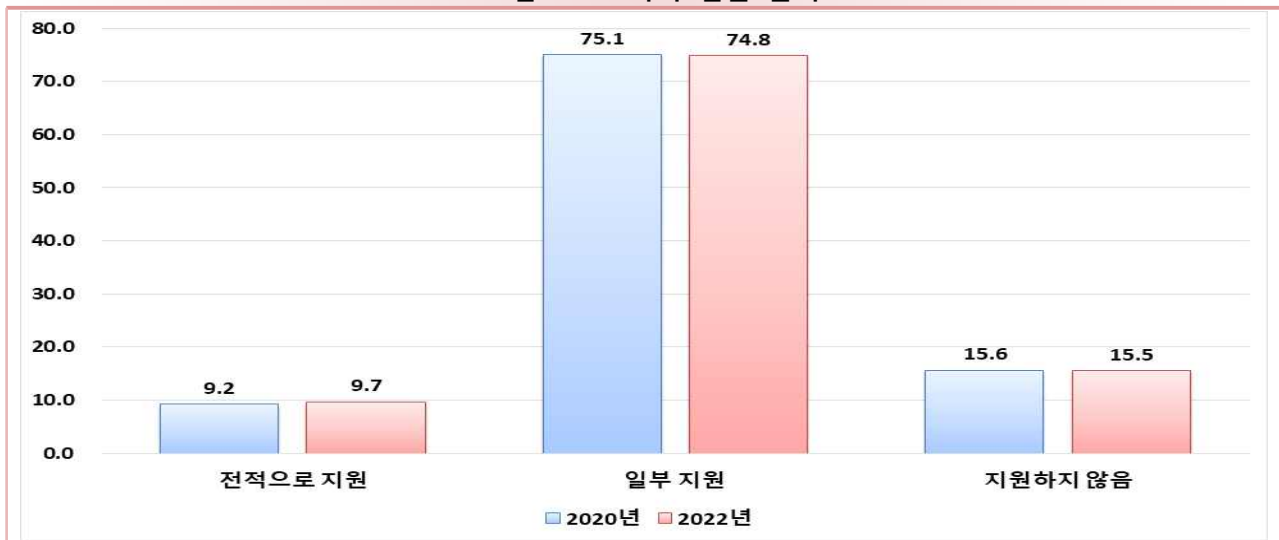
		합계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전체	2020	100.0	32.5	52.7	14.7
	2022	100.0	33.7	52.5	13.8
	시 지역	100.0	33.1	52.9	14.0
지역	군 지역	100.0	37.0	50.2	12.8
	남 자	100.0	35.0	50.8	14.2
성별	여 자	100.0	32.3	54.2	13.5
	15~19세	100.0	46.4	47.6	5.9
연령	20~29세	100.0	30.0	61.3	8.7
	30~39세	100.0	42.9	48.7	8.4
	40~49세	100.0	39.7	51.5	8.9
	50~59세	100.0	31.7	53.0	15.4
	60세 이상	100.0	27.0	51.7	21.3
	65세 이상	100.0	26.7	51.9	21.4
		100.0			

자녀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집 마련) 비용

○ 경남도민 중 자녀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74.8%로 나타났으며, “지원하지 않음” 15.5%, “전적으로 지원”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자녀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집 마련) 비용에 대하여 시 지역은 “전적으로 지원” 9.5%, “일부 지원” 74.7%로 나타났고, 군 지역은 “전적으로 지원” 10.6%, “일부 지원” 75.2%로 나타남

<그림 8-3> 자녀 결혼 준비



<표 8-3> 자녀 결혼 준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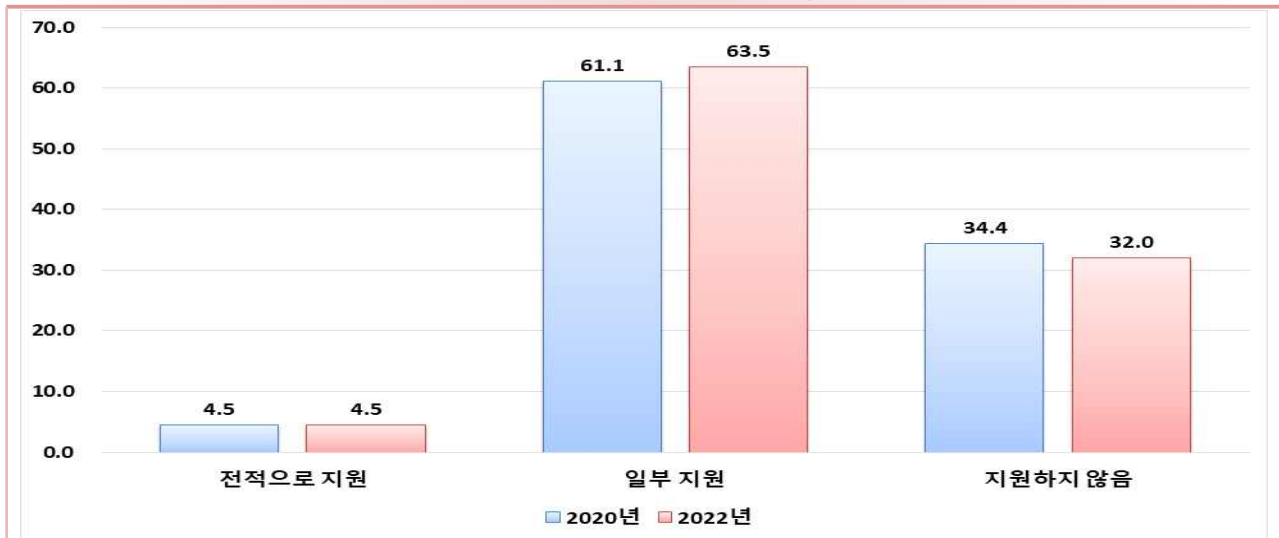
		합계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2020	100.0	9.2	75.1	15.6
	2022	100.0	9.7	74.8	15.5
	지역별				
	시 지역	100.0	9.5	74.7	15.8
	군 지역	100.0	10.6	75.2	14.2
성별	남 자	100.0	10.0	74.1	15.9
	여 자	100.0	9.3	75.5	15.2
연령별	15~19세	100.0	15.3	69.2	15.5
	20~29세	100.0	8.9	72.4	18.7
	30~39세	100.0	13.2	74.9	11.8
	40~49세	100.0	7.4	79.3	13.3
	50~59세	100.0	7.8	77.9	14.4
	60세 이상	100.0	10.1	72.0	17.9
	65세 이상	100.0	10.4	70.8	18.8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 경남도민 중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하여 “일부 지원”이 63.5%로 나타났으며, “지원하지 않음” 32.0%, “전적으로 지원”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하여 시 지역은 “전적으로 지원” 4.6%, “일부 지원” 63.8%, “지원하지 않음” 31.7%였고, 군 지역은 “전적으로 지원” 3.9%, “일부 지원” 62.3%, “지원하지 않음” 33.8%로 나타남

<그림 8-4>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표 8-4> 결혼한 자녀의 주택 마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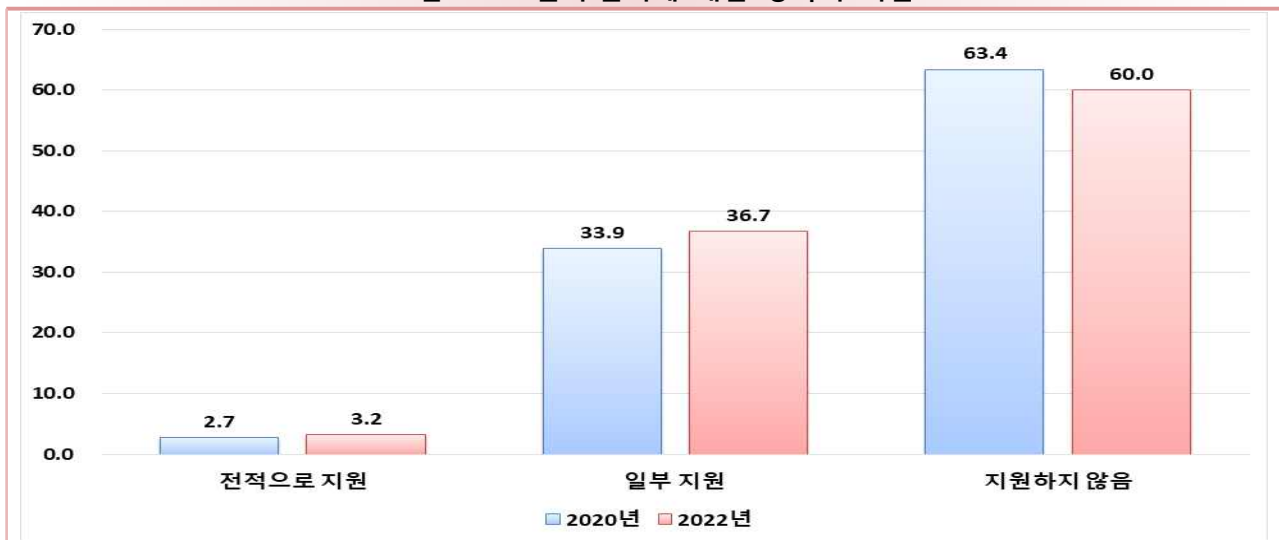
		합계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2020	100.0	4.5	61.1	34.4
	2022	100.0	4.5	63.5	32.0
지역별	시 지역	100.0	4.6	63.8	31.7
	군 지역	100.0	3.9	62.3	33.8
성별	남 자	100.0	4.7	64.1	31.2
	여 자	100.0	4.2	63.0	32.8
연령별	15~19세	100.0	8.8	60.9	30.3
	20~29세	100.0	4.9	61.0	34.1
	30~39세	100.0	6.4	67.5	26.1
	40~49세	100.0	3.6	67.1	29.3
	50~59세	100.0	3.3	66.0	30.7
	60세 이상	100.0	4.0	59.7	36.2
	65세 이상	100.0	4.0	58.1	37.9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 경남도민 중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음”이 60.0%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원” 36.7%, “전적으로 지원”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음”의 비율이 시 지역이 58.9%로 군 지역 66.3%보다 7.4%p 낮았음
- 성별에 따른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음”의 비율이 남자 59.0%, 여자 61.0%로 남자가 여자보다 2.0%p 낮았음

<그림 8-5>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표 8-5> 손자·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단위 : %)

		합계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2020		100.0	2.7	33.9	63.4
2022		100.0	3.2	36.7	60.0
지역별	시 지역	100.0	3.4	37.7	58.9
	군 지역	100.0	2.3	31.4	66.3
성별	남 자	100.0	3.7	37.3	59.0
	여 자	100.0	2.8	36.2	61.0
연령별	15~19세	100.0	5.9	37.2	56.8
	20~29세	100.0	4.0	35.3	60.7
	30~39세	100.0	4.1	42.9	53.0
	40~49세	100.0	3.5	37.7	58.8
	50~59세	100.0	2.4	37.9	59.7
	60세 이상	100.0	2.5	33.4	64.1
	65세 이상	100.0	2.3	32.7	65.0

9) 부모 부양 책임자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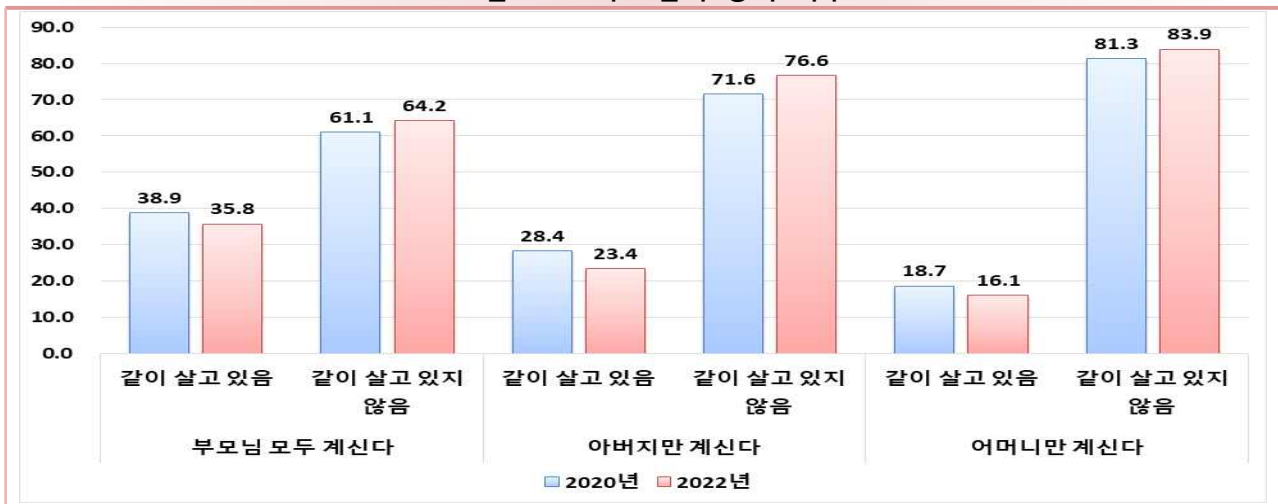
귀하의 부모님은 살아 있습니까? 있다면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동거 여부

○ 도내 가구 중 부모님 모두 안 계신 비율은 37.6%이며, 부모님 모두 계신 비율은 38.7%, 아버지만 계신 비율은 3.4%, 어머니만 계신 비율은 20.2%로 나타남

- 부모님과 동거 여부는 부모님 모두 계신 경우 35.8%, 아버지만 계신 경우 23.4%, 어머니만 계신 경우 16.1%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1> 부모님과 동거 여부



<표 9-1> 부모님과 동거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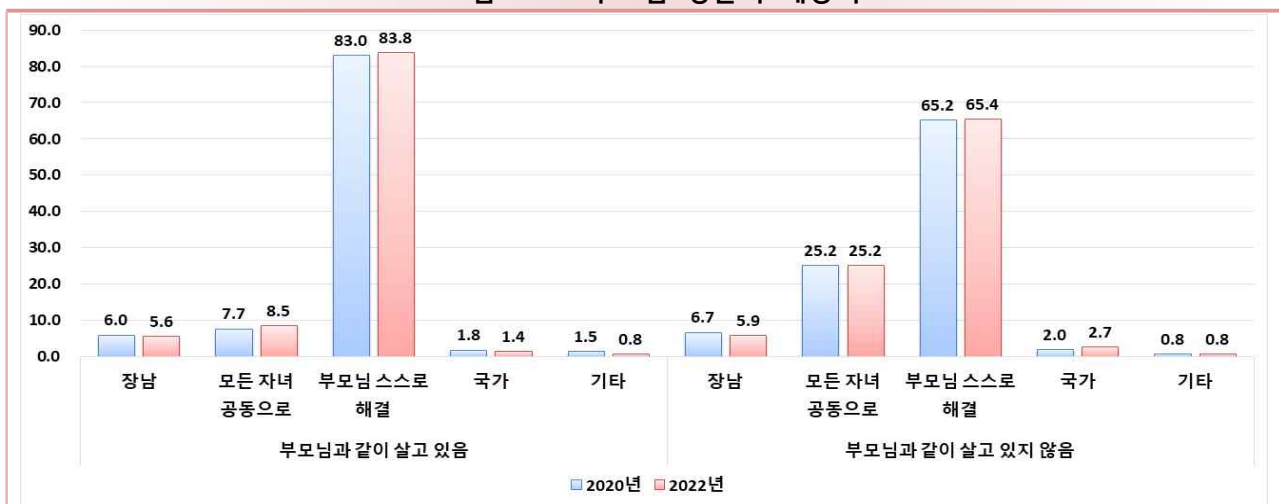
		부모님 모두 계신다	동거여부		아버지만 계신다	동거여부		어머니만 계신다	동거여부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지·시·군	2020	40.8	38.9	61.1	3.1	28.4	71.6	20.0	18.7	81.3	36.1
	2022	38.7	35.8	64.2	3.4	23.4	76.6	20.2	16.1	83.9	37.6
	시 지역	41.1	35.3	64.7	3.6	22.4	77.6	20.9	15.4	84.6	34.4
성별	군 지역	25.2	40.2	59.8	2.2	33.1	66.9	16.1	21.6	78.4	56.5
	남 자	40.8	38.4	61.6	3.8	25.6	74.4	20.8	21.5	78.5	34.6
	여 자	36.7	32.8	67.2	2.9	20.5	79.5	19.6	10.4	89.6	40.7
연령별	15~19세	92.4	92.3	7.7	1.9	88.8	11.2	5.5	89.8	10.2	0.1
	20~29세	85.8	62.4	37.6	4.8	54.8	45.2	8.3	66.3	33.7	1.1
	30~39세	78.5	18.6	81.4	4.9	29.3	70.7	13.1	22.8	77.2	3.5
	40~49세	51.7	7.1	92.9	4.9	9.5	90.5	32.6	13.4	86.6	10.8
	50~59세	16.1	6.3	93.7	4.4	7.9	92.1	40.2	9.7	90.3	39.2
	60세 이상	1.8	2.9	97.1	0.9	13.7	86.3	10.4	11.2	88.8	86.8
	65세 이상	0.6	2.6	97.4	0.4	7.9	92.1	5.9	12.2	87.8	93.1

부모님 생활비 제공자

○ 도내 가구 중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은 28.7%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율은 71.3%로 나타남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83.8%, 다음으로 “모든 자녀 공동” 8.5%, “장남”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생활비 부담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65.4%, “모든 자녀 공동” 25.2%, “장남” 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2> 부모님 생활비 제공자



<표 9-2> 부모님 생활비 제공자

(단위 :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음						
		소계	장남	모든 자녀 공동	부모님 스스로 해결	국가	기타	소계	장남	모든 자녀 공동	부모님 스스로 해결	국가	기타		
2020		32.1	100.0	6.0	7.7	83.0	1.8	1.5	67.9	100.0	6.7	25.2	65.2	2.0	0.8
2022		28.7	100.0	5.6	8.5	83.8	1.4	0.8	71.3	100.0	5.9	25.2	65.4	2.7	0.8
지역별	시 지역	28.3	100.0	5.5	8.4	83.9	1.4	0.8	71.7	100.0	5.9	24.7	65.9	2.7	0.8
	군 지역	33.0	100.0	6.1	9.2	82.7	1.5	0.5	67.0	100.0	5.8	30.6	60.3	2.8	0.5
성별	남 자	32.3	100.0	7.9	9.5	80.2	1.6	0.7	67.7	100.0	6.4	25.6	64.7	2.4	0.9
	여 자	24.8	100.0	2.1	7.0	88.9	1.0	0.9	75.2	100.0	5.3	24.9	66.1	3.0	0.7
연령별	15~19세	92.1	100.0	1.2	1.5	96.3	0.8	0.2	7.9	100.0	0.0	10.1	89.9	0.0	0.0
	20~29세	62.4	100.0	1.2	5.2	92.6	0.8	0.1	37.6	100.0	2.0	7.6	88.6	1.7	0.2
	30~39세	19.7	100.0	4.8	9.5	85.3	0.2	0.3	80.3	100.0	2.5	9.6	86.7	0.9	0.3
	40~49세	9.5	100.0	16.1	24.9	51.2	2.9	4.9	90.5	100.0	4.0	25.0	68.0	2.1	1.0
	50~59세	8.7	100.0	27.9	27.9	34.1	7.1	3.0	91.3	100.0	10.3	39.6	44.8	4.1	1.1
	60세 이상	10.3	100.0	42.8	34.6	14.0	5.4	3.2	89.7	100.0	14.5	48.6	28.2	7.2	1.5
	65세 이상	11.1	100.0	48.3	36.9	7.9	3.4	3.5	88.9	100.0	15.5	53.0	21.8	7.4	2.3

10) 결혼에 대한 견해

문항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41.3%로 2019년 (39.4%)에 비해 1.9%p 증가, “하는 것이 좋다”는 38.3%, “반드시 해야 한다”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견해는 “하는 것이 좋다”의 비율은 남자(41.1%)가 여자(35.4%)에 비해 5.7%p 높게 나타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은 남자(37.9%)가 여자(44.7%)에 비해 6.8%p 낮게 나타남

<그림 10> 결혼에 대한 견해



<표 10>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합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2020		100.0	15.5	38.5	39.4	2.7	1.1	2.9
2022		100.0	13.6	38.3	41.3	2.5	0.9	3.5
지역별	시 지역	100.0	12.4	37.9	42.4	2.6	0.9	3.7
	군 지역	100.0	20.4	40.5	34.8	1.7	0.5	2.2
성별	남 자	100.0	14.7	41.1	37.9	1.8	0.7	3.7
	여 자	100.0	12.4	35.4	44.7	3.2	1.0	3.2
연령별	15~19세	100.0	2.4	21.3	56.4	5.7	1.9	12.4
	20~29세	100.0	6.8	28.8	53.9	3.9	0.7	6.0
	30~39세	100.0	6.4	29.5	56.0	3.3	0.8	3.9
	40~49세	100.0	7.0	35.8	51.2	2.8	1.1	2.2
	50~59세	100.0	10.7	43.7	40.2	1.9	1.0	2.5
	60세 이상	100.0	26.7	46.4	22.8	1.3	0.5	2.2
	65세 이상	100.0	29.7	46.2	20.1	1.2	0.6	2.1

11) 저출산의 이유와 해결방안

저출산의 주된 요인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결혼가치관 변화” 23.6%,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20.8%,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저출산 요인 중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는 남자(15.1%)가 여자(19.0%)에 비해 3.9%p 낮았고,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은 남자(17.4%)가 여자(14.3%)에 비해 3.1%p 높았음

<그림 11-1> 저출산의 주된 요인



<표 11-1> 저출산의 주된 요인

(단위 : %)

		합계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결혼 가치관 변화	초혼연령 상승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불임 증대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기타
	2020	100.0	14.6	17.2	21.5	3.5	20.6	1.2	20.5	0.9
	2022	100.0	15.7	17.1	23.6	4.8	20.8	1.2	15.8	1.0
	지자체별									
	시 지역	100.0	15.5	16.6	24.1	4.7	20.7	1.3	16.1	1.1
	군 지역	100.0	17.0	20.1	20.3	5.3	21.4	1.0	14.5	0.3
	남 자	100.0	15.3	15.1	23.9	5.0	21.2	0.9	17.4	1.2
	여 자	100.0	16.1	19.0	23.2	4.5	20.5	1.6	14.3	0.7
	연령별									
	15~19세	100.0	14.4	11.2	34.8	3.8	19.0	1.4	14.0	1.3
	20~29세	100.0	13.2	14.3	28.5	3.0	18.8	1.0	19.6	1.6
	30~39세	100.0	16.5	13.3	22.7	3.7	22.6	1.1	18.0	2.1
	40~49세	100.0	16.8	14.0	23.1	4.4	24.2	1.1	15.1	1.1
	50~59세	100.0	14.9	18.0	24.2	3.8	21.6	1.1	15.7	0.6
	60세 이상	100.0	16.4	21.9	19.9	6.8	18.8	1.5	14.3	0.3
	65세 이상	100.0	16.7	22.6	19.2	7.1	18.3	1.7	14.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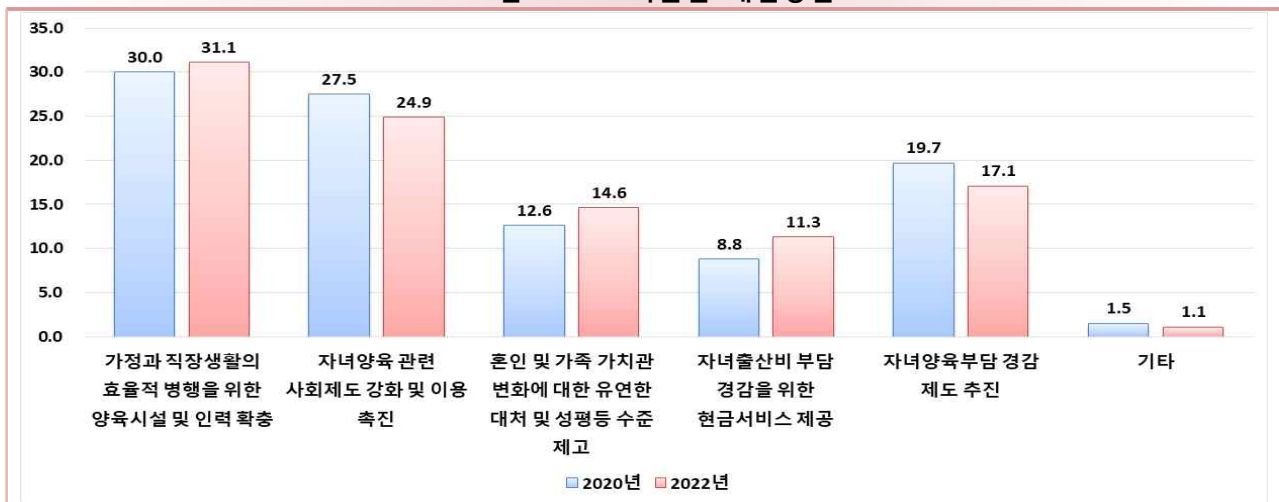
저출산 해결방안

문항 귀하는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방안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이 31.1%,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24.9%, “자녀양육부담 경감 제도 추진”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 및 인력 확충”의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그림 11-2> 저출산 해결방안



<표 11-2> 저출산 해결방안

(단위 : %)

	합계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및 인력 확충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혼인 및 가족 가치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및 성평등 수준 제고	자녀출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서비스 제공추진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제도 추진	기타
2020	100.0	30.0	27.5	12.6	8.8	19.7	1.5
2022	100.0	31.1	24.9	14.6	11.3	17.1	1.1
지역별							
시 지역	100.0	31.1	25.1	14.8	10.8	17.1	1.2
군 지역	100.0	31.6	23.5	13.7	14.0	16.8	0.5
성별							
남 자	100.0	31.0	24.1	13.9	11.2	18.3	1.5
여 자	100.0	31.3	25.6	15.3	11.4	15.8	0.6
연령별							
15~19세	100.0	24.8	24.0	17.6	16.6	15.8	1.1
20~29세	100.0	27.5	25.9	14.8	14.0	16.8	1.0
30~39세	100.0	30.1	24.2	13.3	12.7	17.6	2.1
40~49세	100.0	32.1	25.0	14.4	8.1	18.8	1.6
50~59세	100.0	32.2	26.5	14.7	9.2	16.6	0.8
60세 이상	100.0	32.8	23.7	14.6	11.9	16.4	0.5
65세 이상	100.0	32.6	23.1	14.7	12.4	16.6	0.5

인구감소 해결방안

문항

귀하는 지역의 인구감소 해결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 해결방안은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이 26.4%,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해소” 24.1%, “출산 친화적인 문화 장려” 19.5%, “결혼가치관 변화”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저출산 해결방안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3> 인구감소 해결방안



<표 11-3> 인구감소 해결방안

(단위 : %)

		합계	출산 친화적인 문화장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결혼 가치관 변화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	경제침체 및 직장 불안정 해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기타
2020		100.0	17.9	2.8	16.5	5.3	23.0	30.4	3.3	0.8
2022		100.0	19.5	2.6	17.7	5.7	26.4	24.1	3.4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19.0	2.7	18.0	5.8	26.0	24.4	3.5	0.6
	군 지역	100.0	22.6	1.6	16.2	5.3	28.3	22.4	3.2	0.4
성별	남 자	100.0	20.0	2.6	17.3	4.9	27.0	24.2	3.0	0.8
	여 자	100.0	19.0	2.5	18.1	6.5	25.7	24.0	3.8	0.3
연령별	15~19세	100.0	14.0	3.0	21.2	7.9	24.8	23.3	5.3	0.6
	20~29세	100.0	14.6	2.4	18.7	6.0	26.7	27.3	3.6	0.8
	30~39세	100.0	17.6	1.9	13.5	5.0	30.5	27.6	2.9	1.1
	40~49세	100.0	17.9	2.2	15.4	5.5	27.3	27.5	3.4	0.8
	50~59세	100.0	19.7	2.5	18.6	5.7	25.2	24.3	3.5	0.5
	60세 이상	100.0	24.0	3.1	19.3	5.7	25.0	19.5	3.2	0.2
	65세 이상	100.0	25.1	3.2	19.1	5.8	24.2	19.1	3.1	0.2

12) 이상적인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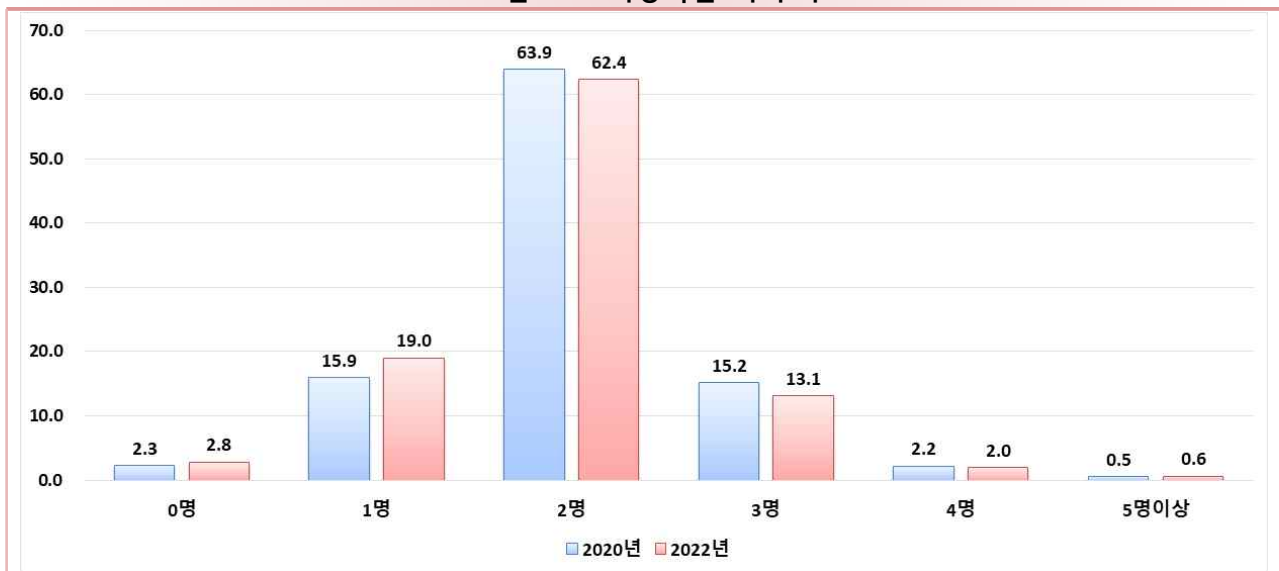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혼인이나 자녀 유무에 관계 없이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 62.4%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명” 19.0%, “3명”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이상적인 자녀 수는 “3명”은 시 지역(12.5%)이 군 지역(16.8%)에 비해 4.3%p 낮게 나타남

<그림 12> 이상적인 자녀 수



<표 1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

		합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20		100.0	2.3	15.9	63.9	15.2	2.2	0.5
2022		100.0	2.8	19.0	62.4	13.1	2.0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3.0	19.5	62.5	12.5	1.8	0.6
	군 지역	100.0	1.5	16.2	61.8	16.8	2.9	0.8
성별	남 자	100.0	2.8	19.4	62.3	13.2	1.7	0.6
	여 자	100.0	2.8	18.6	62.6	13.1	2.3	0.6
연령별	15~19세	100.0	9.2	38.2	47.2	4.6	0.6	0.3
	20~29세	100.0	6.6	29.8	56.3	6.7	0.3	0.3
	30~39세	100.0	3.4	23.5	64.0	8.1	0.6	0.4
	40~49세	100.0	2.0	19.1	64.4	12.1	1.7	0.6
	50~59세	100.0	1.8	16.5	66.2	13.4	1.7	0.4
	60세 이상	100.0	1.1	11.2	63.2	19.7	3.8	1.0
	65세 이상	100.0	1.0	10.2	61.5	21.5	4.7	1.2

13)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문항

귀 댁에는 미취학(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몇 명입니까?
미취학 자녀의 낮 시간 동안의 주 보육방법을 작성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도내 가구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6.7%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어린이집”이 44.0%, “유치원” 31.4%, “본인이나 배우자”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 만족도는 “만족”이 68.1%, “보통” 25.3%, “불만족” 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표 13> 자녀양육방법 및 보육시설 만족도

(단위 : %)

		합계	미취학 자녀가 있다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보육시설 만족도		
				본인 이나 배우자	부모님 이나 친인척	친인척 이외 개인	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	기타	만족	보통	불만족
2020		100.0	8.5	21.1	3.9	0.8	44.2	28.8	1.0	0.1	62.0	29.7	8.3
2022		100.0	6.7	19.9	2.8	0.4	44.0	31.4	1.2	0.2	68.1	25.3	6.7
지역별	시 지역	100.0	7.3	20.0	2.8	0.4	43.3	32.1	1.3	0.2	67.8	25.4	6.8
	군 지역	100.0	3.1	19.4	3.2	0.4	54.5	22.1	0.4	0.0	70.9	24.1	5.0
성별	남 자	100.0	8.8	20.5	2.7	0.4	43.7	31.4	1.1	0.2	67.4	25.5	7.1
	여 자	100.0	2.3	15.3	4.3	0.3	46.7	31.5	2.1	0.0	73.4	23.3	3.3
연령별	15~19세	-	-	-	-	-	-	-	-	-	-	-	-
	20~29세	100.0	5.7	27.8	1.5	0.0	53.2	16.7	0.8	0.0	95.1	4.9	0.0
	30~39세	100.0	39.0	23.7	3.0	0.0	42.9	30.1	0.0	0.2	68.1	26.2	5.7
	40~49세	100.0	14.2	13.7	1.7	1.0	44.5	35.3	3.5	0.3	68.0	26.2	5.8
	50~59세	100.0	0.9	6.1	19.2	0.0	60.6	14.0	0.0	0.0	50.8	20.9	28.3
	60세 이상	100.0	0.3	16.1	0.0	0.0	36.4	47.6	0.0	0.0	49.0	20.5	30.5
	65세 이상	100.0	0.1	19.7	0.0	0.0	9.9	70.4	0.0	0.0	69.6	5.8	24.6

14)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문항 귀하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서비스”가 2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4%, “공공보육 확대” 16.8%,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시 지역 26.8%로 군 지역 29.6%보다 2.8%p 낮게 나타났으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의 비율은 시 지역이 16.9%로 군 지역 14.4%보다 2.5%p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돌봄서비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남

<그림 14>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표 14>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

		합계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공공보육 확대	돌봄 서비스	돌봄휴가 확대	기타
	2020	100.0	11.5	19.8	16.0	16.5	27.7	7.2	1.4
	2022	100.0	9.8	20.4	16.5	16.8	27.2	8.2	1.1
지역별	시 지역	100.0	9.9	20.7	16.9	16.4	26.8	8.1	1.2
	군 지역	100.0	9.4	19.1	14.4	18.6	29.6	8.4	0.6
성별	남 자	100.0	11.3	18.2	17.9	17.6	25.8	7.8	1.4
	여 자	100.0	8.3	22.7	15.1	15.9	28.6	8.5	0.8
연령별	15~19세	100.0	17.7	21.4	19.3	11.0	19.8	9.1	1.6
	20~29세	100.0	18.6	19.9	20.3	11.0	20.2	8.9	1.0
	30~39세	100.0	12.9	25.1	11.3	14.6	25.2	8.8	2.1
	40~49세	100.0	8.8	21.7	14.4	15.2	30.1	8.3	1.5
	50~59세	100.0	6.6	19.1	17.3	18.9	29.3	7.9	1.0
	60세 이상	100.0	6.5	18.8	17.4	20.4	29.0	7.5	0.5
	65세 이상	100.0	6.3	18.4	17.8	20.5	29.1	7.4	0.4

15) 분거가족

문항

귀 댁에는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타 시·군, 타 시·도 또는 해외)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따로 살고 있는 지역, 이유 및 기간은 어떠합니까?

분거가족 유무 및 따로 살고 있는 지역

○ 경남도민 중 분거가족이 있는 가구는 21.8%이며, 가구당 평균 분거가족 수는 1.4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분거가구 비율은 시 지역(21.3%)이 군 지역(24.5%)에 비해 3.2%p 낮음
- 따로 살고 있는 지역 중 “타 시도”는 시 지역(60.0%)이 군 지역(55.4%)보다 4.6%p 높았으며, “타 시·군”은 시 지역(37.6%)이 군 지역(42.9%)보다 5.3%p 낮게 나타남

<그림 15-1> 분거가족 유무 및 따로 살고있는 지역



<표 15-1> 분거가족 유무 및 따로 살고있는 지역

(단위 : %, 명)

		합계	분거가구	가구당 평균 분거 가족수	따로 살고있는 지역		
					타 시군	타 시도	국외(해외)
2020		100.0	22.7	1.4	37.8	58.8	3.4
2022		100.0	21.8	1.4	38.5	59.2	2.3
지역별	시 지역	100.0	21.3	1.4	37.6	60.0	2.4
	군 지역	100.0	24.5	1.5	42.9	55.4	1.7
성별	남 자	100.0	21.7	1.4	37.3	60.7	2.0
	여 자	100.0	21.9	1.4	41.1	56.0	2.9
연령별	15~19세	0.0	-	-	-	-	-
	20~29세	100.0	1.1	1.0	38.8	61.2	0.0
	30~39세	100.0	6.7	1.3	37.3	58.7	4.0
	40~49세	100.0	20.6	1.5	46.5	51.5	2.1
	50~59세	100.0	47.0	1.5	33.8	64.3	2.0
	60세 이상	100.0	16.4	1.3	41.2	56.1	2.8
	65세 이상	100.0	11.8	1.2	43.8	53.9	2.3

따로 살고 있는 이유

○ 분거가구 중 가구원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직장(직업)”이 62.3%로 2020년 (60.1%)에 비해 2.2%p 증가,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26.1%, “군대” 3.1%, “가족 간의 불화” 2.5%, “건강상의 이유” 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분거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 중 “직장(직업)”의 비율은 시 지역(61.0%) 이 군 지역(68.4%)에 비해 7.4%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경남도민 분거가족의 따로 살고 있는 이유 중 “직장(직업)”의 비율은 남자 (58.5%)가 여자(70.3%)에 비해 11.8%p 낮게 나타남

<그림 15-2> 따로 살고 있는 이유



<표 15-2>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단위 : %)

		합계	직장 (직업)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가족간의 불화	건강상의 이유	자녀 교육 지원	군대	기타
	2020	100.0	60.1	28.2	2.3	2.6	1.7	3.3	1.8
	2022	100.0	62.3	26.1	2.5	2.2	1.7	3.1	2.1
지역별	시 지역	100.0	61.0	27.0	2.8	2.0	1.7	3.4	2.1
	군 지역	100.0	68.4	22.1	1.2	3.2	1.6	1.7	1.8
성별	남 자	100.0	58.5	29.9	2.0	1.8	2.3	3.4	2.1
	여 자	100.0	70.3	18.1	3.7	3.0	0.5	2.5	2.0
연령대별	15~19세	-	-	-	-	-	-	-	-
	20~29세	100.0	87.6	0.0	12.4	0.0	0.0	0.0	0.0
	30~39세	100.0	55.7	13.2	7.4	1.3	12.7	3.5	6.1
	40~49세	100.0	39.5	47.6	3.6	0.4	2.4	4.0	2.5
	50~59세	100.0	58.7	31.1	2.0	0.7	1.1	4.7	1.6
	60세 이상	100.0	79.6	9.1	2.3	5.3	1.4	0.3	2.1
	65세 이상	100.0	77.7	6.1	2.8	7.8	2.1	0.0	3.4

따로 살고 있는 기간

○ 분거가구 중 가구원이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은 “5년 이상”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1년~2년 미만” 21.4%, “6개월~1년 미만” 15.8%, “3년~5년 미만”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분거가족의 따로 살고 있는 기간에 대해 “5년 이상” 비율이 시 지역은 20.9%로 군 지역은 40.5%보다 19.6%p 낮게 나타났으며, 시 지역은 “1년~2년 미만”의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음
- 성별에 따른 분거가족의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의 비율이 남자 14.8%로 여자 17.7%보다 2.9%p 낮게 나타남

<그림 15-3> 따로 살고 있는 기간



<표 15-3> 따로 살고 있는 기간

(단위 : %)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2020		100.0	10.9	15.3	21.7	14.0	13.1	25.0
2022		100.0	12.1	15.8	21.4	13.1	13.2	24.5
지역별	시 지역	100.0	13.2	16.9	22.4	12.9	13.6	20.9
	군 지역	100.0	7.1	10.5	16.8	13.7	11.4	40.5
성별	남 자	100.0	11.8	14.8	21.7	13.6	13.5	24.7
	여 자	100.0	12.7	17.7	20.9	12.1	12.6	24.0
연령별	15~19세	-	-	-	-	-	-	-
	20~29세	100.0	22.0	44.2	0.0	12.4	21.4	0.0
	30~39세	100.0	28.9	23.6	26.1	12.7	4.1	4.5
	40~49세	100.0	20.7	23.1	23.9	12.6	10.7	9.0
	50~59세	100.0	11.5	16.5	24.9	14.8	14.1	18.2
	60세 이상	100.0	7.0	10.3	15.0	11.0	13.8	42.9
	65세 이상	100.0	6.7	8.4	15.6	8.7	8.6	51.9

16)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 귀하는 가족관계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가족관계 만족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74.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69.1%, “나의 부모와의 관계” 6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전반적인 가족관계는 58.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38.6%, “불만족” 2.9%로 나타남

<그림 16>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표 1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100.0	69.1	35.6	33.5	26.2	4.7	3.3	1.4
자녀와의 관계	100.0	74.5	37.6	36.9	23.1	2.5	1.9	0.6
나의 부모와의 관계	100.0	67.3	34.1	33.2	29.1	3.6	2.5	1.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00.0	56.0	25.6	30.4	37.9	6.1	4.0	2.1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54.3	22.8	31.5	40.4	5.2	4.1	1.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100.0	45.3	17.3	28.0	47.1	7.6	5.7	1.9
전반적인 가족관계	100.0	58.5	24.6	33.9	38.6	2.9	2.4	0.5

배우자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 69.1%, “보통” 26.2%, “불만족” 4.7%로 나타나, “만족”의 비율은 2020년(67.6%)에 비해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68.0%)이 군 지역(75.6%)에 비해 7.6%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73.5%)가 여자(64.5%)보다 9.0%p 높게 나타남

<그림 16-1> 배우자와의 관계



<표 16-1>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연도	2020	100.0	67.6	35.2	32.4	27.0	5.4	3.8	1.6
	2022	100.0	69.1	35.6	33.5	26.2	4.7	3.3	1.4
지역	시 지역	100.0	68.0	36.7	31.3	26.9	5.1	3.5	1.6
	군 지역	100.0	75.6	29.8	45.8	21.7	2.7	2.3	0.4
성별	남 자	100.0	73.5	40.7	32.8	23.4	3.1	2.3	0.8
	여 자	100.0	64.5	30.3	34.2	29.0	6.5	4.4	2.1
연령	15~19세	100.0	100.0	49.6	50.4	0.0	0.0	0.0	0.0
	20~29세	100.0	86.9	65.2	21.7	12.5	0.6	0.0	0.6
	30~39세	100.0	81.5	53.6	27.9	15.4	3.1	2.3	0.8
	40~49세	100.0	72.1	40.5	31.6	22.7	5.3	3.4	1.9
	50~59세	100.0	68.7	33.4	35.3	26.2	5.0	3.2	1.8
	60세 이상	100.0	61.0	24.5	36.5	33.9	5.0	4.0	1.0
	65세 이상	100.0	59.8	22.9	36.9	35.3	5.0	4.0	1.0

자녀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74.5%로 나타났으며, “보통” 23.1%, “불만족” 2.5%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73.1%)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73.3%)이 군 지역(81.0%)에 비해 7.7%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74.7%)가 여자(74.3%)에 비해 0.4%p 높게 나타남

〈그림 16-2〉 자녀와의 관계



〈표 16-2〉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0	100.0	73.1	37.8	35.3	23.8	3.1	2.4	0.7
	2022	100.0	74.5	37.6	36.9	23.1	2.5	1.9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73.3	38.5	34.8	24.1	2.6	2.0	0.6
	군 지역	100.0	81.0	33.2	47.8	17.7	1.3	1.1	0.2
성별	남 자	100.0	74.7	39.4	35.3	23.0	2.3	1.6	0.7
	여 자	100.0	74.3	36.0	38.3	23.2	2.5	2.1	0.4
연령별	15~19세	100.0	100.0	49.6	50.4	0.0	0.0	0.0	0.0
	20~29세	100.0	93.8	64.1	29.7	5.5	0.7	0.7	0.0
	30~39세	100.0	87.8	62.8	25.0	11.2	0.9	0.8	0.1
	40~49세	100.0	80.4	46.1	34.3	17.6	2.0	1.5	0.5
	50~59세	100.0	75.0	37.6	37.4	22.5	2.5	1.8	0.7
	60세 이상	100.0	67.3	26.2	41.1	29.6	3.0	2.4	0.6
	65세 이상	100.0	66.4	25.1	41.3	30.7	2.9	2.3	0.6

나의 부모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67.3%, “보통” 29.1%, “불만족” 3.6%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66.4%)에 비해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66.3%)이 군 지역(74.7%)에 비해 8.4%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67.2%)가 여자(67.3%)에 비해 0.1%p 낮게 나타남

<그림 16-3> 나의 부모와의 관계



<표 16-3> 나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연도별	2020	100.0	66.4	34.4	32.0	29.6	4.1	3.1	1.0
	2022	100.0	67.3	34.1	33.2	29.1	3.6	2.5	1.1
지역별	시 지역	100.0	66.3	34.1	32.2	29.9	3.7	2.6	1.1
	군 지역	100.0	74.7	33.6	41.1	22.5	2.7	1.7	1.0
성별	남 자	100.0	67.2	34.5	32.7	29.1	3.8	2.7	1.1
	여 자	100.0	67.3	33.6	33.7	29.2	3.5	2.4	1.1
연령별	15~19세	100.0	78.6	45.7	32.9	19.3	2.0	1.6	0.4
	20~29세	100.0	75.1	43.7	31.4	21.7	3.2	2.0	1.2
	30~39세	100.0	72.2	41.3	30.9	24.6	3.2	2.4	0.8
	40~49세	100.0	64.6	30.6	34.0	31.9	3.5	2.7	0.8
	50~59세	100.0	60.6	24.0	36.6	35.5	4.0	2.6	1.4
	60세 이상	100.0	49.1	17.2	31.9	44.3	6.5	3.9	2.6
	65세 이상	100.0	46.0	15.3	30.7	47.6	6.4	3.0	3.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6.0%, “보통” 37.9%, “불만족”은 6.1%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5.5%)에 비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54.9%)이 군 지역(64.8%)에 비해 9.9%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59.5%)가 여자(52.2%)에 비해 7.3%p 높게 나타남

<그림 16-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표 16-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연도	2020	100.0	55.5	26.5	29.0	37.5	7.0	4.9	2.1
	2022	100.0	56.0	25.6	30.4	37.9	6.1	4.0	2.1
지역	시 지역	100.0	54.9	26.1	28.8	38.7	6.4	4.3	2.1
	군 지역	100.0	64.8	21.6	43.2	31.6	3.7	1.9	1.8
성별	남 자	100.0	59.5	29.3	30.2	36.4	4.1	2.8	1.3
	여 자	100.0	52.2	21.6	30.6	39.6	8.3	5.4	2.9
연령	15~19세	100.0	100.0	49.6	50.4	0.0	0.0	0.0	0.0
	20~29세	100.0	71.7	43.8	27.9	24.6	3.8	2.1	1.7
	30~39세	100.0	67.1	37.7	29.4	28.9	4.0	2.9	1.1
	40~49세	100.0	56.4	25.4	31.0	37.4	6.2	4.2	2.0
	50~59세	100.0	50.7	19.1	31.6	42.5	6.8	4.7	2.1
	60세 이상	100.0	42.2	13.9	28.3	49.3	8.5	4.6	3.9
	65세 이상	100.0	38.4	11.7	26.7	53.4	8.2	3.8	4.4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4.3%, “보통” 40.4%, “불만족” 5.2%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2.9%)에 비해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54.1%)이 군 지역(55.7%)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53.9%)가 여자(54.9%)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남

<그림 16-5>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16-5>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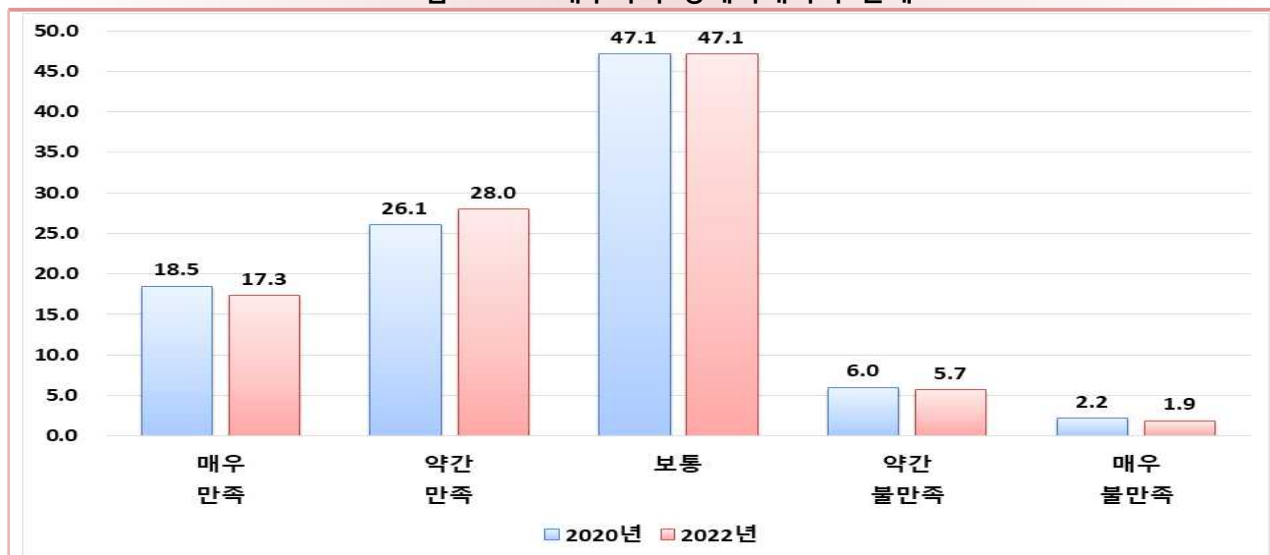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0	100.0	52.9	23.3	29.6	41.4	5.6	4.2	1.4
	2022	100.0	54.3	22.8	31.5	40.4	5.2	4.1	1.1
지역별	시 지역	100.0	54.1	23.7	30.4	40.3	5.5	4.3	1.2
	군 지역	100.0	55.7	17.6	38.1	40.9	3.4	2.8	0.6
성별	남 자	100.0	53.9	23.5	30.4	40.3	5.8	4.4	1.4
	여 자	100.0	54.9	22.2	32.7	40.5	4.8	3.9	0.9
연령별	15~19세	100.0	72.0	38.6	33.4	25.6	2.4	2.0	0.4
	20~29세	100.0	70.9	39.3	31.6	25.7	3.4	2.6	0.8
	30~39세	100.0	68.0	37.6	30.4	28.2	3.9	3.0	0.9
	40~49세	100.0	58.3	24.8	33.5	36.3	5.4	4.1	1.3
	50~59세	100.0	48.6	17.4	31.2	45.7	5.7	4.4	1.3
	60세 이상	100.0	41.3	10.6	30.7	52.2	6.5	5.3	1.2
	65세 이상	100.0	39.9	10.2	29.7	53.6	6.5	5.2	1.3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 경남도민 중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45.3%로 나타났고, “보통” 47.1%, “불만족”은 7.6%로 나타남. “만족”은 2020년(44.6%)에 비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44.8%)이 군 지역(48.0%)에 비해 3.2%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48.9%)가 여자(41.7%)에 비해 7.2%p 높게 나타남

<그림 16-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표 16-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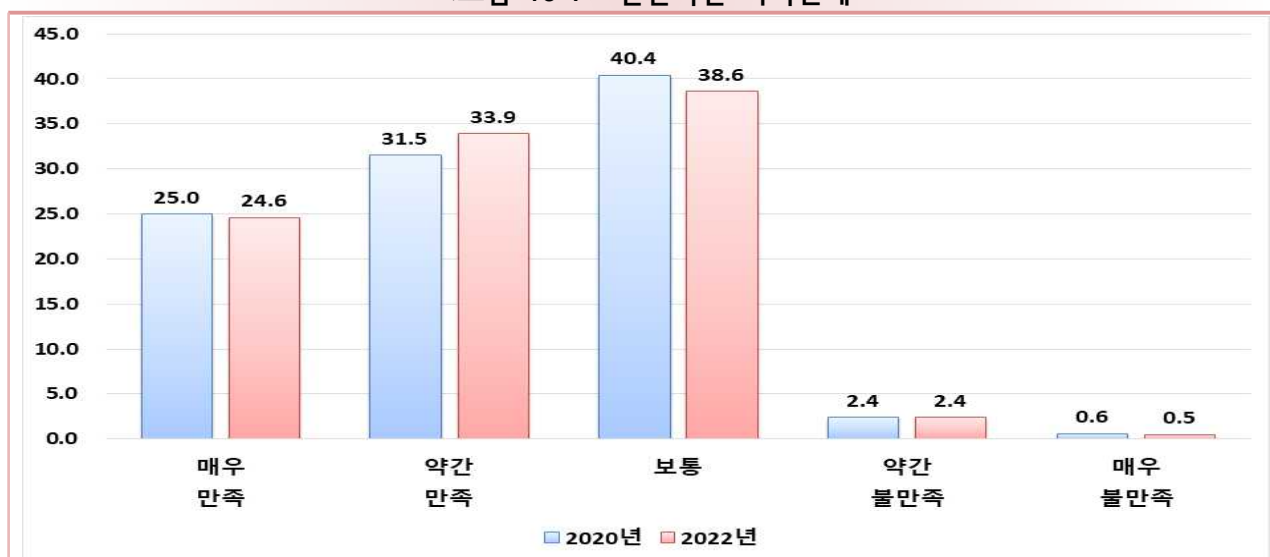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20	100.0	44.6	18.5	26.1	47.1	8.2	6.0	2.2
	2022	100.0	45.3	17.3	28.0	47.1	7.6	5.7	1.9
지역별	시 지역	100.0	44.8	18.3	26.5	47.1	8.1	6.0	2.1
	군 지역	100.0	48.0	11.9	36.1	47.2	4.8	4.0	0.8
성별	남 자	100.0	48.9	20.1	28.8	45.5	5.6	4.1	1.5
	여 자	100.0	41.7	14.5	27.2	48.6	9.6	7.3	2.3
연령별	15~19세	100.0	100.0	49.6	50.4	0.0	0.0	0.0	0.0
	20~29세	100.0	66.0	40.4	25.6	33.6	0.4	0.4	0.0
	30~39세	100.0	62.2	35.0	27.2	33.3	4.5	2.9	1.6
	40~49세	100.0	50.2	21.9	28.3	42.5	7.3	5.1	2.2
	50~59세	100.0	44.0	14.8	29.2	48.2	7.8	5.7	2.1
	60세 이상	100.0	35.9	8.5	27.4	54.8	9.3	7.4	1.9
	65세 이상	100.0	34.3	8.1	26.2	56.5	9.2	7.4	1.8

전반적인 가족관계

○ 경남도민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은 58.5%, “보통” 38.6%, “불만족” 2.9%로 나타남. “만족”의 비율은 2020년(56.5%)에 비해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시 지역(58.1%)로 군 지역(60.8%)보다 2.7%p 낮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의 비율은 남자(59.9%)가 여자(57.0%)에 비해 2.9%p 높게 나타남

<그림 16-7> 전반적인 가족관계



<표 16-7>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합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연도별	2020	100.0	56.5	25.0	31.5	40.4	3.0	2.4	0.6
	2022	100.0	58.5	24.6	33.9	38.6	2.9	2.4	0.5
지역별	시 지역	100.0	58.1	25.4	32.7	38.9	3.1	2.5	0.6
	군 지역	100.0	60.8	19.9	40.9	37.3	2.0	1.7	0.3
성별	남 자	100.0	59.9	26.5	33.4	37.1	3.0	2.3	0.7
	여 자	100.0	57.0	22.6	34.4	40.2	2.9	2.5	0.4
연령별	15~19세	100.0	74.3	40.6	33.7	23.7	2.0	1.1	0.9
	20~29세	100.0	72.6	39.4	33.2	24.8	2.6	2.2	0.4
	30~39세	100.0	71.3	38.6	32.7	26.8	1.9	1.5	0.4
	40~49세	100.0	61.8	26.0	35.8	35.3	2.8	2.4	0.4
	50~59세	100.0	52.8	18.7	34.1	44.3	2.9	2.2	0.7
	60세 이상	100.0	46.7	13.2	33.5	49.7	3.7	3.1	0.6
	65세 이상	100.0	45.4	12.9	32.5	50.8	3.8	3.2	0.6

17) 월 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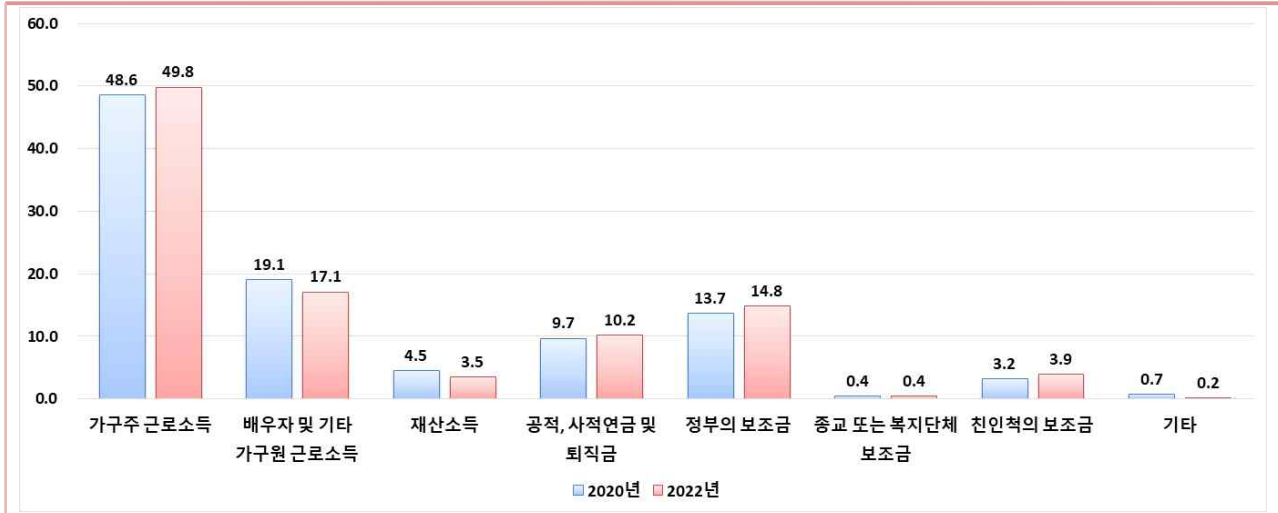
가구의 주된 소득원

문항

귀댁의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주된 가구 소득원은 “가구주 근로소득” 49.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소득” 17.1%, “정부의 보조금”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7> 월평균 가구소득



<표 17> 가구의 주된 소득원

(단위 : %)

구분	합계	가구주 근로 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 근로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의 보조금	종교 또는 복지 단체 보조금	친인척 의 보조금	기타
2020	100.0	48.6	19.1	4.5	9.7	13.7	0.4	3.2	0.7
2022	100.0	49.8	17.1	3.5	10.2	14.8	0.4	3.9	0.2
지역별									
시 지역	100.0	51.9	17.9	3.9	9.8	12.2	0.5	3.7	0.3
군 지역	100.0	39.5	13.3	1.8	12.1	27.9	0.2	5.2	0.1
성별									
남 자	100.0	55.2	18.8	3.7	10.4	9.3	0.3	2.1	0.2
여 자	100.0	38.7	13.7	3.2	9.7	26.0	0.7	7.6	0.4
연령별									
15~19세	100.0	58.5	0.0	0.0	0.0	0.0	0.0	33.1	8.4
20~29세	100.0	69.3	9.3	1.4	2.2	0.9	0.0	17.0	0.0
30~39세	100.0	77.3	20.6	0.4	0.2	1.2	0.2	0.2	0.0
40~49세	100.0	70.5	25.4	1.0	0.6	1.6	0.3	0.5	0.1
50~59세	100.0	65.7	25.4	2.5	2.0	3.2	0.3	1.0	0.0
60세 이상	100.0	31.7	11.4	5.3	18.4	26.4	0.6	5.8	0.4
65세 이상	100.0	24.9	8.7	5.8	20.2	32.1	0.6	7.2	0.4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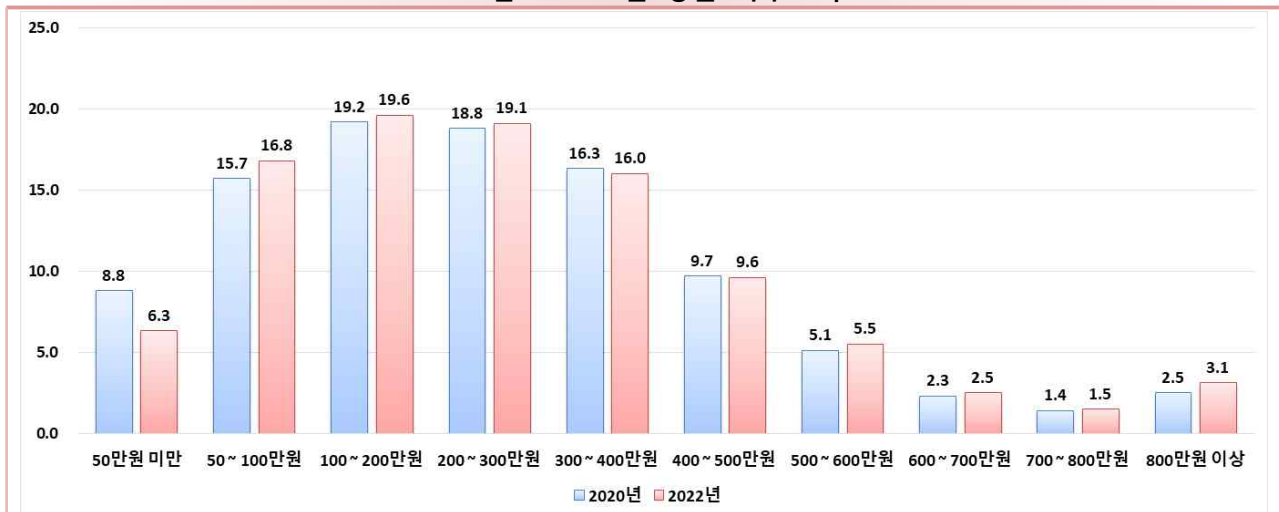
귀댁의 지난 1년 동안(2020. 8. 20.~2022. 8. 19.)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 19.1%, “50~100만원 미만” 16.8%, “300~400만원 미만”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월 평균 가구 총소득에 대해 시 지역은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군 지역은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월 평균 가구 총소득에 대해 남자는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는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7-1> 월 평균 가구소득



<표 17-1> 월 평균 가구소득

(단위 : %)

구분		합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700만원	700~800만원	800만원 이상
지역별	2020	100.0	8.8	15.7	19.2	18.8	16.3	9.7	5.1	2.3	1.4	2.5
	2022	100.0	6.3	16.8	19.6	19.1	16.0	9.6	5.5	2.5	1.5	3.1
	시 지역	100.0	4.4	15.3	19.2	19.7	17.1	10.4	6.0	2.7	1.7	3.4
성별	군 지역	100.0	16.5	25.2	21.8	15.6	10.1	5.1	2.6	1.3	0.7	1.1
	남 자	100.0	2.7	11.1	17.4	21.8	19.3	12.0	6.8	3.2	2.0	3.7
연령별	여 자	100.0	13.5	28.6	24.3	13.5	9.2	4.7	2.8	1.1	0.6	1.8
	15~19세	100.0	13.2	48.9	7.3	30.6	0.0	0.0	0.0	0.0	0.0	0.0
	20~29세	100.0	5.8	17.4	23.7	33.3	9.9	6.1	2.4	0.5	0.4	0.5
	30~39세	100.0	0.6	2.9	8.4	25.5	27.0	16.5	8.8	4.4	1.7	4.2
	40~49세	100.0	0.9	3.8	8.4	17.4	27.4	19.0	9.9	4.7	2.6	5.8
	50~59세	100.0	1.6	6.1	15.1	21.8	20.8	12.5	9.3	4.2	3.4	5.1
	60세 이상	100.0	11.2	28.3	27.3	16.2	8.4	4.1	2.0	0.8	0.5	1.3
	65세 이상	100.0	13.8	33.2	28.9	14.1	5.2	2.4	1.0	0.5	0.3	0.7

3. 사회 부문

[조사항목별 요약]

18) 자원봉사활동 참여

- 경남도민의 1년 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참여 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도민의 1년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 횟수는 5.1회로 나타났고, 1회 평균 활동 시간은 평균 3.3시간으로 나타남

19) 기부 참여

- 경남도민의 기부활동 참여율은 17.6%, 평균 기부 횟수는 8.5회로 나타남

20) 사회적 지원

- 경남도민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이 77.9%이며, 평균 인원은 3.8명으로 나타남

2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경남도민 중 49.6%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36.5%였고, 다음으로 “밴드” 23.2%, “카카오톡” 20.9%의 순으로 나타남
- 1일 SNS 접속 횟수는 “1~3회” 47.4%, “4~6회” 27.6%, “10회 이상” 14.7%의 순임

22) 관공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축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관공서 SNS 이용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문화 행사 등 여가 정보제공” 30.6%, “다양한 참여 이벤트” 24.3%, “쌍방향 소통”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3) 사회단체·모임 가입·참여

- 경남도민 중 31.4%는 사회 단체·모임에 가입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모임은 “동창회, 향우회, 군대 모임” 53.2%이었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산악회, 취미생활 동호회” 35.8%로 나타남
- 1년간 참여 횟수는 36.4%가 “1~2회”로 나타났고, “7회 이상” 27.3%, “3~4회” 23.7%의 순으로 나타남

24) 스마트폰 이용

- 경남도민 중 90.7%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용 용도는 “연락/문자”가 30.3%, “영화, 음악, TV, 동영상” 22.8%, “뉴스 검색” 21.2% 등의 순임
-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1~3시간 미만” 45.0%, “1시간 미만”이 29.9%, “3~5시간 미만” 17.0%의 순으로 나타남

25) 도정 참여

- 경남도민 중 2.2%만이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횟수는 “1~2회”가 80.4%, “3~4회” 16.1%로 나타남
- 도정 참여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51.2%였으며,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22.1%, “자유게시판” 17.3%로 나타남
- 도정 참여 분야는 “예산편성과정”이 27.3%였고,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 20.0%, “도민배심원제” 19.4%, “정책 모니터링” 17.1%의 순으로 나타남

26)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

- 경남도민 중 4.2%는 사회문제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횟수는 “1~2회” 54.3%, “3~4회” 21.7%, “7회 이상” 16.7%로 나타남
- 사회문제 참여 분야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모임”이 47.1%, “행정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임” 21.4%, “노조 등 직장 내 모임”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27)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 경남도민 중 6.2%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사회적경제 활동은 “조합원 또는 회원가입”이 39.4%, “제품 또는 서비스 단순구매” 30.4%, “기부 또는 봉사활동 참여” 28.0%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38.4%, “확대되어야 한다” 52.3% 등으로 나타남

28) 삶에 대한 만족감

- 경남도민이 응답한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비율이 아닌 점수로 표와 그림을 나타냄
- 경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중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1점, “어제의 행복”은 6.3점, “어제의 걱정”은 4.4점으로 나타남

29) 일반인에 대한 신뢰

- 경남도민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5.4%로 나타났으며, 동향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4%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았음

30) 공동체 의식

- 경남도민의 공동체 의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9.9%, “그런 편이다”가 24.7%로 나타남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8.9%, “그런 편이다”가 19.8%로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을 준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4.6%, “그런 편이다”가 19.8%로 나타남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55.6%, “그런 편이다”가 15.3%로 나타남

31) 사회적 계층의식

- 경남도민의 사회적 계층의식을 보면, 56.5%가 “중하”에 속한다고 인식하였으며, 21.5%는 “중상”에 속한다고 인식함. “하”는 21.2%, “상”은 0.8%로 나타남

32) 소득 불평등 정도

- 경남도민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생각은 “약간 불평등” 31.4%, “매우 불평등” 7.3%로 38.7%는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고, “조금 평등” 5.0%, “매우 평등” 0.3%로 평등하다는 인식은 5.3%로 나타남

3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 경남도민은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 23.1%가 “전체 도민대상 보편적 복지”를 선택, 다음으로는 “청년정책” 18.8%, “출산 및 보육지원” 17.0%, “아동, 청소년 복지” 14.0%의 순으로 나타남

34)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경남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33.7%,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32.7%로 나타남

- 임신·출산·육아 분야 복지에 대한 “만족”이 27.7%, “불만족”은 18.9%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만족”이 26.8%, “불만족”은 18.2%로 나타남
-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이 21.0%, “불만족”은 26.4%로 나타남
-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9.2%, “불만족”은 13.9%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에 대한 “만족”이 33.7%, “불만족”은 18.2%로 나타남
-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만족”이 32.3%, “불만족”은 15.7%로 나타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만족”이 32.7%, “불만족”은 18.4%로 나타남
- 도민 대상 보편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20.3%, “불만족”은 21.0%임

35) 양성평등 수준

- 경남도민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평균 4.6점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36) 양성평등 우선 지원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은 “여성일자리 정책” 39.6%, “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 참여 확대” 16.9%, “양성평등 법·제도 실효성 강화”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37) 에너지 절약 실천

- 경남도민 중 “에너지 절약을 알고 있다”는 도민은 51.6%로 나타남
- 에너지 절약을 “아주 잘 실천한다”는 도민은 13.0%, “잘 실천한다”는 45.1%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도민은 58.1%, “(전혀) 실천하지 않음”은 4.1%로 나타남

38)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은 “개개인의 청렴의식 부족” 29.6%, “학연, 지연, 혈연 등 온정주의” 29.0%, “부패행위의 관행화”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39)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은 “공무원 징계 처벌 강화” 48.0%, “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화” 28.0%, “공익신고 시스템 활용 홍보 강화”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40)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은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대책반 운영” 36.3%, “공직감찰 강화 및 취약분야 관리강화” 29.4%, “청렴도 관련 조례 제정”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41) 공공갈등 심각 정도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심각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10.6%, “약간 심각하다” 38.6%로 49.2%는 공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거의 심각하지 않다” 3.9%, “전혀 심각하지 않다” 0.2%로 4.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2) 공공갈등 발생 원인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발생 원인은 “상호 이해부족” 22.9%, “빈부격차 심화” 20.4%, “각자 이익추구” 20.3%, “편 가르기 정치문화”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43) 공공갈등 분야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분야는 “지방행정” 25.6%, “지역개발” 21.6%, “부동산 정책” 15.0%, “비선호시설”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44)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는 “대화와 토론, 협상 등의 소통문화 정착” 30.1%,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24.6%,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18) 자원봉사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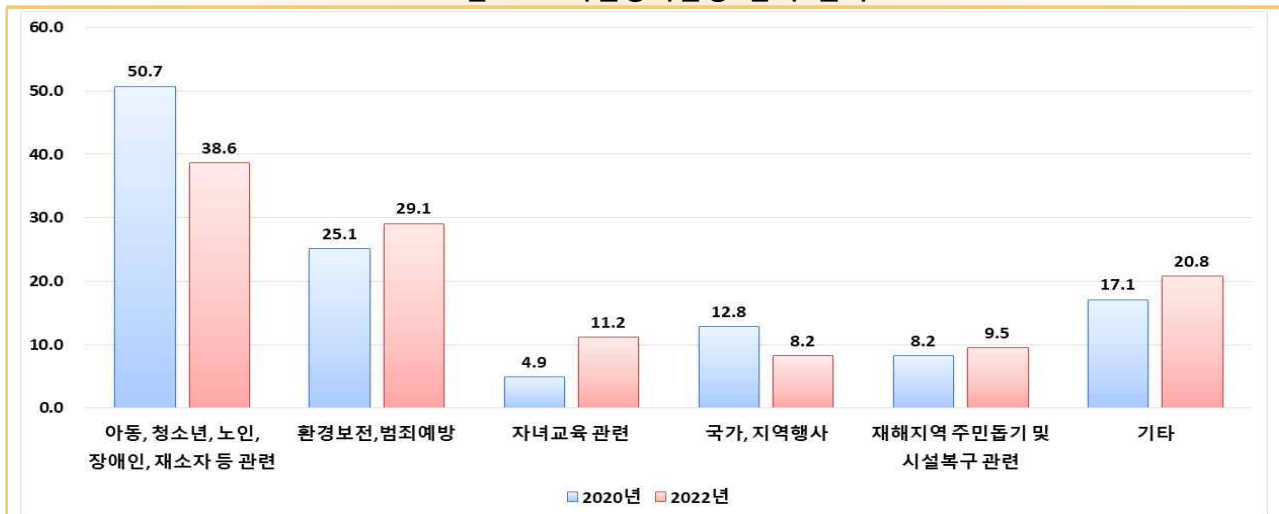
문항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면,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활동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횟수

- 경남도민의 1년 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은 5.8%로 나타났으며, 참여 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남도민의 1년간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 횟수는 5.1회로 나타났고, 1회 평균 활동시간은 평균 3.3시간으로 나타남

<그림 18>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



<표 18-1>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

구분		자원봉사 참여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지역 행사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2020		8.9	50.7	25.1	4.9	12.8	8.2	17.1
2022		5.8	38.6	29.1	11.2	8.2	9.5	20.8
지역	시 지역	5.6	40.0	25.5	12.4	8.0	10.0	22.2
	군 지역	6.5	31.5	47.0	5.3	9.4	7.1	14.1
성별	남 자	5.0	37.0	35.8	4.9	10.6	11.8	22.1
	여 자	6.5	39.8	23.9	16.2	6.4	7.8	19.9
연령별	15~19세	10.9	56.2	17.6	0.0	14.9	5.0	28.2
	20~29세	4.6	44.1	11.7	0.6	11.5	9.7	30.1
	30~39세	3.6	24.6	22.3	45.1	3.9	7.3	11.6
	40~49세	6.4	36.8	24.3	33.4	4.5	6.1	12.6
	50~59세	7.1	39.8	32.2	2.2	8.6	15.3	23.2
	60세 이상	5.0	34.3	42.3	0.9	8.3	9.2	21.6
	65세 이상	3.5	33.5	47.0	0.1	8.7	6.5	16.4

〈표 18-2〉 자원봉사활동 평균 참여 횟수

(단위 : 회)

구분		참여자 연간 평균 참여 횟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지역 행사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2020		5.6	5.3	4.8	5.5	3.3	3.0	4.6
2022		5.1	4.9	4.2	3.3	3.5	3.4	4.8
지역	시 지역	5.2	5.0	3.9	3.2	3.6	3.4	5.0
	군 지역	4.8	4.3	4.8	3.6	3.2	3.6	3.6
성별	남 자	5.2	4.1	4.6	2.8	3.8	3.3	4.8
	여 자	5.1	5.5	3.6	3.4	3.2	3.6	4.8
연령	15~19세	3.6	2.7	2.5	-	2.3	2.0	4.3
	20~29세	4.1	4.1	1.2	2.0	2.5	2.2	5.4
	30~39세	3.7	2.8	2.6	3.8	3.0	3.0	3.0
	40~49세	4.1	4.0	4.2	2.7	2.2	2.4	3.6
	50~59세	6.1	5.0	5.1	7.4	3.4	4.9	5.3
	60세 이상	6.3	7.8	4.3	1.3	5.6	2.7	5.3
	65세 이상	5.9	6.6	4.0	1.0	7.5	2.8	6.0

〈표 18-3〉 자원봉사활동 1회 평균 활동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참여자 1회 평균 시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지역 행사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기타
2020		4.9	3.1	2.6	1.9	3.8	4.2	2.9
2022		3.3	3.0	2.6	1.6	3.5	3.1	2.8
지역	시 지역	3.3	3.0	2.7	1.6	3.5	3.1	2.8
	군 지역	3.1	2.8	2.4	1.8	3.6	3.4	2.6
성별	남 자	3.6	3.1	2.7	1.4	3.9	3.2	2.9
	여 자	3.0	2.9	2.5	1.7	3.1	3.0	2.6
연령	15~19세	3.4	3.0	2.1	-	3.6	2.0	2.4
	20~29세	3.9	3.4	3.4	1.0	4.2	4.1	3.9
	30~39세	2.8	3.3	2.4	1.5	2.8	3.8	3.7
	40~49세	2.6	2.4	2.5	1.7	3.3	3.0	2.0
	50~59세	3.4	3.0	2.7	1.4	3.1	3.2	2.6
	60세 이상	3.4	3.1	2.6	2.8	3.8	2.8	2.7
	65세 이상	3.2	3.2	2.7	1.0	3.4	3.1	2.6

19) 기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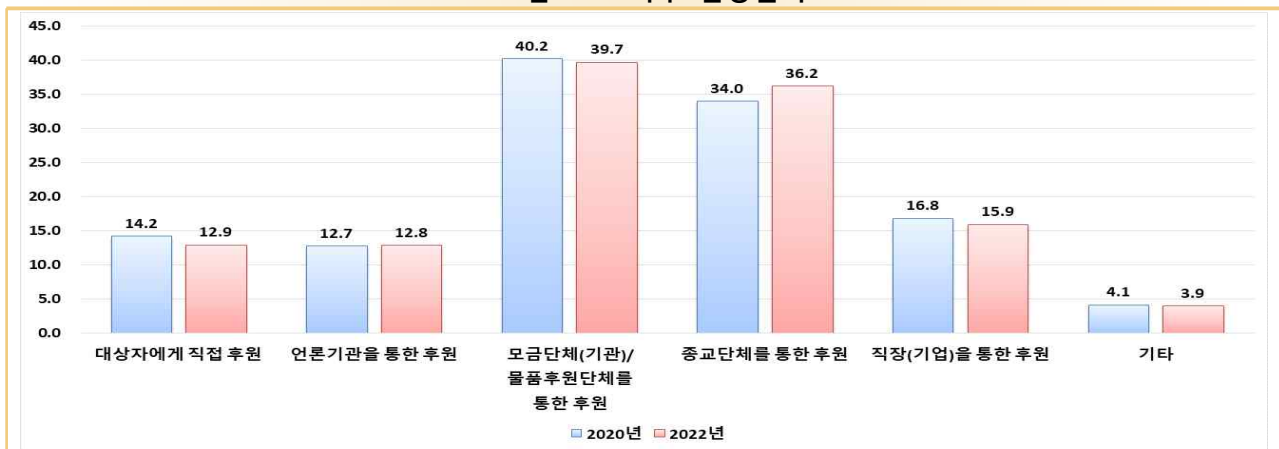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20. 8. 20.~2022. 8. 19.)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기부 활동분야

○ 경남도민의 기부활동 참여율은 17.6%, 평균 기부 횟수는 8.5회로 나타남

- 기부활동 참여율은 시 지역이 18.7%로 군 지역 11.4%보다 7.3%p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참여율이 높은 기부활동은 “모금단체(기관), 물품후원을 통한 기부”가 39.7%이며, 다음으로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36.2%, “직장(기업)을 통한 기부”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부횟수는 시 지역 평균 8.6회, 군 지역 8.1회로 시 지역 참여자의 평균 기부횟수가 0.5회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횟수가 많은 기부 유형은 “모금단체(기관), 물품후원을 통한 기부”로 평균 7.9회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7.6회,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 6.5회 등의 순임

<그림 19> 기부 활동분야



<표 19-1> 기부활동 참여율

(단위 : %)

구분		기부활동 참여율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	모금단체 (기관), 물품후원을 통한 기부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직장 (기업)을 통한 기부	기타
지역	2020	20.7	14.2	12.7	40.2	34.0	16.8	4.1
	2022	17.6	12.9	12.8	39.7	36.2	15.9	3.9
	시 지역	18.7	13.1	13.0	39.3	36.0	15.9	3.9
성별	남 자	17.8	13.3	11.6	37.8	35.3	20.6	3.0
	여 자	17.4	12.5	13.9	41.5	37.1	11.0	4.8
연령대	15~19세	6.4	8.2	16.7	51.3	12.8	1.1	12.8
	20~29세	12.9	15.0	12.5	46.9	15.0	17.2	7.1
	30~39세	20.1	10.3	11.2	44.9	27.8	20.7	3.4
	40~49세	25.5	12.4	11.7	47.8	31.9	16.7	3.7
	50~59세	23.4	14.6	14.2	37.1	41.5	18.0	2.6
	60세 이상	12.1	12.7	13.0	25.3	51.6	9.7	3.9
	65세 이상	9.1	10.6	13.6	21.3	57.2	7.5	3.9

〈표 19-2〉 기부 활동 평균 참여 횟수

(단위 : 회)

구분		평균 기부 횟수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	모금단체 (기관), 물품후원을 통한 기부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직장 (기업)을 통한 기부	기타
2020		8.4	6.3	5.4	8.2	7.1	5.1	5.3
2022		8.5	6.5	5.7	7.9	7.6	5.4	5.6
지 역	시 지역	8.6	6.5	5.7	7.8	7.8	5.5	5.6
	군 지역	8.1	6.5	6.2	8.3	5.8	4.9	5.4
성 별	남 자	8.4	6.4	6.1	8.0	7.0	5.6	5.0
	여 자	8.7	6.6	5.3	7.7	8.2	5.2	6.0
연 령 별	15~19세	4.6	4.2	5.0	3.3	9.9	2.0	3.9
	20~29세	7.2	5.1	2.6	7.4	10.1	3.7	6.8
	30~39세	8.0	6.3	5.5	7.9	7.0	4.9	6.5
	40~49세	9.1	7.2	5.8	8.6	6.7	6.3	5.4
	50~59세	9.5	6.7	6.0	8.3	7.9	6.2	5.4
	60세 이상	7.9	6.2	6.6	6.4	7.8	4.2	5.0
	65세 이상	7.5	5.5	6.0	5.7	7.9	3.3	3.6

20) 사회적 지원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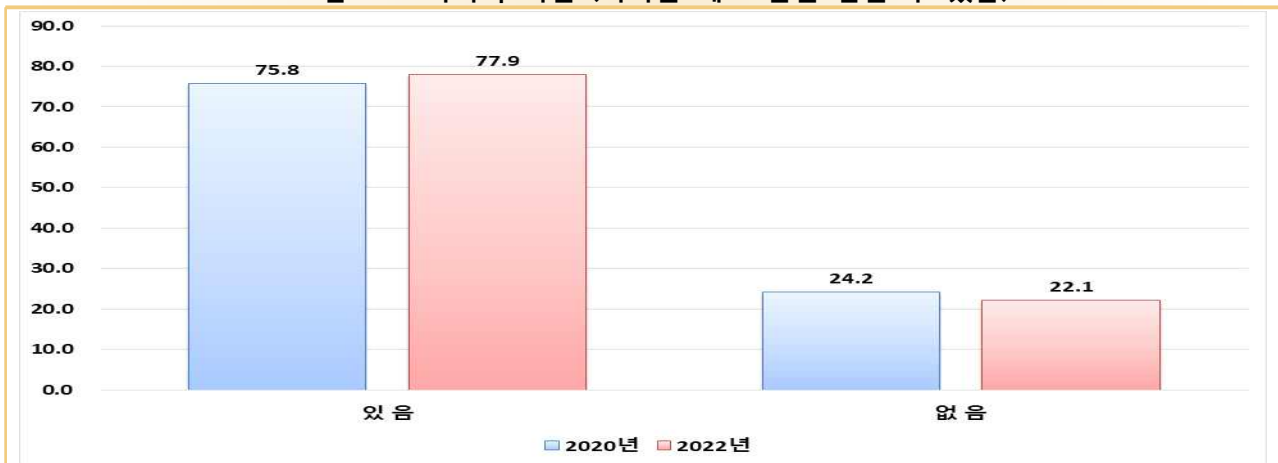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경남도민의 사회적 관계 소통 정도 중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9%이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나타남.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평균 인원은 3.8명 정도로 나타남

<그림 20> 사회적 지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표 20> 사회적 지원

(단위 : %)

구분		합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있 음	평균 인원 (명)	없 음
2020		100.0	75.8	4.0	24.2
2022		100.0	77.9	3.8	22.1
지 역 별	시 지역	100.0	77.1	3.8	22.9
	군 지역	100.0	82.4	3.4	17.6
성 별	남 자	100.0	76.3	3.9	23.7
	여 자	100.0	79.5	3.7	20.5
연 령 별	15~19세	100.0	86.1	4.9	13.9
	20~29세	100.0	83.4	4.7	16.6
	30~39세	100.0	82.5	3.9	17.5
	40~49세	100.0	79.9	4.0	20.1
	50~59세	100.0	74.9	3.9	25.1
	60세 이상	100.0	73.1	2.9	26.9
	65세 이상	100.0	73.3	2.7	26.7

2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항

귀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합니까? 한다면 주로 이용하는 SNS는?
1일 SNS 접속 횟수는?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경남도민 중 49.6%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36.5%였고, 다음으로 “밴드” 23.2%, “카카오톡” 20.9%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은 10대에서 30대의 “인스타그램”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카카오톡”, “밴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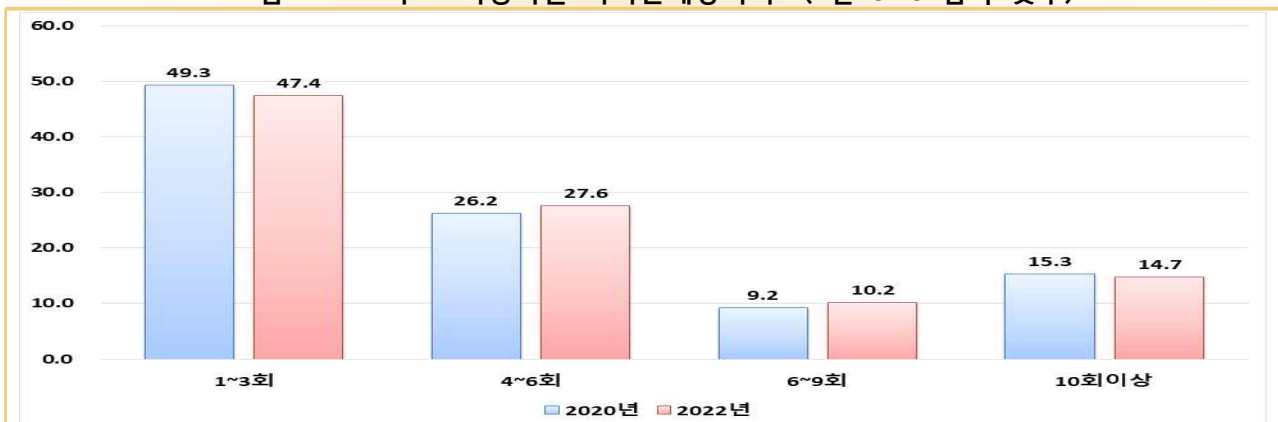
<그림 21-1>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용하는 SNS)



1일 SNS 접속 횟수

○ 경남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항에서 1일 SNS 접속 횟수는 “1~3회” 47.4%, “4~6회” 27.6%, “10회 이상” 14.7%의 순임

<그림 21-2>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1일 SNS 접속 횟수)



〈표 21〉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1일 접속 횟수

(단위 : %)

구분		이용 한다	이용하는 SNS						1일 SNS 접속 횟수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밴드	기타	1~3회	4~6회	6~9회	10회 이상
2020		49.3	22.7	26.9	21.2	2.1	25.1	1.8	49.3	26.2	9.2	15.3
2022		49.6	16.0	36.5	20.9	1.3	23.2	2.1	47.4	27.6	10.2	14.7
지역별	시 지역	50.5	15.9	38.1	21.4	1.4	22.4	0.9	47.2	27.1	10.2	15.5
	군 지역	44.5	16.9	26.0	17.2	0.7	29.0	10.3	49.1	31.0	10.1	9.8
성별	남 자	50.4	19.3	32.6	20.5	1.2	24.3	2.1	48.5	27.4	10.0	14.1
	여 자	48.8	12.6	40.5	21.2	1.5	22.1	2.0	46.3	27.8	10.5	15.4
연령별	15~19세	83.2	21.0	61.3	8.9	3.7	4.0	1.1	31.2	28.0	16.6	24.2
	20~29세	79.0	21.6	63.4	8.4	2.0	3.6	0.9	29.8	33.6	13.7	22.9
	30~39세	65.3	19.1	59.6	9.8	0.5	9.8	1.1	44.5	28.7	10.3	16.4
	40~49세	58.2	17.0	29.2	22.9	0.9	28.2	1.7	55.8	26.7	8.2	9.3
	50~59세	50.2	10.1	8.9	32.0	1.0	44.6	3.5	56.2	25.5	8.1	10.1
	60세 이상	20.6	7.6	4.0	41.5	1.0	41.7	4.1	61.1	21.7	7.2	10.1
	65세 이상	13.8	7.2	4.1	42.7	1.4	40.0	4.6	61.8	22.1	7.5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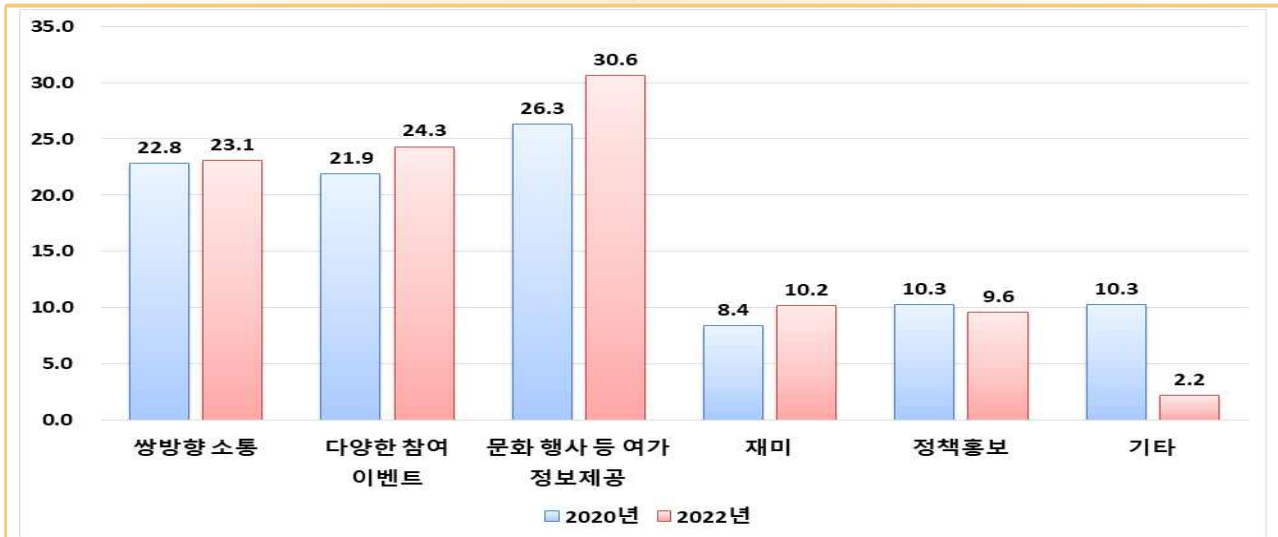
22) 관공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축

문항

귀하는 관공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시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관공서 SNS 이용시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문화 행사 등 여가 정보제공” 30.6%, “다양한 참여 이벤트” 24.3%, “쌍방향 소통”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완사항



<표 22> 관공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완사항

(단위 : %)

구분		합계	쌍방향 소통	다양한 참여 이벤트	문화 행사 등 여가 정보제공	재미	정책홍보	기타
	2020	100.0	22.8	21.9	26.3	8.4	10.3	10.3
	2022	100.0	23.1	24.3	30.6	10.2	9.6	2.2
지역별	시 지역	100.0	22.6	24.3	31.3	10.4	9.4	2.0
	군 지역	100.0	26.4	24.7	26.3	9.2	10.3	3.2
성별	남 자	100.0	24.4	24.1	28.0	10.5	11.0	1.9
	여 자	100.0	21.8	24.5	33.2	9.9	8.2	2.4
연령별	15~19세	100.0	20.7	28.7	25.7	19.9	4.2	0.7
	20~29세	100.0	18.0	27.2	31.0	14.6	8.3	0.9
	30~39세	100.0	20.8	26.7	33.8	8.5	9.3	0.9
	40~49세	100.0	24.2	23.5	34.1	7.9	9.6	0.8
	50~59세	100.0	24.1	23.8	33.8	7.1	9.9	1.2
	60세 이상	100.0	25.3	22.3	25.9	10.8	10.8	4.8
	65세 이상	100.0	25.7	21.7	24.4	11.5	10.7	6.0

23) 사회단체·모임 가입·참여

단체모임에 가입 또는 참여

문항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단체에 가입되었거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입되었거나 모임에 참여한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경남도민 중 31.4%는 사회단체·모임에 가입 또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모임은 “동창회, 향우회, 군대 모임” 53.2%이었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산악회, 취미생활 동호회” 35.8%로 나타남

<그림 23-1> 가입 또는 참여 단체모임



<표 23-1> 단체모임에 가입 또는 참여

(단위 : %)

구분		있다	가입 또는 참여 모임											
			스포츠, 산악회, 취미 생활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군대 모임	직능 단체, 상인회, 협회 등	종교 단체 모임	정당	노동 조합	행정 기관 관련 단체	민간 주민 자치 단체	환경, 인권, 소비자 단체	학부모 단체	봉사 단체	기타
2020		31.5	25.8	40.8	3.9	8.8	1.3	2.6	4.1	1.5	1.0	3.4	6.2	0.7
2022		31.4	35.8	53.2	5.4	11.3	1.7	2.8	4.4	2.0	0.7	3.1	6.5	0.9
지역별	시 지역	31.1	36.8	51.1	4.9	11.8	1.7	3.0	4.3	2.0	0.7	3.4	6.8	1.0
	군 지역	33.2	30.3	64.8	8.2	8.8	1.4	1.9	4.9	2.3	0.5	1.9	5.3	0.2
성별	남 자	36.2	41.0	57.5	5.8	7.8	2.0	3.8	3.9	1.4	0.6	0.9	4.6	0.5
	여 자	26.7	28.7	47.4	5.0	16.2	1.3	1.5	5.1	2.9	0.8	6.3	9.2	1.4
연령별	15~19세	6.8	41.4	23.0	1.1	6.5	0.0	0.0	0.0	0.0	1.1	0.0	27.0	2.7
	20~29세	18.1	40.7	46.2	2.9	11.4	0.6	2.4	0.6	0.5	0.0	1.1	4.7	2.7
	30~39세	25.3	47.7	38.2	4.3	8.4	2.5	5.1	0.5	1.5	0.6	6.1	2.5	2.4
	40~49세	37.7	44.5	42.7	6.4	10.2	2.7	5.0	1.8	1.1	1.3	6.6	6.0	0.3
	50~59세	46.7	36.5	58.0	6.2	9.6	1.3	2.5	5.5	2.8	0.9	2.3	7.3	0.7
	60세 이상	29.9	23.1	64.2	5.1	15.1	1.4	1.0	7.7	2.5	0.2	1.0	7.3	0.5
	65세 이상	24.5	20.2	64.5	3.9	15.8	1.3	0.8	7.4	2.7	0.1	0.8	5.8	0.6

단체모임 1년간 참여 횟수

문항

지난 1년간 참여 횟수는 몇 회입니까?

○ 지난 1년간 참여 횟수는 36.4%가 “1~2회”로 나타났고, “7회 이상” 27.3%, “3~4회” 23.7%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7회 이상” 참여자 비율이 시 지역은 28.4%, 군 지역은 21.4%로 시 지역이 7.0%p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7회 이상” 참여자 비율이 남자 28.6%, 여자 25.6%로 남자의 단체모임 참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2> 단체모임 1년간 참여 횟수



<표 23-2> 단체모임 1년간 참여 횟수

(단위 : %)

구분		합계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2020	100.0	21.1	20.8	18.2	39.9
	2022	100.0	36.4	23.7	12.6	27.3
지역별	시 지역	100.0	34.4	23.9	13.3	28.4
	군 지역	100.0	47.7	22.4	8.5	21.4
성별	남 자	100.0	35.8	23.1	12.5	28.6
	여 자	100.0	37.3	24.5	12.6	25.6
연령별	15~19세	100.0	23.3	38.5	15.9	22.3
	20~29세	100.0	35.1	25.9	6.7	32.3
	30~39세	100.0	34.3	24.5	12.0	29.2
	40~49세	100.0	35.4	22.6	12.2	29.9
	50~59세	100.0	36.1	23.5	13.5	27.0
	60세 이상	100.0	39.1	23.3	13.4	24.2
	65세 이상	100.0	40.8	23.2	12.2	23.8

24) 스마트폰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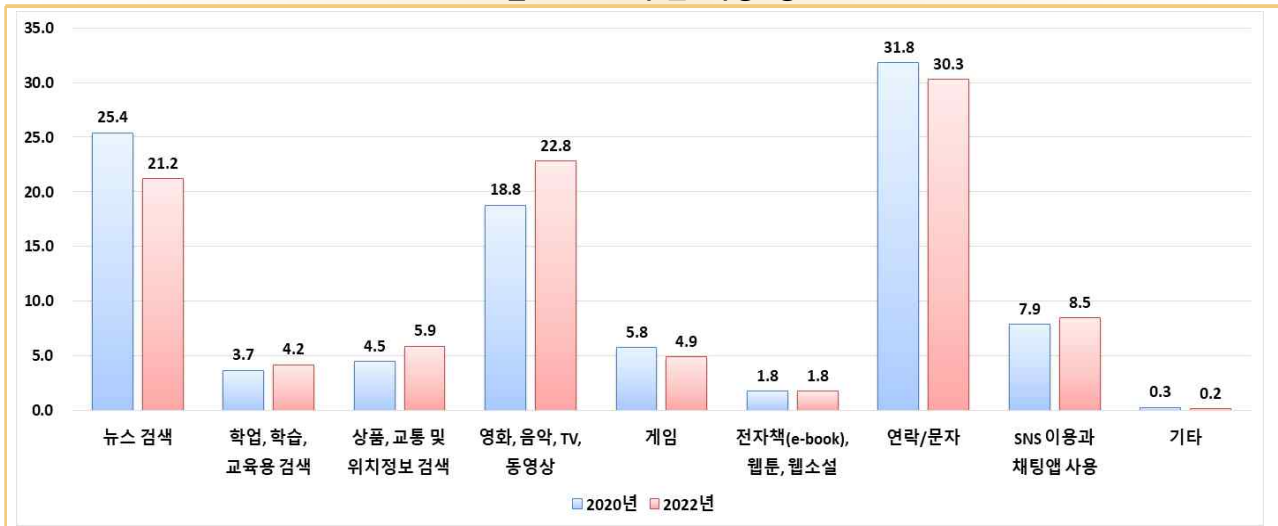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된 이용 용도, 1일 평균 이용 시간

주된 이용 용도

○ 경남도민 중 90.7%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이용 용도는 “연락/문자”가 30.3%, “영화, 음악, TV, 동영상” 22.8%, “뉴스 검색” 21.2% 등의 순임

<그림 24-1> 주된 이용 용도



<표 24-1> 주된 이용 용도

(단위 : %)

구분		있다	이용 용도								
			뉴스 검색	학업, 학습, 교육용 검색	상품, 교통 및 위치 정보 검색	영화, 음악, TV, 동영상	게임	전자책, 웹툰, 웹소설	연락/문 자	SNS 이용과 채팅앱 사용	기타
2020		88.8	25.4	3.7	4.5	18.8	5.8	1.8	31.8	7.9	0.3
2022		90.7	21.2	4.2	5.9	22.8	4.9	1.8	30.3	8.5	0.2
지역별	시 지역	92.9	21.6	4.4	6.2	22.9	5.1	2.0	29.5	8.2	0.2
	군 지역	77.5	18.5	3.0	4.3	22.7	3.5	0.6	36.5	10.6	0.3
성별	남 자	93.6	26.6	3.5	4.5	23.3	7.3	2.1	25.9	6.7	0.2
	여 자	87.7	15.5	4.9	7.5	22.3	2.3	1.6	35.1	10.4	0.2
연령별	15~19세	98.2	0.9	18.2	2.8	34.7	13.7	4.0	6.4	19.2	0.0
	20~29세	97.6	6.7	6.2	5.5	35.8	10.8	3.8	11.6	19.5	0.1
	30~39세	99.0	18.2	6.0	9.4	28.6	5.4	3.2	16.8	12.4	0.0
	40~49세	99.1	28.8	4.1	8.6	24.6	4.7	2.2	18.7	7.9	0.3
	50~59세	98.2	31.5	2.0	6.5	19.1	3.0	0.9	32.2	4.4	0.4
	60세 이상	73.6	20.4	1.0	2.3	12.1	1.2	0.2	60.4	2.1	0.2
	65세 이상	65.5	16.9	1.0	1.6	10.7	1.0	0.1	66.8	1.6	0.2

1일 평균 이용 시간

○ 경남도민의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1~3시간 미만” 45.0%, “1시간 미만”이 29.9%, “3~5시간 미만” 17.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2> 1일 평균 이용 시간



<표 24-2> 1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

구분		합계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020		100.0	30.1	44.2	15.7	6.0	3.9
2022		100.0	29.9	45.0	17.0	5.2	2.9
지역별	시 지역	100.0	28.6	45.1	17.6	5.6	3.2
	군 지역	100.0	39.4	44.1	12.4	2.6	1.4
성별	남 자	100.0	28.3	46.6	17.4	5.1	2.6
	여 자	100.0	31.7	43.3	16.4	5.3	3.3
연령별	15~19세	100.0	6.6	44.7	29.1	12.8	6.7
	20~29세	100.0	5.3	41.9	31.5	13.2	8.1
	30~39세	100.0	11.3	49.0	27.9	7.6	4.2
	40~49세	100.0	18.3	56.0	18.6	4.7	2.4
	50~59세	100.0	36.2	49.6	10.7	2.0	1.6
	60세 이상	100.0	61.9	32.0	4.6	1.1	0.3
	65세 이상	100.0	68.7	26.6	3.6	0.9	0.2

25) 도정 참여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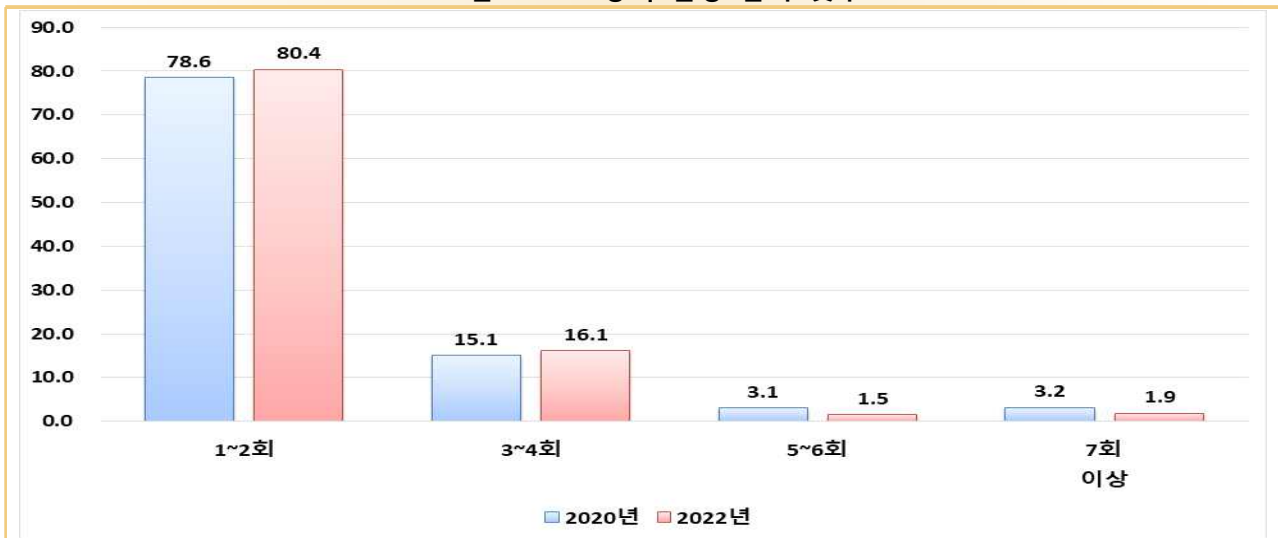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1년간 참여 횟수는 몇 회입니까?

○ 경남도민이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한 경험 여부 문항에서 “참여 경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2%로 나타났고, 참여 횟수에 관해서는 “1~2회”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대~50대의 정책 결정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남

<그림 25-1> 정책 결정 참여 횟수



<표 25-1> 정책 결정 참여 횟수

(단위 : %)

구분		참여 경험 있다	참여 횟수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2020		2.3	78.6	15.1	3.1	3.2
2022		2.2	80.4	16.1	1.5	1.9
지역별	시 지역	2.3	80.6	16.5	1.4	1.5
	군 지역	1.6	79.3	12.4	2.4	5.9
성별	남 자	2.4	80.0	15.5	2.4	2.1
	여 자	1.9	81.1	16.9	0.4	1.7
연령별	15~19세	0.9	100.0	0.0	0.0	0.0
	20~29세	0.5	100.0	0.0	0.0	0.0
	30~39세	3.0	85.4	14.6	0.0	0.0
	40~49세	3.1	81.5	16.1	0.4	1.9
	50~59세	3.0	77.8	16.5	2.9	2.8
	60세 이상	1.6	74.3	20.2	2.6	2.9
	65세 이상	1.1	73.2	20.5	2.3	3.9

참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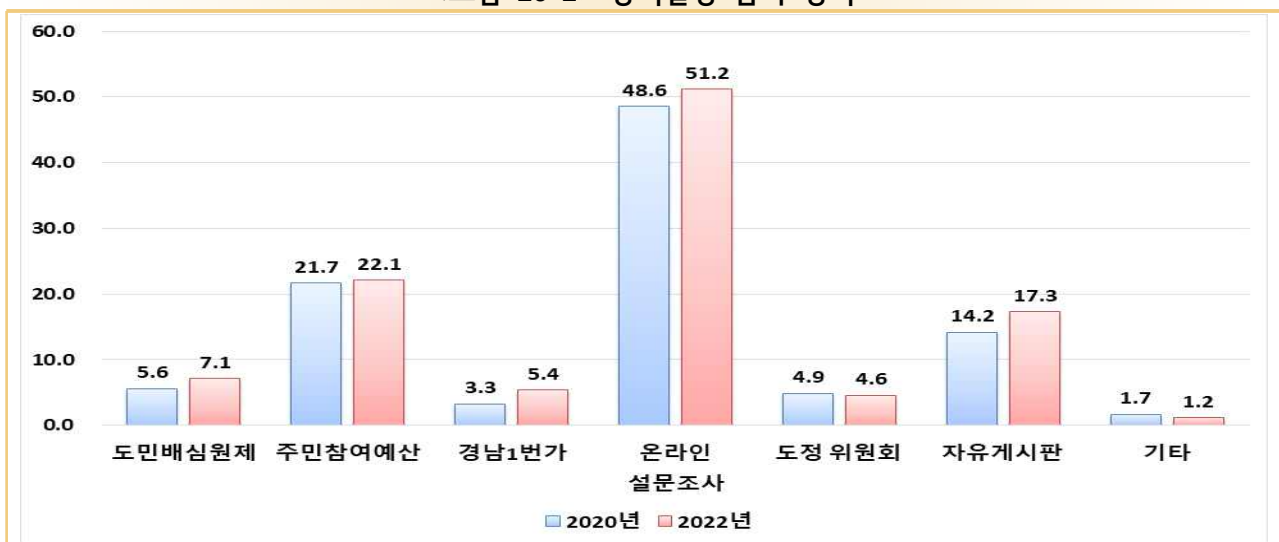
문항

경상남도가 운영 중인 다음의 도정 참여 방식 중 실제로 이용 경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도정 참여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51.2%였으며,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22.1%, “자유게시판” 17.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시 지역 50.8%로 군 지역 54.9%보다 4.1%p 낮게 나타났으며, “자유게시판”에 대해서는 시 지역 18.2%로 군 지역 9.2%보다 9.0%p 높게 나타남

<그림 25-2> 정책결정 참여 방식



<표 25-2> 정책결정 참여 방식

(단위 : %)

구분		합계	도민 배심원제	주민참여 예산	경남1번가	온라인 설문조사	도정 위원회	자유 게시판	기타
2020		100.0	5.6	21.7	3.3	48.6	4.9	14.2	1.7
2022		100.0	7.1	22.1	5.4	51.2	4.6	17.3	1.2
지역별	시 지역	100.0	7.6	22.1	5.3	50.8	4.0	18.2	1.0
	군 지역	100.0	3.6	22.0	6.2	54.9	9.4	9.2	2.5
성별	남 자	100.0	7.7	22.1	7.0	45.2	5.4	18.8	2.0
	여 자	100.0	6.5	22.0	3.4	58.9	3.5	15.3	0.2
연령별	15~19세	100.0	0.0	15.7	0.0	71.3	0.0	13.0	0.0
	20~29세	100.0	0.0	21.8	0.0	57.9	0.0	20.3	0.0
	30~39세	100.0	6.8	2.1	5.6	64.7	5.5	21.0	3.1
	40~49세	100.0	3.1	22.1	6.3	53.4	2.4	18.9	1.0
	50~59세	100.0	8.0	20.3	5.4	52.1	6.3	19.3	1.0
	60세 이상	100.0	12.3	40.1	5.5	34.7	5.2	10.2	0.4
	65세 이상	100.0	6.1	47.3	5.3	29.2	4.5	12.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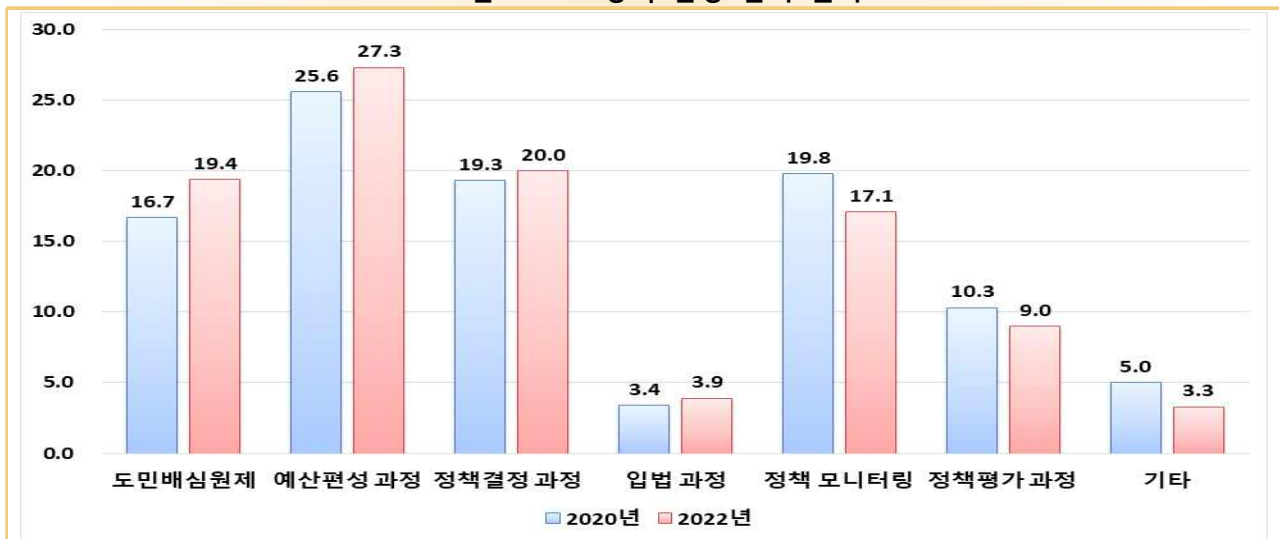
참여 분야

문항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에 참여했거나 참여한다면 희망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이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는 “예산편성 과정”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 결정 과정” 20.0%, “도민배심원제” 19.4%, “정책 모니터링”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3> 정책 결정 참여 분야



<표 25-3> 정책 결정 참여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도민배심원제	예산편성과정	정책 결정과정	입법 과정	정책 모니터링	정책평가과정	기타
	2020	100.0	16.7	25.6	19.3	3.4	19.8	10.3	5.0
	2022	100.0	19.4	27.3	20.0	3.9	17.1	9.0	3.3
지역별	시 지역	100.0	19.6	27.3	20.5	3.9	16.8	9.2	2.8
	군 지역	100.0	18.0	27.4	17.4	3.5	19.3	8.2	6.1
성별	남 자	100.0	18.4	27.9	21.3	4.0	16.0	10.0	2.4
	여 자	100.0	20.3	26.7	18.7	3.8	18.3	8.1	4.2
연령별	15~19세	100.0	19.4	25.4	18.0	4.8	21.1	8.2	3.2
	20~29세	100.0	17.6	26.1	19.5	5.2	18.7	10.1	2.8
	30~39세	100.0	17.2	27.6	20.4	4.3	18.7	10.1	1.7
	40~49세	100.0	18.1	27.5	20.8	3.2	19.5	9.4	1.6
	50~59세	100.0	18.9	28.3	20.7	3.3	17.6	9.1	2.2
	60세 이상	100.0	22.0	27.2	19.5	3.8	13.6	8.1	5.9
	65세 이상	100.0	21.9	27.1	19.5	3.7	12.8	8.0	7.1

26) 사회문제 참여 여부 및 참여 분야

사회문제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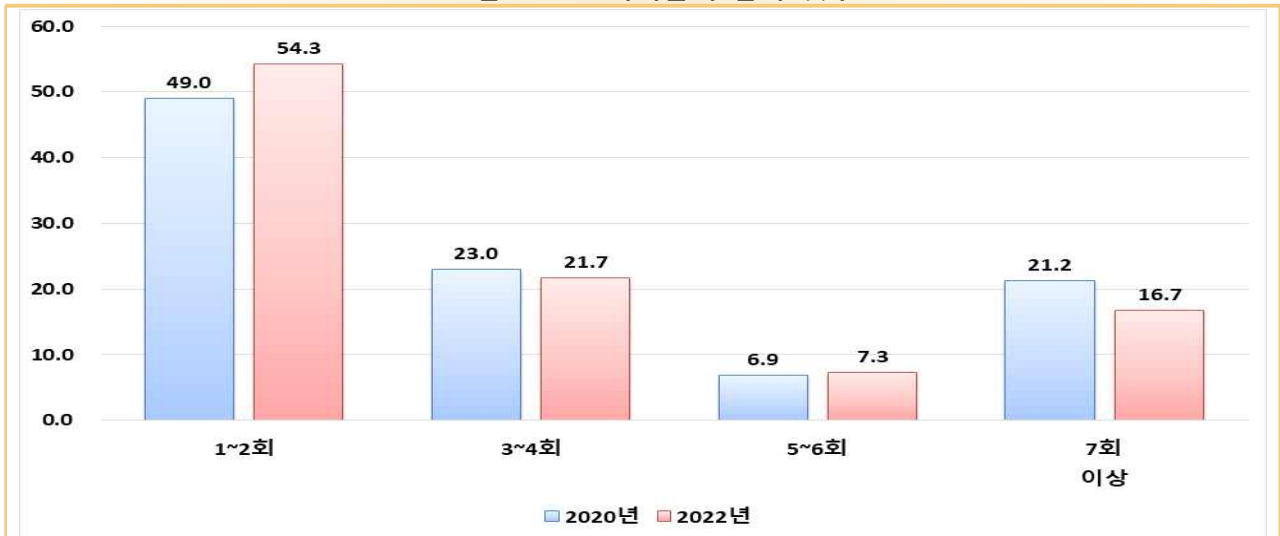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사회문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1년간 참여 횟수는 몇 회입니까?

○ 경남도민이 사회문제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문항에서 “참여 경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4.2%로 나타났고, 참여 횟수에 관해서는 “1~2회”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회”는 21.7%, “5~6회”는 7.3%, “7회 이상”은 16.7%로 나타남

- 참여 경험은 시 지역(4.3%)보다 군 지역(3.8%)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4.7%)가 여자(3.7%)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6-1> 사회문제 참여 횟수



<표 26-1> 사회문제 참여 횟수

(단위 : %)

구분		참여 경험 있다	참여 횟수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2020		5.0	49.0	23.0	6.9	21.2
2022		4.2	54.3	21.7	7.3	16.7
지역별	시 지역	4.3	52.9	22.2	7.8	17.1
	군 지역	3.8	63.6	18.2	4.4	13.7
성별	남 자	4.7	55.5	25.2	5.9	13.3
	여 자	3.7	52.7	17.1	9.1	21.0
연령별	15~19세	1.5	56.8	12.3	14.9	16.0
	20~29세	1.8	51.4	22.4	0.0	26.2
	30~39세	3.9	51.1	24.3	13.4	11.2
	40~49세	5.3	51.8	22.2	9.3	16.7
	50~59세	5.7	59.6	20.6	3.7	16.0
	60세 이상	4.1	53.1	21.7	7.5	17.7
	65세 이상	2.9	56.8	19.4	8.2	15.6

참여 희망 분야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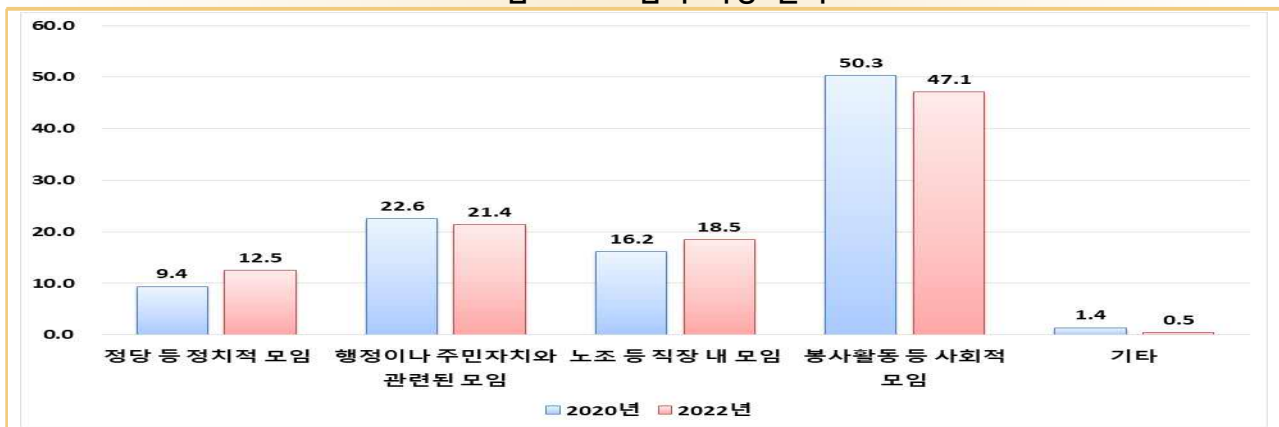
공적인 모임에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경남도민의 사회문제 참여 희망 분야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모임”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정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임” 21.4%, “노조 등 직장 내 모임”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노조 등 직장 내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이 시 지역 19.7%로 군 지역 10.7%보다 높게 나타났고, “행정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은 시 지역 20.5%, 군 지역 27.4%로 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봉사활동 등 사회적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이 남자는 36.7%인데 비해 여자는 60.4%로, 여자가 남자보다 23.7%p 높게 나타났으며, “노조 등 직장 내 모임”은 남자가 26.3%로 여자 8.6%보다 17.7%p 높게 나타남

<그림 26-2> 참여 희망 분야



<표 26-2> 참여 희망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정당 등 정치적 모임	행정이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임	노조 등 직장 내 모임	봉사활동 등 사회적 모임	기타
2020		100.0	9.4	22.6	16.2	50.3	1.4
2022		100.0	12.5	21.4	18.5	47.1	0.5
지역별	시 지역	100.0	13.1	20.5	19.7	46.2	0.5
	군 지역	100.0	8.1	27.4	10.7	53.2	0.5
성별	남 자	100.0	14.2	22.1	26.3	36.7	0.7
	여 자	100.0	10.3	20.6	8.6	60.4	0.1
연령별	15~19세	100.0	0.0	2.5	14.3	83.2	0.0
	20~29세	100.0	21.3	9.3	15.9	53.5	0.0
	30~39세	100.0	16.3	9.1	39.7	34.3	0.4
	40~49세	100.0	15.2	19.6	26.7	37.9	0.6
	50~59세	100.0	11.7	24.5	15.5	47.3	0.9
	60세 이상	100.0	8.9	28.1	7.7	55.3	0.1
	65세 이상	100.0	10.4	29.2	7.7	52.7	0.0

27)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사회적경제 활동

문항	귀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경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활동을 이용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경남도민이 사회적경제 활동을 이용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문항에서 “참여 경험 있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사회적경제 활동은 “조합원 또는 회원가입”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단순구매” 30.4%, “기부 또는 봉사활동 참여”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참여 경험이 군 지역(7.7%)이 시 지역(5.9%)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7-1> 사회적경제 활동 경험



<표 27-1> 사회적경제 활동

(단위 : %)

구분		참여 경험 있다	사회적경제 활동				
			기부 또는 봉사활동 참여	조합원 또는 회원 가입	제품 또는 서비스 단순 구매	지분참여 등 투자	기타
2020		5.9	40.1	36.2	22.0	1.0	0.7
2022		6.2	28.0	39.4	30.4	1.7	0.4
지역별	시 지역	5.9	29.4	36.9	31.1	2.1	0.5
	군 지역	7.7	21.8	50.5	27.3	0.2	0.1
성별	남 자	6.0	28.8	43.9	25.4	1.4	0.6
	여 자	6.3	27.3	35.0	35.4	2.1	0.3
연령대	15~19세	1.3	47.8	8.6	43.6	0.0	0.0
	20~29세	3.0	29.6	13.5	56.8	0.0	0.0
	30~39세	6.5	26.5	31.0	37.0	4.9	0.6
	40~49세	7.4	28.7	33.6	36.3	0.7	0.6
	50~59세	8.2	29.5	40.7	28.6	1.1	0.1
	60세 이상	6.0	25.9	52.1	19.4	1.9	0.7
	65세 이상	4.9	24.2	58.0	14.7	2.1	1.0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

문항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은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38.4%)와 “확대되어야 한다”(52.3%)는 응답이 90.7%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시 지역(38.8%)이 군 지역(36.7%)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40.2%)가 여자(36.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27-2>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



<표 27-2>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

(단위 : %)

구분		합계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확대되어야 한다	확대될 필요 없다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2020		100.0	40.2	53.9	4.9	1.1
2022		100.0	38.4	52.3	8.9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38.8	52.1	8.6	0.4
	군 지역	100.0	36.7	53.0	10.1	0.3
성별	남 자	100.0	40.2	51.0	8.7	0.1
	여 자	100.0	36.7	53.5	9.1	0.7
연령별	15~19세	100.0	0.0	100.0	0.0	0.0
	20~29세	100.0	37.0	40.0	23.0	0.0
	30~39세	100.0	38.2	56.0	4.5	1.4
	40~49세	100.0	43.3	49.1	7.4	0.2
	50~59세	100.0	40.5	51.5	8.0	0.0
	60세 이상	100.0	35.0	54.2	10.3	0.5
	65세 이상	100.0	35.3	54.8	9.8	0.2

28) 삶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	귀하는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근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귀하는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 경남도민이 응답한 삶에 대한 만족감 문항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비율이 아닌 점수로 표와 그림을 나타냄
- 경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중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1점, “어제의 행복”은 6.3점, “어제의 걱정”은 4.4점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28> 삶에 대한 만족감



<표 28> 삶에 대한 만족감

(단위 : 점)

구분		최근 자신의 삶	전반적인 생활	어제 행복	어제 걱정
	2020	5.8	5.6	5.8	4.9
	2022	6.3	6.1	6.3	4.4
지역별	시 지역	6.3	6.0	6.3	4.5
	군 지역	6.7	6.5	6.5	4.0
성별	남 자	6.4	6.1	6.3	4.4
	여 자	6.3	6.1	6.3	4.4
연령별	15~19세	6.4	6.2	6.3	4.6
	20~29세	6.5	6.3	6.5	4.5
	30~39세	6.6	6.2	6.7	4.5
	40~49세	6.4	6.1	6.4	4.6
	50~59세	6.3	6.1	6.3	4.3
	60세 이상	6.1	6.0	6.0	4.2
	65세 이상	6.0	6.0	5.9	4.2

29) 일반인에 대한 신뢰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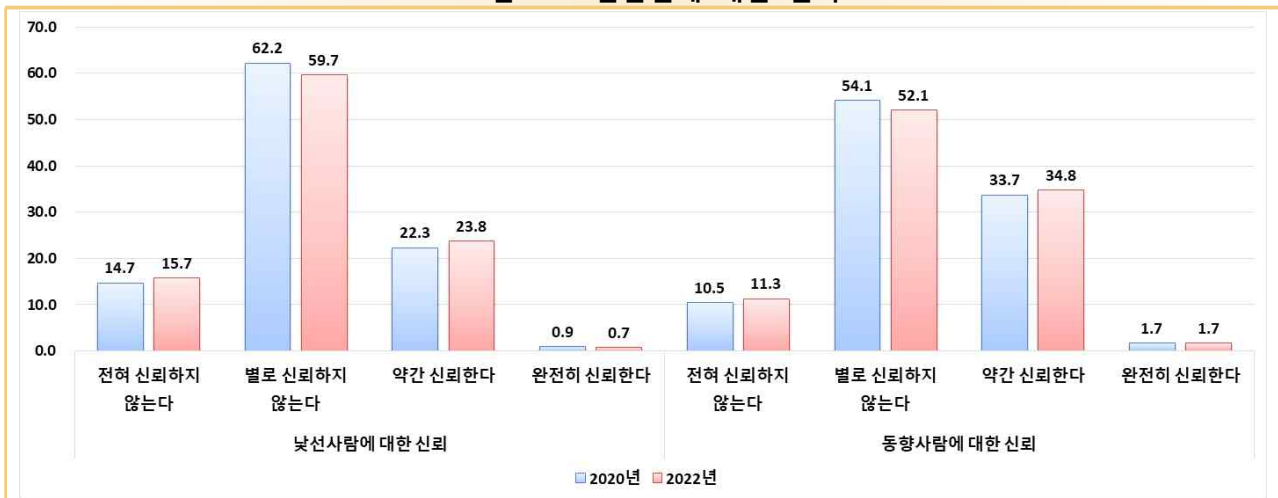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동향(같은 고향)일 경우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 경남도민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5.7%,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59.7%로 나타났으며, 동향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1.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52.1%로 나타남

- 낯선 사람보다는 동향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았음

- 지역별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낯선 사람 또는 동향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남

<그림 29> 일반인에 대한 신뢰



<표 29>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

구분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동향 사람에 대한 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지역별	2020	14.7	62.2	22.3	0.9	10.5	54.1	33.7	1.7
	2022	15.7	59.7	23.8	0.7	11.3	52.1	34.8	1.7
	시 지역	16.1	59.6	23.4	0.8	12.0	52.6	33.5	1.9
성별	군 지역	13.4	59.9	26.3	0.4	7.4	49.1	42.4	1.1
	남 자	14.8	59.3	25.0	0.9	11.1	51.1	35.8	2.0
	여 자	16.7	60.1	22.7	0.6	11.6	53.1	33.8	1.5
연령별	15~19세	23.8	60.8	15.3	0.1	19.6	56.8	21.9	1.6
	20~29세	21.9	57.1	20.5	0.5	17.9	53.7	27.3	1.0
	30~39세	19.9	60.7	18.8	0.5	16.9	58.3	23.8	1.0
	40~49세	15.4	60.8	23.3	0.5	11.4	57.5	30.1	1.0
	50~59세	12.3	60.1	26.5	1.0	7.9	52.8	37.6	1.6
	60세 이상	12.7	59.1	27.2	1.0	7.3	44.6	45.3	2.9
	65세 이상	12.7	58.8	27.5	1.0	7.1	42.9	47.0	3.0

30) 공동체 의식

문항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에 해당하는 곳을 응답해 주십시오.

○ 경남도민의 공동체 의식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9.9%, “그런 편이다”가 24.7%로 나타남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8.9%, “그런 편이다”가 19.8%로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을 준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4.6%, “그런 편이다”가 19.8%로 나타남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55.6%, “그런 편이다”가 15.3%로 나타남

<그림 30> 공동체 의식 ‘그렇다’



<표 30> 공동체 의식

(단위 : %)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020	14.0	26.3	34.6	20.1	5.0
	2022	14.3	25.6	35.4	19.8	4.9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2020	18.7	31.3	30.0	15.8	4.2
	2022	18.5	30.4	31.3	15.7	4.1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020	16.4	27.2	35.3	16.7	4.4
	2022	16.9	27.7	35.6	15.7	4.1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0	25.3	31.2	27.7	11.8	4.0
	2022	24.5	31.1	29.1	11.6	3.7

31) 사회적 계층의식

문항

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 고려)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사회적 계층의식을 보면, 56.5%가 “중하”에 속한다고 인식하였으며, 21.5%는 “중상”에 속한다고 인식함. “하”는 21.2%, “상”은 0.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사회적 계층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사회적 계층의식



<표 31> 사회적 계층의식

(단위 : %)

구분		합계	상	중상	중하	하
	2020	100.0	0.7	22.9	57.0	19.4
	2022	100.0	0.8	21.5	56.5	21.2
지역별	시 지역	100.0	0.9	21.8	56.1	21.2
	군 지역	100.0	0.4	19.5	59.1	21.1
성별	남 자	100.0	0.8	22.5	57.3	19.3
	여 자	100.0	0.8	20.4	55.8	23.0
연령별	15~19세	100.0	0.7	21.3	61.8	16.2
	20~29세	100.0	0.5	21.5	54.7	23.4
	30~39세	100.0	0.4	23.6	59.7	16.3
	40~49세	100.0	0.8	24.6	61.0	13.5
	50~59세	100.0	1.1	26.1	55.9	16.9
	60세 이상	100.0	0.9	15.9	52.9	30.3
	65세 이상	100.0	0.7	13.6	51.6	34.1

32) 소득 불평등 정도

문항

귀하는 경남 가계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남도민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생각은 “약간 불평등” 31.4%, “매우 불평등” 7.3%로 38.7%는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고, “조금 평등” 5.0%, “매우 평등” 0.3%로 평등하다는 인식은 5.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시 지역 38.0%로 군 지역 42.2%보다 4.2%p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남자 38.8%, 여자 38.5%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32> 소득 불평등 정도



<표 32> 소득 불평등 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불평등	약간 불평등	보통	조금 평등	매우 평등
2020		100.0	7.1	33.5	54.2	4.7	0.4
2022		100.0	7.3	31.4	56.0	5.0	0.3
지역별	시 지역	100.0	7.3	30.7	56.8	4.8	0.4
	군 지역	100.0	6.7	35.5	51.7	5.8	0.3
성별	남 자	100.0	7.7	31.1	55.5	5.2	0.4
	여 자	100.0	6.8	31.7	56.6	4.7	0.3
연령별	15~19세	100.0	6.3	26.3	63.0	4.5	0.0
	20~29세	100.0	6.9	28.8	58.9	4.6	0.8
	30~39세	100.0	7.1	33.0	55.6	4.1	0.3
	40~49세	100.0	8.1	36.1	52.1	3.5	0.3
	50~59세	100.0	8.6	32.0	54.4	4.7	0.3
	60세 이상	100.0	6.3	29.5	57.3	6.5	0.3
	65세 이상	100.0	6.0	29.4	57.3	6.9	0.3

3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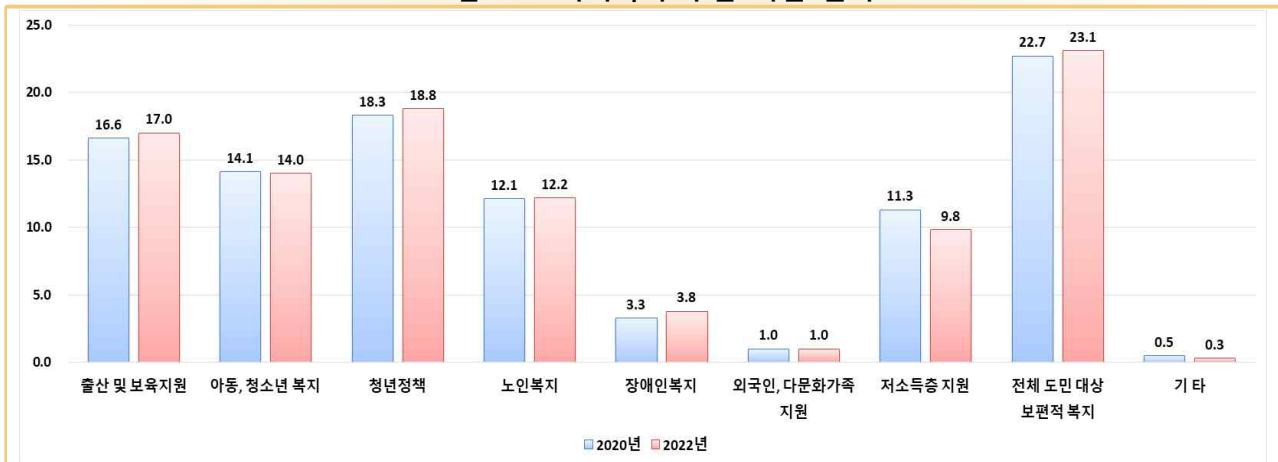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의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하여 “전체 도민 대상 보편적 지원”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년정책” 18.8%, “출산 및 보육 지원” 17.0%, “아동, 청소년 복지”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구분에서 30~39세는 “출산 및 보육지원”(25.5%)과 “아동, 청소년 복지”(23.3%)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29세는 “청년정책”(40.6%)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30.5%)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표 33>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출산 및 보육 지원	아동,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저소득 층 지원	전체 도민 대상 보편적 지원	기타
2020	100.0	16.6	14.1	18.3	12.1	3.3	1.0	11.3	22.7	0.5
2022	100.0	17.0	14.0	18.8	12.2	3.8	1.0	9.8	23.1	0.3
지역별										
시 지역	100.0	17.2	14.2	18.4	12.0	3.8	1.1	9.9	23.1	0.3
군 지역	100.0	16.1	12.9	20.6	12.9	3.6	0.8	9.4	23.5	0.3
성별										
남 자	100.0	17.2	13.2	21.4	10.5	3.8	1.1	9.0	23.6	0.3
여 자	100.0	16.8	14.9	16.1	13.9	3.7	0.9	10.7	22.7	0.3
연령별										
15~19세	100.0	10.8	30.5	29.1	2.2	3.3	0.1	8.7	14.8	0.4
20~29세	100.0	16.7	10.7	40.6	2.8	2.9	0.8	7.7	17.6	0.2
30~39세	100.0	25.5	23.3	16.6	3.1	2.4	1.6	6.4	20.3	0.7
40~49세	100.0	16.2	22.3	12.1	5.2	3.4	1.4	9.7	29.6	0.3
50~59세	100.0	16.0	8.0	18.7	10.1	4.9	0.9	11.4	29.8	0.2
60세 이상	100.0	15.9	7.7	13.3	26.6	4.2	0.9	11.3	19.9	0.2
65세 이상	100.0	15.0	7.8	11.9	30.5	4.1	0.9	11.3	18.3	0.2

34)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문항

(만 19세 이상만 응답)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군) 주민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33.7%,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32.7%로 나타남

- 임신·출산·육아 분야 복지에 대한 “만족”이 27.7%, “불만족”은 18.9%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한 “만족”이 26.8%, “불만족”은 18.2%로 나타남
-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이 21.0%, “불만족”은 26.4%로 나타남
-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9.2%, “불만족”은 13.9%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에 대한 “만족”이 33.7%, “불만족”은 18.2%로 나타남
-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만족”이 32.3%, “불만족”은 15.7%로 나타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만족”이 32.7%, “불만족”은 18.4%로 나타남
- 도민 대상 보편적 지원에 대한 “만족”이 20.3%, “불만족”은 21.0%임

<그림 34>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만족’



<표 34>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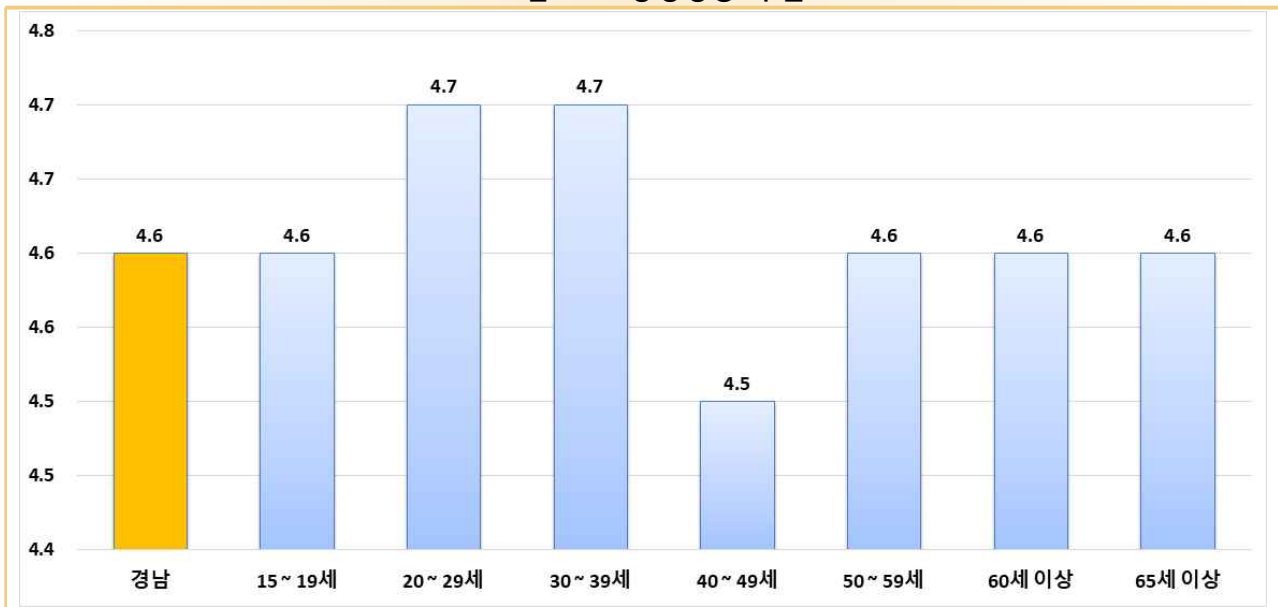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	2020	3.6	16.9	56.9	19.6	3.1
	2022	3.1	15.8	53.4	22.1	5.6
아동·청소년 복지	2020	2.9	17.6	58.3	18.8	2.5
	2022	2.6	15.6	54.9	21.8	5.0
청년정책	2020	5.5	25.6	53.0	13.7	2.2
	2022	5.1	21.3	52.5	16.8	4.2
노인복지	2020	2.0	12.8	49.7	25.4	10.0
	2022	2.0	11.9	46.8	26.9	12.3
장애인복지	2020	2.8	14.4	51.9	23.2	7.6
	2022	3.0	15.2	48.2	24.1	9.6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2020	2.1	12.5	56.6	22.1	6.7
	2022	2.3	13.4	52.0	23.2	9.1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2020	2.8	14.8	52.0	22.3	8.2
	2022	2.7	15.7	48.8	23.1	9.6
도민 대상 보편적 복지	2020	4.3	18.1	60.7	14.3	2.5
	2022	4.1	16.9	58.7	15.8	4.5

35) 양성평등 수준

문항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0점부터 10점까지 10점 척도로 비율이 아닌 점수로 표와 그림을 나타냄
-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경남도민의 인식은 평균 4.6점임

<그림 35> 양성평등 수준



<표 35> 양성평등 수준

(단위 : 점)

구분		양성평등 수준
2020		4.6
2022		4.6
지역별	시 지역	4.6
	군 지역	4.5
성 별	남 자	4.8
	여 자	4.4
연령별	15~19세	4.6
	20~29세	4.7
	30~39세	4.7
	40~49세	4.5
	50~59세	4.6
	60세 이상	4.6
	65세 이상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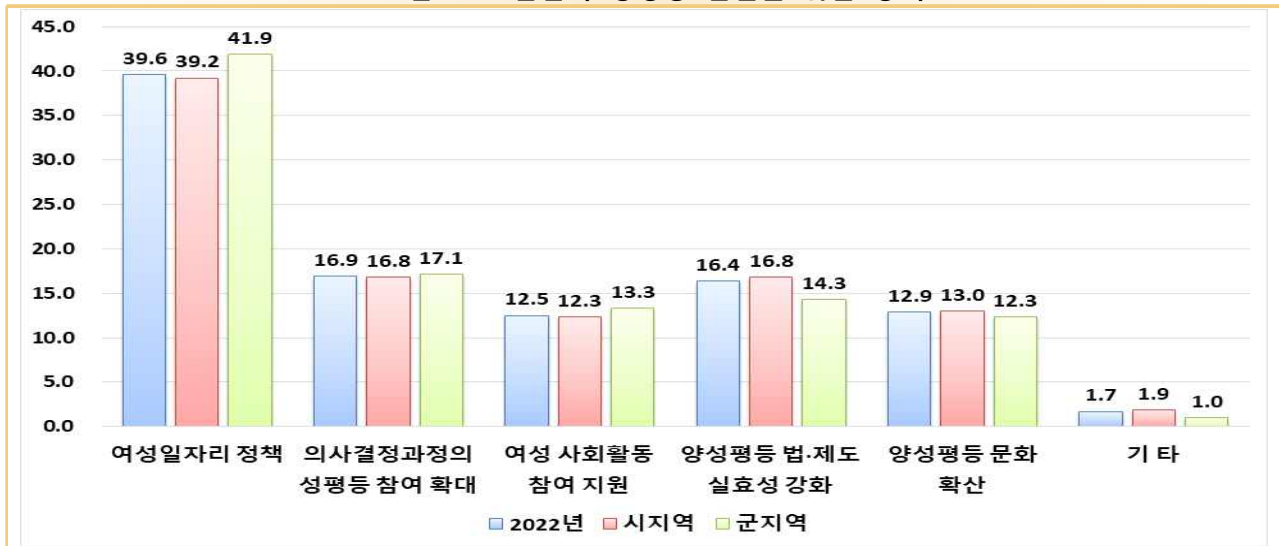
36) 양성평등 우선 지원

문항

귀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여성 일자리 정책”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 참여 확대” 16.9%, “양성평등 법·제도 실효성 강화”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표 36>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단위 : %)

구분	합계	여성 일자리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성평등 참여 확대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양성평등 법·제도 실효성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 타
2022	100.0	39.6	16.9	12.5	16.4	12.9	1.7
지역별							
시 지역	100.0	39.2	16.8	12.3	16.8	13.0	1.9
군 지역	100.0	41.9	17.1	13.3	14.3	12.3	1.0
성별							
남 자	100.0	33.9	18.4	11.3	18.4	15.5	2.5
여 자	100.0	45.4	15.4	13.6	14.4	10.2	1.0
연령별							
15~19세	100.0	27.6	16.3	14.4	26.7	13.5	1.4
20~29세	100.0	32.2	17.9	9.7	21.3	14.4	4.4
30~39세	100.0	39.8	14.8	11.6	16.6	14.1	3.1
40~49세	100.0	43.3	15.0	12.9	14.2	13.5	1.1
50~59세	100.0	39.9	17.4	13.6	15.4	12.9	0.8
60세 이상	100.0	42.1	18.2	12.6	14.7	11.3	1.1
65세 이상	100.0	42.0	18.3	12.8	15.0	10.6	1.2

37) 에너지 절약 실천

문항

귀하는 에너지 사용량(전기, 수도, 유류 등)이 탄소배출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에너지 절약 인식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알고 있다”는 51.6% “에너지 절약을 모름”은 17.3%로 나타남
-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서는 “잘 실천하는 편이다”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 37.9%, “아주 잘 실천하는 편이다”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른 에너지 절약 인식 정도는 시 지역(52.7%)이 군 지역(45.6%)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남

<그림 37> 에너지 절약 실천



<표 37> 에너지 절약 실천

(단위 : %)

구분		에너지 절약을 알고 있다	실천 정도						보통이다	에너지 절약을 모름
			소계	아주 잘 실천	잘 실천	그저 그렇다	실천하지 않음	전혀 실천 하지않음		
2020		51.8	100.0	12.6	49.3	35.1	2.6	0.4	33.8	14.3
2022		51.6	100.0	13.0	45.1	37.9	3.6	0.5	31.1	17.3
지역별	시 지역	52.7	100.0	12.8	44.4	38.7	3.5	0.5	30.6	16.8
	군 지역	45.6	100.0	14.1	49.6	32.1	4.0	0.2	34.1	20.2
성별	남 자	52.2	100.0	12.3	42.4	40.9	3.7	0.7	32.3	15.5
	여 자	51.0	100.0	13.7	47.8	34.7	3.5	0.3	29.9	19.1
연령별	15~19세	49.9	100.0	5.0	35.7	52.8	5.7	0.9	31.8	18.3
	20~29세	51.9	100.0	9.4	33.0	51.1	5.5	1.0	30.9	17.2
	30~39세	59.7	100.0	10.9	39.5	44.8	4.4	0.5	27.9	12.4
	40~49세	61.3	100.0	8.3	44.9	42.0	4.4	0.4	29.3	9.4
	50~59세	57.2	100.0	13.3	48.6	35.6	2.2	0.3	31.0	11.8
	60세 이상	39.3	100.0	21.9	53.7	21.9	2.1	0.4	33.5	27.2
	65세 이상	33.7	100.0	23.0	54.2	20.1	2.4	0.4	33.8	32.6

38)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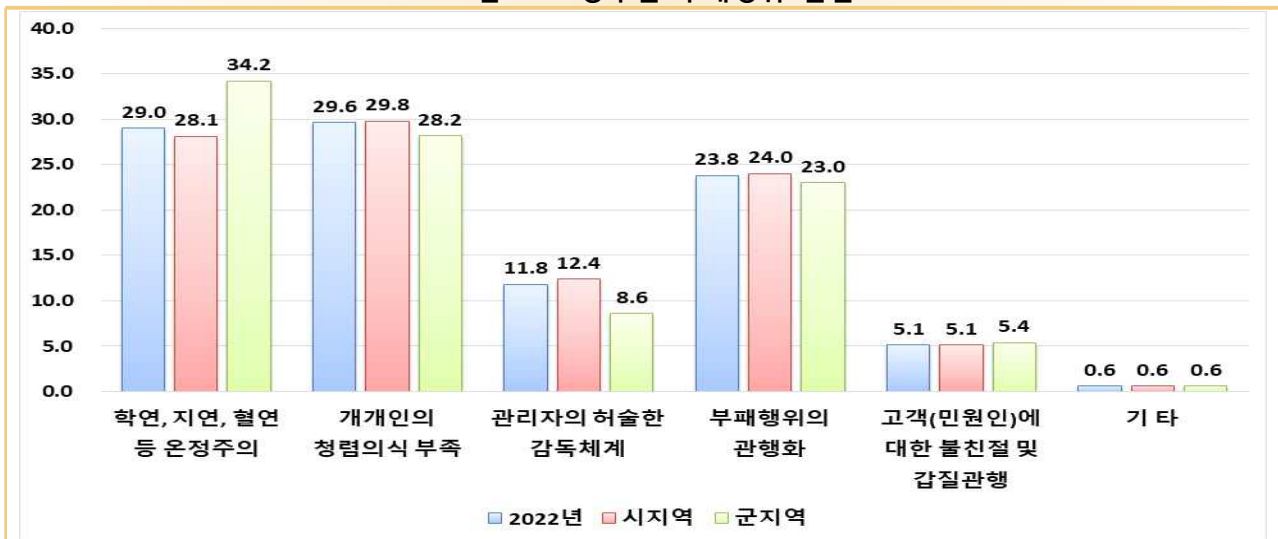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공무원 부패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은 “개개인의 청렴의식 부족”이 29.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연, 지연, 혈연 등 온정주의” 29.0%, “부패행위의 관행화”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온정주의”가 시 지역 28.1%로 군 지역 34.2%보다 6.1%p 낮게 나타남

<그림 38>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표 38> 공무원 부패행위 원인

(단위 : %)

구분	합계	학연, 지연, 혈연 등 온정주의	개개인의 청렴의식 부족	관리자의 허술한 감독체계	부패행위의 관행화	고객(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및 갑질관행	기 타
2022	100.0	29.0	29.6	11.8	23.8	5.1	0.6
지자체							
시 지역	100.0	28.1	29.8	12.4	24.0	5.1	0.6
군 지역	100.0	34.2	28.2	8.6	23.0	5.4	0.6
성별							
남 자	100.0	29.4	28.9	11.9	24.1	5.1	0.7
여 자	100.0	28.6	30.2	11.8	23.6	5.2	0.6
연령							
15~19세	100.0	25.8	30.5	15.8	23.7	3.9	0.3
20~29세	100.0	29.4	27.1	13.2	23.2	6.1	1.0
30~39세	100.0	26.5	27.2	13.7	26.6	5.2	0.9
40~49세	100.0	31.1	26.5	10.8	26.5	4.6	0.5
50~59세	100.0	28.7	30.6	10.8	24.7	4.8	0.4
60세 이상	100.0	29.5	32.4	11.1	20.8	5.5	0.7
65세 이상	100.0	29.6	32.1	11.4	20.3	5.7	0.8

39)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문항

귀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은 “공무원 징계 처벌 강화”가 4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화” 28.0%, “공익신고 시스템 활용 홍보 강화”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공무원 징계 처벌 강화”가 시 지역 48.6%로 군 지역 44.4%보다 4.2%p 높게 나타남

<그림 39>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표 39> 공무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개선 사항

(단위 : %)

구분		합계	공무원 징계 처벌 강화	공무원 청렴 교육 의무화	공익신고 시스템 활용 홍보 강화	자체 공직 감찰 강화	기 타
지역별	2022	100.0	48.0	28.0	11.8	11.5	0.8
	시 지역	100.0	48.6	27.3	11.9	11.5	0.8
	군 지역	100.0	44.4	32.0	11.1	11.8	0.7
성별	남 자	100.0	48.1	27.7	12.3	10.9	1.0
	여 자	100.0	47.8	28.2	11.3	12.1	0.5
연령별	15~19세	100.0	47.3	28.0	11.9	12.2	0.7
	20~29세	100.0	49.4	23.2	13.2	13.3	0.8
	30~39세	100.0	54.6	19.7	12.5	11.7	1.5
	40~49세	100.0	53.2	23.6	11.2	11.4	0.7
	50~59세	100.0	47.8	29.3	12.6	9.9	0.5
	60세 이상	100.0	41.9	34.9	10.7	11.8	0.7
	65세 이상	100.0	41.4	35.9	10.2	1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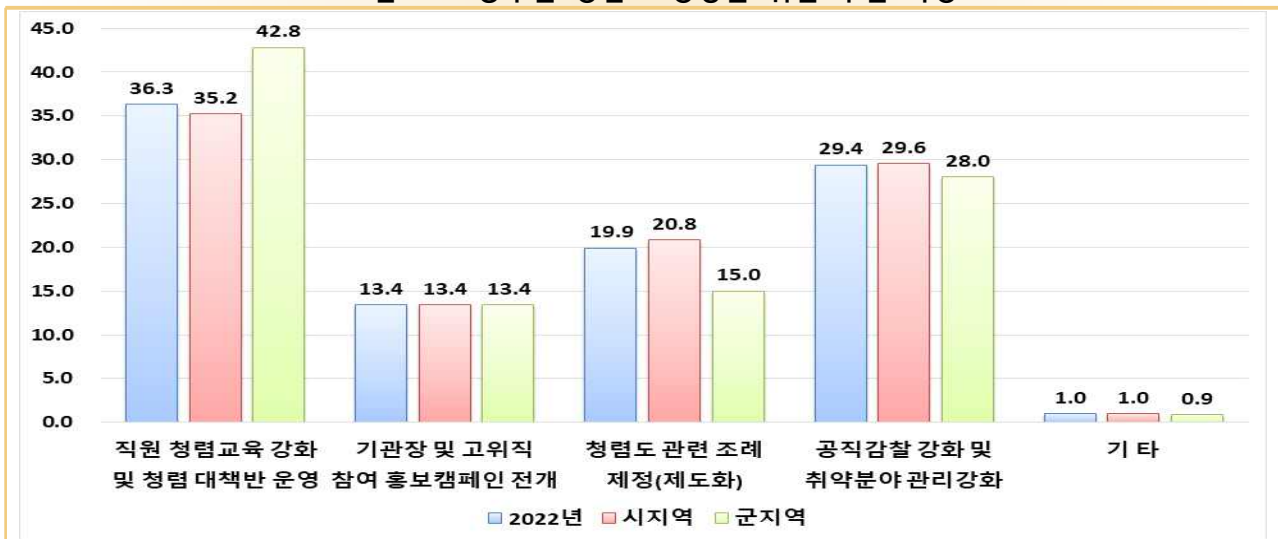
40)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문항

귀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은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대책반 운영”이 36.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직감찰 강화 및 취약분야 관리강화” 29.4%, “청렴도 관련 조례 제정”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대책반 운영”이 시 지역 35.2%로 군 지역 42.8%보다 7.6%p 낮게 나타남

<그림 40>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표 40>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선 사항

(단위 : %)

구분		합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대책반 운영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 홍보캠페인 전개	청렴도 관련 조례 제정(제도화)	공직감찰 강화 및 취약분야 관리강화	기 타
2022		100.0	36.3	13.4	19.9	29.4	1.0
지역별	시 지역	100.0	35.2	13.4	20.8	29.6	1.0
	군 지역	100.0	42.8	13.4	15.0	28.0	0.9
성별	남 자	100.0	35.9	13.7	19.4	29.8	1.3
	여 자	100.0	36.8	13.0	20.5	29.0	0.7
연령별	15~19세	100.0	34.5	12.2	24.1	28.8	0.3
	20~29세	100.0	32.3	12.5	21.6	32.5	1.1
	30~39세	100.0	28.9	11.9	22.2	35.3	1.8
	40~49세	100.0	34.8	12.0	22.0	30.3	0.8
	50~59세	100.0	38.4	13.5	19.3	28.1	0.7
	60세 이상	100.0	40.9	15.2	16.9	26.1	0.9
	65세 이상	100.0	41.3	15.6	16.5	25.4	1.1

41) 공공갈등 심각 정도

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심각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10.6%, “약간 심각하다” 38.6%로 49.2%는 공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거의 심각하지 않다” 3.9%, “전혀 심각하지 않다” 0.2%로 4.1%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공공갈등 심각 정도



<표 41> 공공갈등 심각 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	거의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022		100.0	10.6	38.6	46.6	3.9	0.2
지역별	시 지역	100.0	10.6	38.4	47.0	3.8	0.2
	군 지역	100.0	10.6	40.0	44.7	4.4	0.3
성별	남 자	100.0	11.7	40.5	43.9	3.8	0.2
	여 자	100.0	9.6	36.7	49.4	4.0	0.3
연령별	15~19세	100.0	5.8	39.5	50.4	3.7	0.6
	20~29세	100.0	9.9	35.0	51.1	3.7	0.3
	30~39세	100.0	12.0	39.2	45.4	3.5	0.1
	40~49세	100.0	11.3	41.1	45.0	2.4	0.2
	50~59세	100.0	12.1	40.5	43.5	3.7	0.2
	60세 이상	100.0	9.8	36.9	47.7	5.3	0.3
	65세 이상	100.0	9.1	35.9	48.9	5.7	0.3

42) 공공갈등 발생 원인

문항

귀하는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발생 원인은 “상호 이해 부족”이 22.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빈부격차 심화” 20.4%, “각자 이익 추구” 20.3%, “편 가르기 정치문화”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공공갈등 발생 원인



<표 42> 공공갈등 발생 원인

(단위 : %)

구분	합계	상호 이해 부족	빈부 격차 심화	각자 이익 추구	언론의 선정적 보도	권위적 소통 문화	기회의 불평등	제도, 법령 등의 미비	편 가르기 정치 문화	기타
2022	100.0	22.9	20.4	20.3	6.8	8.8	3.7	3.8	13.0	0.2
지역별										
시 지역	100.0	23.3	20.3	20.2	6.7	8.6	3.4	4.0	13.3	0.2
군 지역	100.0	20.8	21.3	20.7	7.0	9.8	5.5	3.0	11.6	0.4
성별										
남 자	100.0	22.7	20.1	19.3	7.6	9.0	3.6	3.8	13.6	0.2
여 자	100.0	23.1	20.8	21.2	6.0	8.6	3.8	3.8	12.5	0.2
연령별										
15~19세	100.0	24.0	20.3	22.1	6.6	9.7	4.6	2.8	9.8	0.2
20~29세	100.0	23.3	18.5	20.1	6.9	9.5	3.5	3.4	14.5	0.1
30~39세	100.0	21.3	19.4	24.8	6.6	9.1	2.8	3.8	12.2	0.1
40~49세	100.0	23.6	20.0	21.6	7.5	7.8	3.8	4.9	10.8	0.1
50~59세	100.0	23.7	19.3	19.8	7.7	9.0	3.3	3.5	13.4	0.2
60세 이상	100.0	22.3	22.6	17.7	5.9	8.7	4.2	3.7	14.4	0.4
65세 이상	100.0	22.3	23.7	17.4	5.5	8.7	4.3	3.8	13.9	0.5

43) 공공갈등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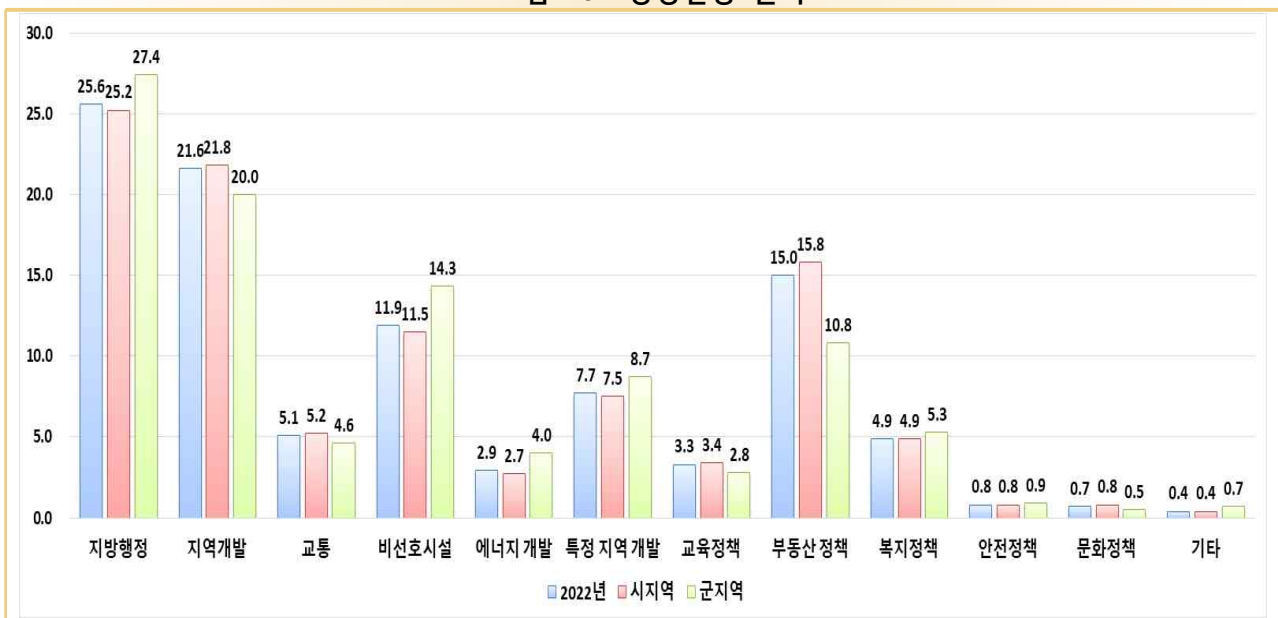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공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공공갈등 분야는 “지방행정”이 2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개발” 21.6%, “부동산 정책” 15.0%, “비선호시설”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동산 정책”이 시 지역 15.8%로 군 지역 10.8%보다 5.0%p 높게 나타남

<그림 43> 공공갈등 분야



<표 43> 공공갈등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지방 행정	지역 개발	교통	비선 호 시설	에너 지 개발	특정 지역 개발	교육 정책	부동 산 정책	복지 정책	안전 정책	문화 정책	기타
2022	100.0	25.6	21.6	5.1	11.9	2.9	7.7	3.3	15.0	4.9	0.8	0.7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25.2	21.8	5.2	11.5	2.7	7.5	3.4	15.8	4.9	0.8	0.4
	군 지역	100.0	27.4	20.0	4.6	14.3	4.0	8.7	2.8	10.8	5.3	0.9	0.7
성별	남 자	100.0	26.0	22.0	4.8	11.5	2.8	8.1	3.4	14.7	4.6	0.9	0.4
	여 자	100.0	25.1	21.1	5.4	12.3	3.0	7.3	3.2	15.4	5.3	0.8	0.4
연령별	15~19세	100.0	24.9	21.0	5.2	13.6	2.3	6.8	10.4	7.6	5.7	0.8	0.1
	20~29세	100.0	25.2	21.6	6.2	10.6	2.5	8.4	3.5	15.1	4.6	0.8	0.5
	30~39세	100.0	23.1	23.2	4.6	13.5	2.6	7.8	3.0	16.7	3.5	0.6	0.5
	40~49세	100.0	26.1	24.0	5.3	11.9	2.0	7.6	3.4	14.4	4.0	0.4	0.3
	50~59세	100.0	27.4	21.3	4.6	11.5	2.6	7.8	2.3	16.0	4.7	0.8	0.2
	60세 이상	100.0	25.3	19.7	5.0	11.8	4.0	7.6	2.8	15.3	6.2	1.1	0.6
	65세 이상	100.0	25.2	19.3	5.2	12.2	4.3	7.3	2.7	15.1	6.5	1.1	0.4

44)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문항

귀하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란 “대화와 토론, 협상 등의 소통문화 정착”이 30.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24.6%,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화와 토론, 협상 등의 소통문화 정착”이 시 지역 29.2%로 군 지역 35.1%보다 5.9%p 낮게 나타남

<그림 44>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표 44>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

(단위 : %)

구분	합계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	대화와 토론, 협상 등의 소통문화 정착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정비	공청회 등 의사소통 절차의 실효성 강화	갈등조정기구 설치 및 기능강화	갈등조정 전문인력 양성	기타
2022	100.0	24.6	30.1	21.0	10.7	10.1	3.3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24.5	29.2	21.6	10.6	10.3	3.3	0.4
군 지역	100.0	24.7	35.1	17.0	10.8	8.9	2.9	0.6
성별								
남 자	100.0	24.5	30.2	21.3	10.3	10.3	3.1	0.4
여 자	100.0	24.7	29.9	20.6	11.0	9.9	3.5	0.4
연령별								
15~19세	100.0	25.1	30.5	20.5	11.1	7.5	5.2	0.1
20~29세	100.0	23.7	27.2	23.9	10.5	11.4	2.9	0.4
30~39세	100.0	19.1	28.2	26.6	10.0	11.8	3.9	0.3
40~49세	100.0	23.6	29.1	22.3	10.7	10.6	3.3	0.3
50~59세	100.0	27.0	30.9	19.1	10.7	9.4	2.6	0.4
60세 이상	100.0	26.0	31.9	18.0	10.9	9.5	3.2	0.5
65세 이상	100.0	25.6	31.8	17.9	11.1	9.8	3.1	0.6

4. 안전 부문

[조사항목별 요약]

4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경남도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9.2%였으며, “전혀 두렵지 않다” 35.0%, “두렵지 않은 편이다” 34.4%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18.3%였으며, “전혀 두렵지 않다” 27.5%, “두렵지 않은 편이다” 30.8%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는 두려움이 높게 나타남

46) 학교(학원) 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 경남도민의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11.5%가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4%)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28.0%), “돈(물건) 빼앗김”(15.1%), “집단 따돌림”(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의 학교(학원)폭력 해결 추진 분야에 대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의 대책 수립”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성교육 강화”(16.8%),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조성”(16.6%), “정확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4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경남도민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안전”이 “불안”보다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연재해” 분야의 안전을 가장 높게 평가함
- 단,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분야에 대한 평가는 “불안”이 35.7%로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42.8%, “불안” 13.6%로 나타남
 -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41.4%, “불안” 11.4%로 나타남
 - “교통사고”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1.5%, “불안” 17.3%로 나타남
 - “화재(산불 포함)”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4.9%, “불안” 14.9%로 나타남
 -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7.0%, “불안” 12.7%로 나타남
 -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5.4%, “불안” 27.5%로 나타남

-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2.7%, “불안” 35.7%로 나타남
- “범죄 위협”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8.8%, “불안” 22.1%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안전” 평가는 “안전” 32.1%, “불안” 14.8%로 나타남

48)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 경남도민은 범죄환경 예방을 위해 60.3%가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우범지역 정비를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 16.1%, “여성과 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구축”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49) 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

- 경남도민은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35.2%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3.8%, “지진대비 교육, 훈련, 홍보 강화” 18.3%, “지진대피시설 지정 확대”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50) 농축산물 인증제도

- 경남도민의 농축산물 인증제도 인식 정도는 “보통이다”(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안다”(24.0%), “조금 모른다”(22.6%), “전혀 모른다”(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51)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34.9%가 “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7.8%가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강화”, 20.0%가 “잔류 검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5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경남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가구는 78.3%로 2020년에 비해 8.4%p 증가하였으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50.0%로 2020년에 비해 1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3) 안전교육 받은 경험

- 경남도민은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42.2%는 위험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민은 50.4%가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 및 안전교육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

우 그렇다” 13.5%, “그렇다” 44.7%로 58.2%는 내용 전달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부족”은 7.4%로 나타남

○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로는 “직장”이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29.3%, “안전관련 행사에서 체험활동” 11.3%, “소방서” 9.8%의 순으로 나타남

4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문항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니까?

○ 경남도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9.2%였으며, “전혀 두렵지 않다” 35.0%, “두렵지 않은 편이다” 34.4%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두렵다”는 응답이 시 지역 9.5%, 군 지역 6.9%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두렵다”는 응답이 남자 3.2%, 여자 15.0%로 남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표 45-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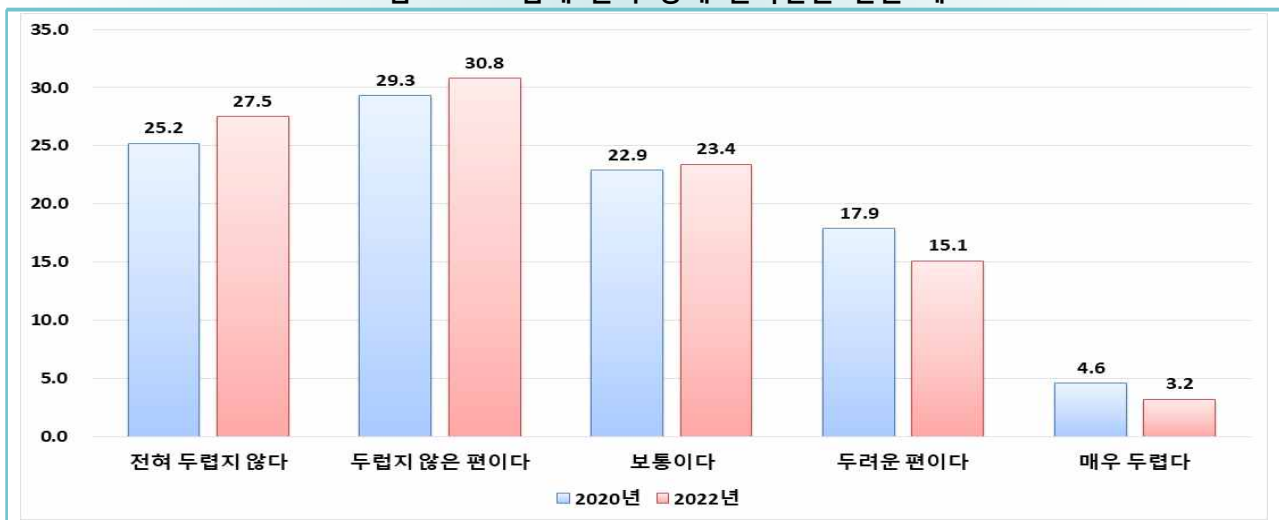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합계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		100.0	33.4	32.8	22.2	10.4	1.3
2022		100.0	35.0	34.4	21.5	8.2	1.0
지역별	시 지역	100.0	34.2	33.8	22.5	8.4	1.1
	군 지역	100.0	39.8	38.2	15.1	6.5	0.4
성별	남 자	100.0	47.2	33.7	15.9	2.8	0.4
	여 자	100.0	22.8	35.1	27.0	13.5	1.5
연령별	15~19세	100.0	30.1	32.6	21.6	14.3	1.4
	20~29세	100.0	36.8	30.7	21.4	9.6	1.6
	30~39세	100.0	35.3	31.6	22.2	9.8	1.1
	40~49세	100.0	36.0	34.4	21.5	7.2	0.8
	50~59세	100.0	34.5	34.6	22.5	7.6	0.9
	60세 이상	100.0	34.8	37.2	20.5	6.8	0.7
	65세 이상	100.0	35.1	37.7	19.5	7.0	0.6

○ 경남도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18.3%였으며, “전혀 두렵지 않다” 27.5%, “두렵지 않은 편이다” 30.8%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는 두려움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두렵다”는 응답이 시 지역 19.5%, 군 지역 11.0%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두렵다”는 응답이 남자 6.4%, 여자 30.3%로 남자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표 45-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단위 : %)

구분		합계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		100.0	25.2	29.3	22.9	17.9	4.6
2022		100.0	27.5	30.8	23.4	15.1	3.2
지역별	시 지역	100.0	26.1	30.0	24.4	16.0	3.5
	군 지역	100.0	36.0	35.5	17.6	9.6	1.4
성별	남 자	100.0	40.2	34.2	19.3	5.5	0.9
	여 자	100.0	14.8	27.4	27.5	24.8	5.5
연령별	15~19세	100.0	19.8	28.5	24.4	21.7	5.5
	20~29세	100.0	29.2	25.7	21.5	19.2	4.4
	30~39세	100.0	26.8	27.4	22.5	17.8	5.5
	40~49세	100.0	25.1	31.5	25.2	15.1	3.1
	50~59세	100.0	26.3	30.7	24.8	15.4	2.9
	60세 이상	100.0	30.8	34.2	22.4	11.1	1.6
	65세 이상	100.0	31.7	35.1	21.7	10.2	1.4

46) 학교(학원)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학교(학원) 폭력 피해 경험

문항	귀하는 학교(학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경남도민의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11.5%가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4%)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28.0%), “돈(물건) 빼앗김”(15.1%), “집단 따돌림”(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피해 경험이 시 지역(12.3%)이 군 지역(6.8%)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13.4%)가 여자(9.6%)보다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시 지역(39.1%)이 군 지역(43.4%)보다 비율이 낮았고, “신체적 폭력”의 비율은 시 지역(28.4%)이 군 지역(23.6%)보다 높았음
- 성별로는 남자는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자는 “언어폭력”의 비율이 매우 높고 다음으로 “집단 따돌림”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46-1> 학교(학원)폭력 피해 유형



<표 46-1> 학교(학원)폭력 피해 경험 및 피해 유형

(단위 : %)

구분		피해 경험 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돈(물건) 빼앗김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성폭력	기타
2020		11.1	37.8	23.9	15.2	15.5	3.5	3.1	0.9
2022		11.5	39.4	28.0	15.1	12.5	2.7	1.7	0.5
지역별	시 지역	12.3	39.1	28.4	15.3	12.5	2.6	1.6	0.3
	군 지역	6.8	43.4	23.6	12.9	11.8	3.0	2.6	2.6
성별	남 자	13.4	35.1	38.2	17.3	6.1	2.3	0.9	0.1
	여 자	9.6	45.6	13.7	12.0	21.4	3.2	2.9	1.1
연령대	15~19세	13.7	68.2	8.6	8.7	12.6	1.8	0.0	0.0
	20~29세	18.0	37.6	19.1	17.6	21.6	3.0	0.6	0.5
	30~39세	17.7	35.1	26.5	15.9	18.6	2.3	1.1	0.5
	40~49세	12.2	36.9	31.0	17.5	9.3	3.0	2.3	0.0
	50~59세	10.9	37.7	40.4	12.8	4.7	1.3	2.9	0.2
	60세 이상	6.1	40.7	29.7	13.7	7.2	4.3	2.5	1.8
	65세 이상	5.4	43.0	23.8	14.9	8.7	4.6	2.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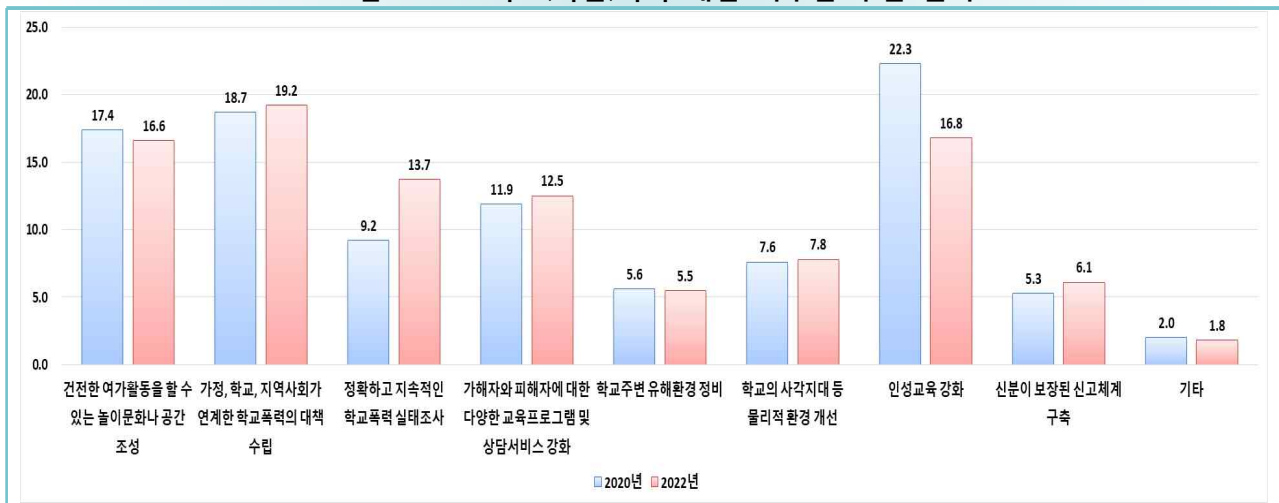
학교(학원) 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문항

귀하는 학교(학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의 학교(학원)폭력 해결 추진 분야에 대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에 대책 수립”이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성교육 강화”(16.8%),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조성”(16.6%), “정확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2> 학교(학원)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표 46-2> 학교(학원)폭력 해결 최우선 추진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조성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폭력의 대책 수립	정확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학교의 사각지대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인성교육 강화	신분이 보장된 신고체계 구축	기타
2020	100.0	17.4	18.7	9.2	11.9	5.6	7.6	22.3	5.3	2.0
2022	100.0	16.6	19.2	13.7	12.5	5.5	7.8	16.8	6.1	1.8
지자체										
시 지역	100.0	15.9	19.8	14.1	12.4	5.5	8.1	15.8	6.3	2.0
군 지역	100.0	21.1	15.4	11.1	12.7	5.5	6.1	22.9	4.7	0.5
성별										
남 자	100.0	16.5	19.5	13.7	12.8	5.1	8.1	15.7	6.4	2.3
여 자	100.0	16.8	18.9	13.7	12.1	5.9	7.5	18.0	5.8	1.4
연령대										
15~19세	100.0	18.4	19.0	11.9	13.2	5.5	12.2	8.7	8.2	2.8
20~29세	100.0	13.7	19.5	14.3	12.0	4.5	9.6	10.7	10.8	4.8
30~39세	100.0	13.2	19.6	15.9	13.4	5.2	8.2	11.4	8.8	4.3
40~49세	100.0	17.0	20.6	13.2	13.5	4.1	8.5	15.5	5.9	1.7
50~59세	100.0	19.2	18.5	12.5	12.8	5.5	6.7	19.1	5.1	0.7
60세 이상	100.0	17.1	18.6	13.8	11.3	6.7	6.5	22.2	3.5	0.2
65세 이상	100.0	16.8	18.4	13.7	11.2	6.9	6.4	22.9	3.7	0.2

4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문항

귀하는 우리 지역(시군)의 다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안전”이 “불안”보다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연재해” 분야의 안전을 가장 높게 평가
- 단,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분야에 대한 평가는 “불안”이 35.7%로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42.8%, “불안” 13.6%로 나타남
 -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41.4%, “불안” 11.4%로 나타남
 - “교통사고”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1.5%, “불안” 17.3%로 나타남
 - “화재(산불 포함)”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4.9%, “불안” 14.9%로 나타남
 -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37.0%, “불안” 12.7%로 나타남
 -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5.4%, “불안” 27.5%로 나타남
 -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2.7%, “불안” 35.7%로 나타남
 - “범죄 위협” 분야 안전환경 평가는 “안전” 28.8%, “불안” 22.1%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사회안전” 평가는 “안전” 32.1%, “불안” 14.8%로 나타남

<그림 4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표 4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단위 : %)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020	4.1	35.7	41.7	15.3	3.2
	2022	3.9	38.9	43.6	11.9	1.7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2020	3.3	34.0	49.0	12.0	1.7
	2022	3.4	38.0	47.1	10.0	1.4
교통사고	2020	2.1	26.0	52.9	16.1	2.9
	2022	2.1	29.4	51.2	14.6	2.7
화재(산불 포함)	2020	3.0	31.2	52.2	11.8	1.8
	2022	2.9	32.0	50.3	12.8	2.1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2020	3.1	31.5	53.2	10.3	1.9
	2022	2.8	34.2	50.4	10.8	1.9
정보보안(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2020	2.7	23.2	49.5	18.9	5.6
	2022	2.1	23.3	47.0	20.8	6.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2020	2.3	22.6	35.0	22.0	18.2
	2022	1.7	21.0	41.6	24.5	11.2
범죄 위협	2020	2.6	25.3	47.4	19.8	4.9
	2022	2.4	26.4	49.0	17.9	4.2
전반적인 사회 안전	2020	2.4	27.6	52.9	13.8	3.2
	2022	2.4	29.7	53.1	12.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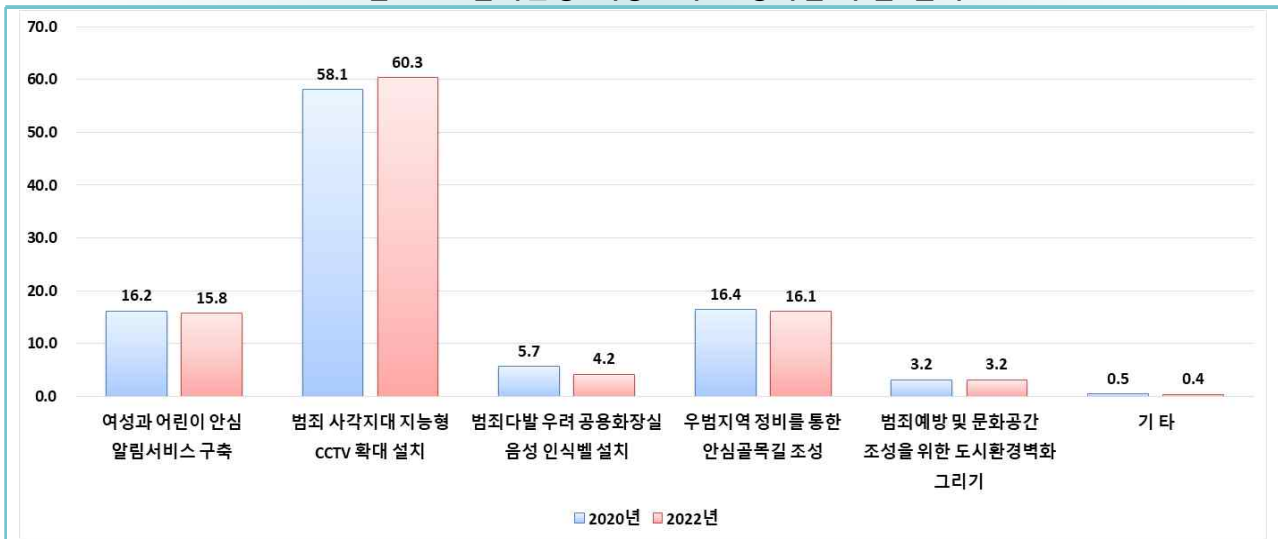
48)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문항

귀하는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은 범죄환경 예방을 위해 60.3%가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우범지역 정비를 통한 안심골목길 조성” 16.1%, “여성과 어린이 안심 알림서비스 구축” 15.8%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48>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표 48> 범죄환경 예방도시 조성사업 우선 분야

(단위 : %)

구분	합계	여성 어린이 안심 알림 서비스 구축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범죄 다발 우려 공용 화장실 음성 인식벨 설치	우범지역 정비를 통한 안심 골목길 조성	범죄예방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벽화 그리기	기 타
2020	100.0	16.2	58.1	5.7	16.4	3.2	0.5
2022	100.0	15.8	60.3	4.2	16.1	3.2	0.4
지역별							
시 지역	100.0	15.8	60.0	4.1	16.5	3.1	0.4
군 지역	100.0	15.8	61.9	4.4	13.9	3.7	0.2
성별							
남 자	100.0	14.7	60.8	4.5	16.0	3.5	0.5
여 자	100.0	17.0	59.8	3.8	16.3	2.9	0.2
연령별							
15~19세	100.0	17.6	59.9	3.7	15.1	3.1	0.5
20~29세	100.0	13.8	61.6	4.6	17.6	2.1	0.4
30~39세	100.0	18.4	60.3	3.3	15.2	2.0	1.0
40~49세	100.0	16.8	61.9	3.3	15.4	2.2	0.3
50~59세	100.0	15.1	60.0	4.1	17.1	3.3	0.3
60세 이상	100.0	15.2	59.1	5.0	15.9	4.7	0.2
65세 이상	100.0	15.4	59.3	5.1	15.3	4.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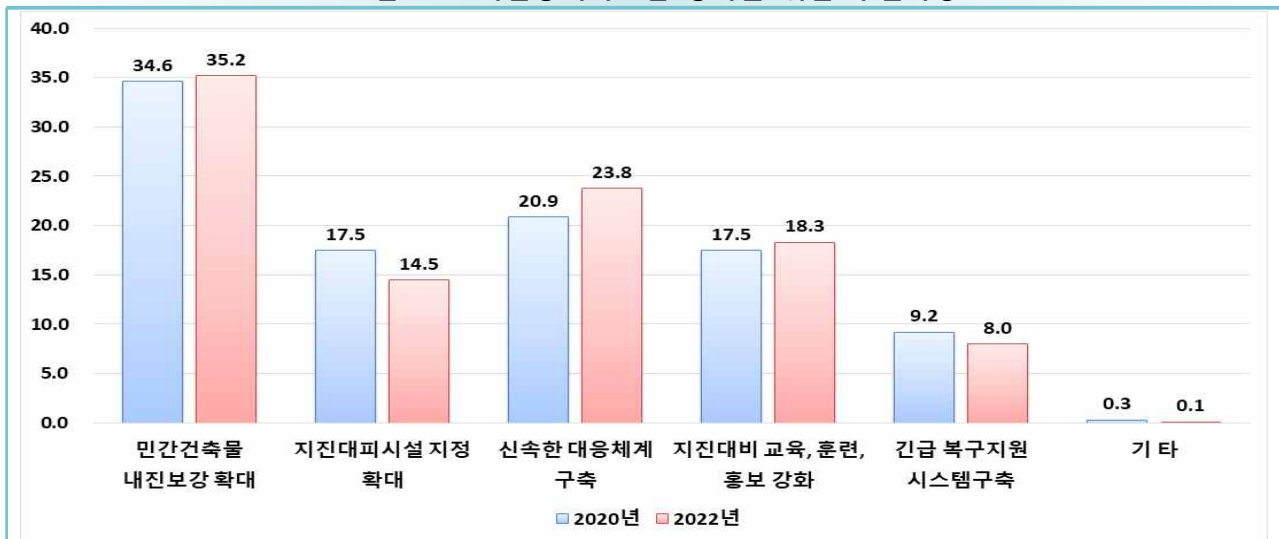
49) 지진방재시스템 강화 우선 추진

문항

귀하는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은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35.2%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확대”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3.8%, “지진대비 교육, 훈련, 홍보 강화” 18.3%, “지진대피시설 지정 확대” 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



<표 49> 지진방재시스템 강화를 위한 우선사항

(단위 : %)

구분		합계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확대	지진 대피시설 지정 확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지진대비 교육, 훈련, 홍보 강화	긴급 복구지원 시스템 구축	기 타
2020		100.0	34.6	17.5	20.9	17.5	9.2	0.3
2022		100.0	35.2	14.5	23.8	18.3	8.0	0.1
지역별	시 지역	100.0	36.0	15.0	23.1	18.0	7.7	0.1
	군 지역	100.0	30.2	11.6	27.8	20.2	10.0	0.2
성별	남 자	100.0	35.7	13.6	24.2	17.9	8.4	0.2
	여 자	100.0	34.7	15.4	23.4	18.7	7.6	0.1
연령별	15~19세	100.0	30.0	22.0	23.7	19.2	5.1	0.0
	20~29세	100.0	37.1	14.1	23.8	17.9	7.1	0.0
	30~39세	100.0	39.2	16.2	22.6	15.0	6.8	0.1
	40~49세	100.0	39.9	13.2	22.8	17.1	6.8	0.1
	50~59세	100.0	36.4	13.4	23.5	18.4	8.2	0.2
	60세 이상	100.0	30.2	14.1	25.1	20.4	10.0	0.2
	65세 이상	100.0	29.1	14.4	25.5	20.4	10.4	0.2

50) 농축산물 인증제도

문항 귀하는 위에서 설명 드린 농축산물 인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농축산물 인증제도 인식 정도는 “보통이다”(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안다”(24.0%), “조금 모른다”(22.6%), “전혀 모른다”(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50> 농축산물 인증제도 인식 정도



<표 50> 농축산물 인증제도 인식 정도

(단위 : %)

구분		합계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보통이다	조금 모른다	전혀 모른다
	2020	100.0	5.3	26.2	32.2	23.2	13.2
	2022	100.0	3.8	24.0	36.7	22.6	13.0
지역별	시 지역	100.0	3.7	22.9	37.3	23.0	13.1
	군 지역	100.0	4.0	30.5	33.1	20.5	11.9
성별	남 자	100.0	3.4	22.0	37.6	23.8	13.2
	여 자	100.0	4.1	26.0	35.7	21.4	12.7
연령별	15~19세	100.0	3.9	19.1	35.5	23.4	18.0
	20~29세	100.0	2.4	17.7	36.4	23.4	20.1
	30~39세	100.0	3.7	26.4	34.7	21.3	14.0
	40~49세	100.0	4.5	30.1	38.3	18.2	8.8
	50~59세	100.0	4.0	27.6	40.6	20.3	7.5
	60세 이상	100.0	3.6	20.4	34.3	26.8	14.8
	65세 이상	100.0	3.1	17.9	32.8	28.7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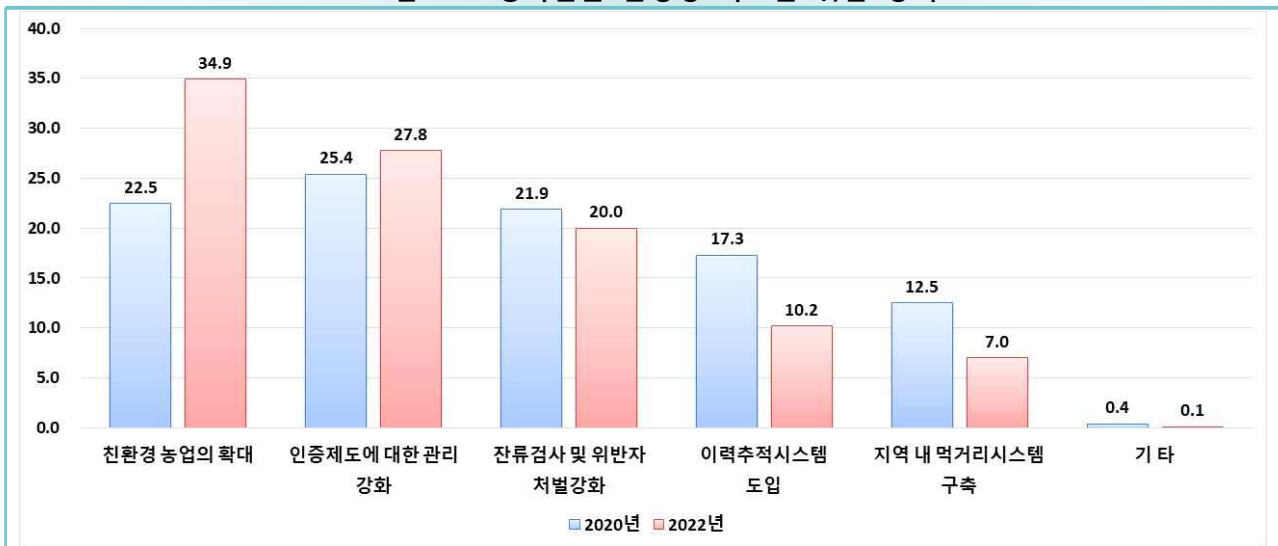
51)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문항

귀하는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34.9%가 “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7.8%가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강화”, 20.0%가 “잔류검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1>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표 51>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단위 : %)

구분	합계	친환경 농업의 확대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잔류검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지역 내 먹거리 시스템 구축	기 타
2020	100.0	22.5	25.4	21.9	17.3	12.5	0.4
2022	100.0	34.9	27.8	20.0	10.2	7.0	0.1
지역별							
시 지역	100.0	34.0	28.2	20.3	10.3	7.1	0.1
군 지역	100.0	40.3	25.2	17.7	9.8	6.4	0.6
성별							
남 자	100.0	35.0	27.7	19.9	10.7	6.6	0.1
여 자	100.0	34.8	27.9	20.0	9.7	7.4	0.1
연령별							
15~19세	100.0	42.4	27.9	17.1	7.9	4.8	0.0
20~29세	100.0	32.2	27.3	21.4	12.2	6.7	0.1
30~39세	100.0	28.8	30.3	22.2	11.7	7.0	0.1
40~49세	100.0	31.0	31.2	19.5	11.1	7.2	0.0
50~59세	100.0	34.1	28.5	20.1	10.4	6.9	0.0
60세 이상	100.0	40.0	24.5	19.2	8.6	7.4	0.3
65세 이상	100.0	40.4	23.6	19.3	8.4	7.8	0.4

5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항

귀댁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또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하도록 법제화 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경남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가구는 78.3%로 2020년에 비해 8.4%p 증가하였으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50.0%로 2020년에 비해 1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소화기 비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비율도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남
-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인식정도는 “잘 알고 있다”가 33.8%, “전혀 모른다”는 38.1%로 나타남

<그림 5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의무설치 인식정도



<표 5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의무설치 인식정도

(단위 : %)

		소화기 비치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인식정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2020		69.9	30.1	36.0	64.0	35.0	24.5	40.6
2022		78.3	21.7	50.0	50.0	33.8	28.1	38.1
지역별	시 지역	78.1	21.9	47.7	52.3	35.0	28.2	36.8
	군 지역	79.1	20.9	57.3	42.7	27.1	27.5	45.3
성별	남 자	80.2	19.8	50.7	49.3	38.0	29.4	32.6
	여 자	74.3	25.7	48.9	51.1	25.0	25.6	49.4
연령별	15~19세	94.4	5.6	67.4	32.6	21.4	25.3	53.3
	20~29세	76.9	23.1	62.7	37.3	29.3	25.5	45.2
	30~39세	79.8	20.2	56.0	44.0	41.2	29.2	29.6
	40~49세	85.0	15.0	56.7	43.3	43.6	30.3	26.1
	50~59세	81.1	18.9	51.7	48.3	41.4	29.2	29.3
	60세 이상	74.5	25.5	46.4	53.6	26.1	26.9	47.0
	65세 이상	73.2	26.8	46.0	54.0	22.6	26.3	51.1

53) 안전교육 받은 경험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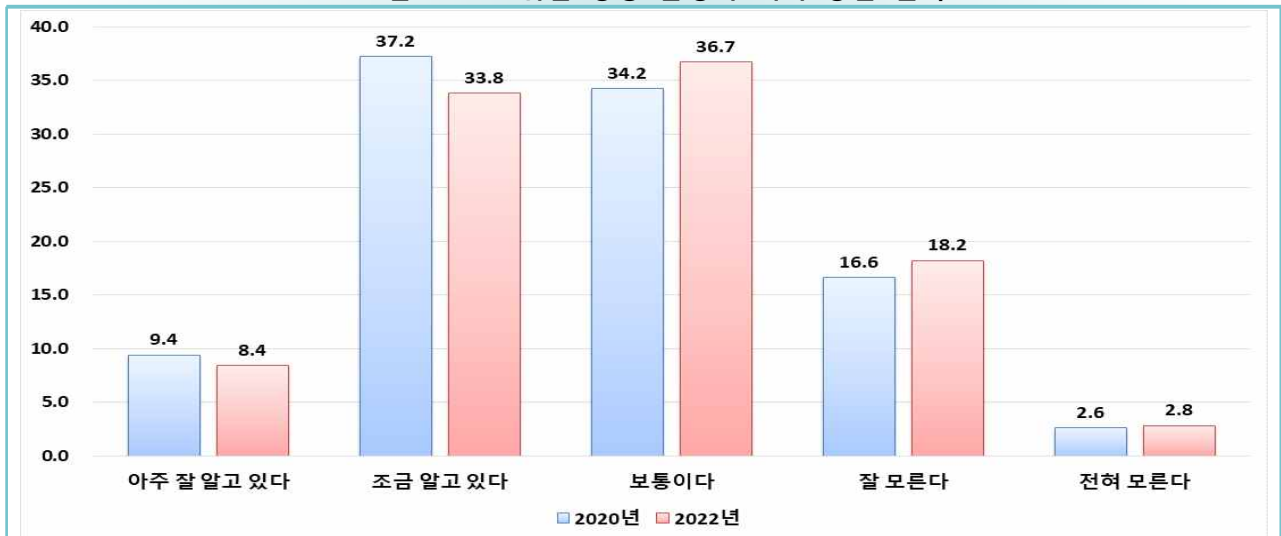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위험 상황(화재, 구급, 구조 등)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은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33.8%가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로 나타남

- “알고 있다”는 42.2%, “모른다” 21.0%로 위험 발생 시 대처 방법에 “알고 있다”의 비율이 높았음
- 지역별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시 지역 42.3%, 군 지역 42.2%로 나타남
- 성별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남자 48.7%, 여자 35.7%로 나타남

<그림 53-1> 위험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인식



<표 53-1> 위험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인식

(단위 : %)

구분		합계	아주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2020		100.0	9.4	37.2	34.2	16.6	2.6
2022		100.0	8.4	33.8	36.7	18.2	2.8
지역별	시 지역	100.0	8.9	33.4	37.3	17.8	2.7
	군 지역	100.0	5.7	36.5	33.6	20.5	3.7
성별	남 자	100.0	10.9	37.8	36.6	13.0	1.7
	여 자	100.0	5.9	29.8	36.9	23.4	4.0
연령별	15~19세	100.0	15.6	40.6	32.9	9.5	1.3
	20~29세	100.0	10.0	36.6	38.0	13.0	2.4
	30~39세	100.0	10.7	38.9	38.3	10.8	1.3
	40~49세	100.0	8.9	39.4	38.4	12.5	0.8
	50~59세	100.0	8.8	35.7	39.6	14.6	1.2
	60세 이상	100.0	5.1	25.0	33.5	30.3	6.1
	65세 이상	100.0	4.2	22.0	31.5	34.4	7.8

소방 및 안전교육

문항

귀하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받은 소방 및 안전교육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전달했습니까?

○ 경남도민 중 50.4%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시 지역은 52.6%, 군 지역은 37.6%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60.8%, 여자 40.0%가 교육은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소방 및 안전교육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13.5%, “그렇다” 44.7%로 58.2%는 내용 전달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부족”은 7.4%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그렇다”는 응답이 시 지역 56.5%, 군 지역 72.2%로 나타남
- 성별로는 “그렇다”는 응답이 남자 60.5%, 여자 54.7%로 나타남

<그림 53-2>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전달



<표 53-2> 소방 및 안전교육

(단위 : %)

구분		교육 받은적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전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2020		49.3	13.1	45.1	34.8	6.3	0.7
2022		50.4	13.5	44.7	34.4	6.7	0.7
지역별	시 지역	52.6	13.4	43.1	35.6	7.1	0.7
	군 지역	37.6	14.7	57.5	24.1	3.6	0.2
성별	남 자	60.8	15.0	45.5	34.1	4.9	0.5
	여 자	40.0	11.3	43.4	34.7	9.6	1.0
연령별	15~19세	77.7	12.4	47.7	33.6	5.8	0.5
	20~29세	67.3	14.1	43.3	35.6	6.7	0.3
	30~39세	61.6	13.6	48.0	33.6	4.0	0.8
	40~49세	59.4	13.9	46.9	34.2	4.8	0.2
	50~59세	51.5	13.6	43.8	34.9	7.5	0.2
	60세 이상	28.7	13.1	39.9	33.9	11.1	2.0
	65세 이상	23.2	12.3	38.7	33.8	12.5	2.7

소방 및 안전교육 받은 경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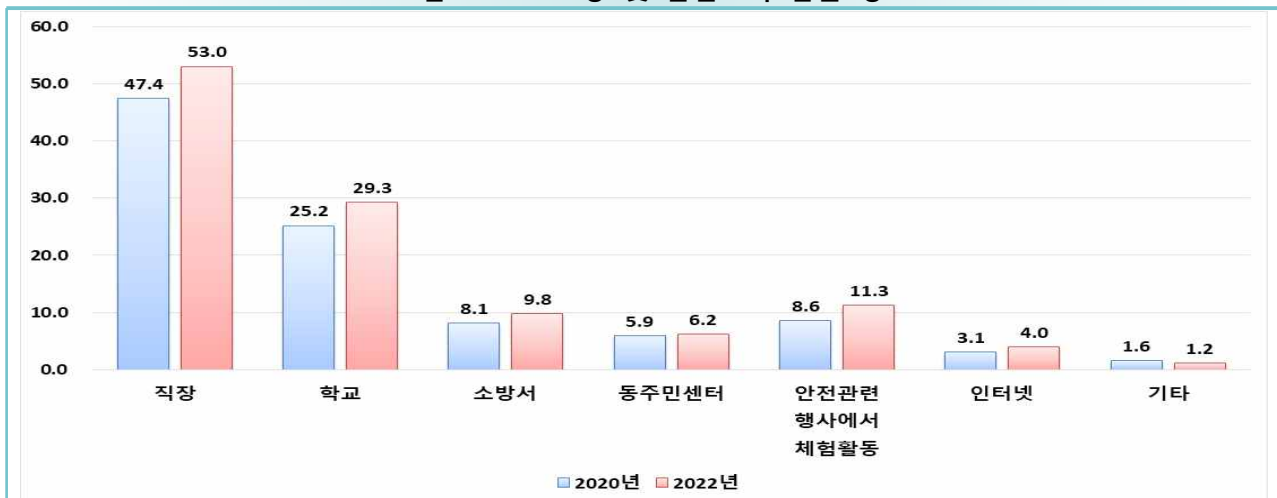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았습니까?

○ 경남도민이 소방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경로는 “직장”이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29.3%, “안전관련 행사에서 체험활동” 11.3%, “소방서” 9.8%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직장”에서 받은 비율이 시 지역은 53.6%, 군 지역은 48.0%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소방서”(16.8%), “동주민센터”(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소방 및 안전교육을 “직장”에서 받은 비율이 남자는 62.7%인데 비해 여자는 38.0%로 낮게 나타남

<그림 53-3> 소방 및 안전교육 받은 경로



<표 53-3> 소방 및 안전교육 받은 경로

(단위 : %)

		직장	학교	소방서	동주민센터	안전관련 행사	인터넷	기타
	2020	47.4	25.2	8.1	5.9	8.6	3.1	1.6
	2022	53.0	29.3	9.8	6.2	11.3	4.0	1.2
지역별	시 지역	53.6	30.0	9.0	5.6	11.2	4.1	1.3
	군 지역	48.0	23.8	16.8	10.6	12.6	3.4	0.5
성별	남 자	62.7	25.3	9.5	5.2	7.7	3.2	1.2
	여 자	38.0	35.5	10.3	7.7	16.8	5.2	1.3
연령별	15~19세	2.0	96.0	5.3	1.6	4.4	1.8	0.0
	20~29세	35.4	63.6	5.9	1.6	5.0	3.1	2.3
	30~39세	69.1	24.9	5.8	1.4	7.9	4.7	0.8
	40~49세	68.3	16.8	10.6	2.9	11.8	4.4	0.6
	50~59세	62.7	11.8	12.2	8.3	13.7	5.0	0.7
	60세 이상	48.5	6.2	15.4	18.2	19.9	3.4	2.5
	65세 이상	45.0	5.5	16.2	21.7	20.1	2.4	3.6

5. 환경 부문

[조사항목별 요약]

54) 주관적 환경 체감도

○ 경남도민의 주관적 환경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0.7%로 2020년(29.3%)에 비해 1.4%p 증가
- “수질”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2.0%로 2020년(30.4%)에 비해 1.6%p 증가
- “토양”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1.0%로 2020년(28.5%)에 비해 2.5%p 증가
- “소음, 진동”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28.4%로 2020년(28.4%)에 비해 0.1%p 증가
-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40.8%로 2020년(40.0%)에 비해 0.8%p 증가

55) 환경오염 방지노력

○ 경남도민의 환경오염 방지노력은 “노력한다”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음식물 포함) 분리 배출”에 대해 “노력한다” 73.5%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3%로 나타남
- “음식물 낭비를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68.2%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5%로 나타남
-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48.1%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8.9%로 나타남
-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51.1%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10.5%로 나타남
- “환경친화상품 구입”에 대해 “노력한다” 24.3%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33.2%로 나타남
-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에 대해 “노력한다” 20.9%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1.9%로 나타남
- “전기, 가스 아킴”에 대해 “노력한다” 60.0%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6.9%로 나타남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노력한다” 43.4%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18.1%로 나타남

56) 재활용품 관리 대책

○ 경남도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좋다” 55.8%, “보통” 34.9%, “나쁘다” 9.3%로 나타남

○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은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기반 조성”이 31.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및 교육” 24.2%, “재활용품 수거 주기 단축”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57)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 경남도민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38.2%가 “자동차 배출가스”, 34.7%가 “공장 등 산업시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화력발전소” 12.2%, “생활주변 불법 소각”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58)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30.1%, “산업체 대기배출업소 단속 강화” 26.0%,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54) 주관적 환경 체감도

문항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경남도민의 주관적 환경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0.7%로 2020년(29.3%)에 비해 1.4%p 증가함
- “수질”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2.0%로 2020년(30.4%)에 비해 1.6%p 증가함
- “토양”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31.0%로 2020년(28.5%)에 비해 2.5%p 증가함
- “소음, 진동”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28.4%로 2020년(28.3%)에 비해 0.1%p 증가함
-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좋다”의 비율이 40.8%로 2020년(40.0%)에 비해 0.8%p 증가함

<그림 54> 주관적 환경 체감도



<표 54> 주관적 환경 체감도

(단위 : %)

		좋다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	나쁘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대기	2020	29.3	5.8	23.5	46.2	24.5	19.6	4.9
	2022	30.7	5.8	24.9	45.8	23.5	19.8	3.7
수질	2020	30.4	5.8	24.6	53.4	16.3	14.3	2.0
	2022	32.0	5.6	26.4	51.2	16.9	14.5	2.4
토양	2020	28.5	5.0	23.5	56.1	15.3	13.3	2.0
	2022	31.0	5.0	26.0	53.7	15.3	13.3	2.0
소음, 진동	2020	28.3	6.3	22.0	46.0	25.7	20.4	5.3
	2022	28.4	5.5	22.9	45.8	25.8	20.3	5.5
녹지환경	2020	40.0	10.1	29.9	47.3	12.7	10.5	2.2
	2022	40.8	10.1	30.7	45.9	13.4	11.0	2.4

55) 환경오염 방지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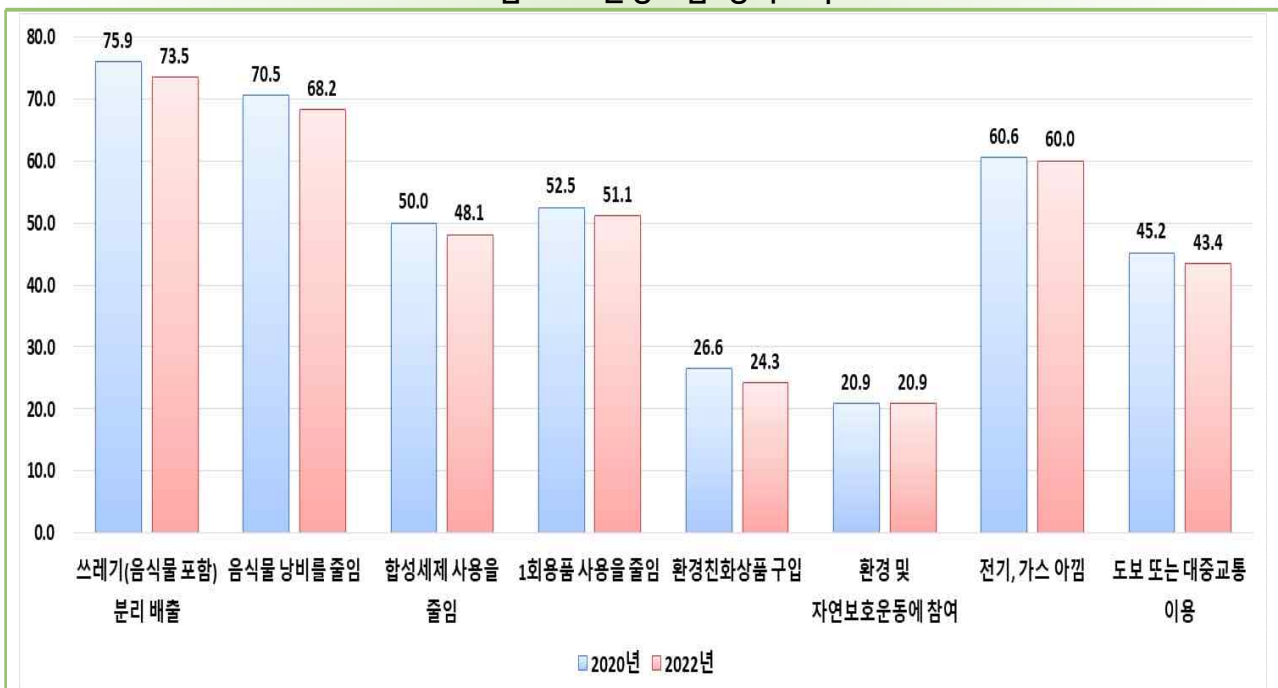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경남도민의 환경오염 방지노력은 “노력한다”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음식물 포함) 분리 배출”에 대해 “노력한다” 73.5%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3%로 나타남
- “음식물 낭비를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68.2%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5%로 나타남
-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48.1%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8.9%로 나타남
-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에 대해 “노력한다” 51.1%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10.5%로 나타남
- “환경친화상품 구입”에 대해 “노력한다” 24.3%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33.2%로 나타남
-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에 대해 “노력한다” 20.9%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41.9%로 나타남
- “전기, 가스 아낌”에 대해 “노력한다” 60.0%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6.9%로 나타남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노력한다” 43.4%로 나타났고, “노력하지 않는다” 18.1%로 나타남

<그림 55> 환경오염 방지노력



<표 55> 환경오염 방지노력

(단위 : %)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보통	노력하지 않는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쓰레기(음식물 포함) 분리 배출	2020	75.9	37.8	38.1	21.3	2.8	2.5	0.3
	2022	73.5	34.8	38.7	22.3	4.3	3.6	0.7
음식물 낭비를 줄임	2020	70.5	26.6	43.9	26.3	3.2	3.0	0.2
	2022	68.2	25.7	42.5	27.2	4.5	3.9	0.6
합성세제 사용을 줄임	2020	50.0	13.9	36.1	42.6	7.3	6.5	0.8
	2022	48.1	13.8	34.3	43.1	8.9	7.6	1.3
1회용품 사용을 줄임	2020	52.5	16.6	35.9	39.0	8.6	7.5	1.1
	2022	51.1	17.1	34.0	38.3	10.5	9.0	1.5
환경친화상품 구입	2020	26.6	6.6	20.0	43.4	30.0	21.9	8.1
	2022	24.3	6.4	17.9	42.5	33.2	22.3	10.9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에 참여	2020	20.9	5.5	15.4	39.2	39.9	26.1	13.8
	2022	20.9	6.0	14.9	37.2	41.9	25.1	16.8
전기, 가스 아낌	2020	60.6	21.3	39.3	34.0	5.4	4.3	1.1
	2022	60.0	22.9	37.1	33.0	6.9	5.7	1.2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2020	45.2	17.6	27.6	38.3	16.6	12.6	4.0
	2022	43.4	16.5	26.9	38.4	18.1	13.6	4.5

56) 재활용품 관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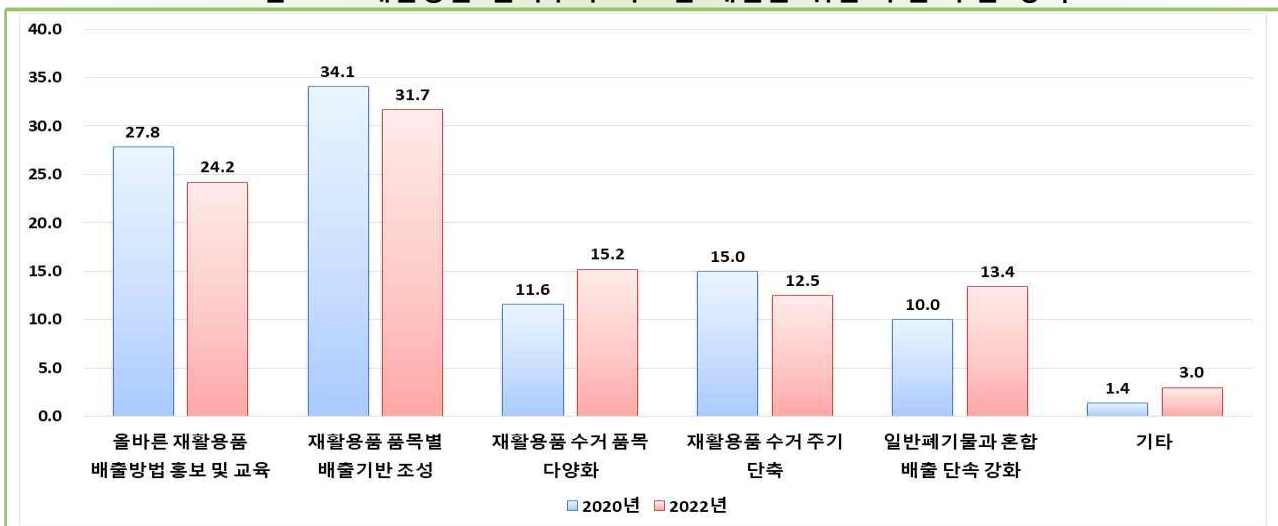
문항

귀하는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좋다” 55.8%, “보통” 34.9%, “나쁘다” 9.3%로 나타남
-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은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기반 조성”이 31.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및 교육” 24.2%, “재활용품 수거 주기 단축”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표 56> 재활용품 관리 대책

(단위 : %)

				우선 추진 정책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 홍보 및 교육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기반 조성	재활용품 수거 품목 다양화	재활용품 수거 주기 단축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 단속 강화	기타	
		좋다	보통	나쁘다						
2020		50.5	38.4	11.1	27.8	34.1	11.6	15.0	10.0	1.4
2022		55.8	34.9	9.3	24.2	31.7	15.2	12.5	13.4	3.0
지역별	시 지역	57.5	33.2	9.3	23.9	30.5	15.5	13.2	13.5	3.3
	군 지역	46.3	44.7	9.1	26.1	39.1	13.0	8.2	12.4	1.2
성별	남 자	54.8	36.3	8.9	22.3	31.5	16.3	13.5	12.9	3.5
	여 자	56.9	33.5	9.7	25.9	31.9	14.2	11.5	13.9	2.6
연령별	15~19세	52.1	41.8	6.2	34.7	32.3	12.2	3.8	11.9	5.0
	20~29세	48.4	41.7	10.0	22.2	36.7	16.2	8.8	9.3	6.8
	30~39세	51.8	35.8	12.4	24.2	28.4	11.8	19.7	10.7	5.2
	40~49세	57.0	32.5	10.6	23.5	33.0	17.9	14.0	8.7	2.8
	50~59세	59.6	30.8	9.7	25.0	30.4	17.7	11.3	14.3	1.3
	60세 이상	58.0	34.7	7.3	23.7	31.3	13.0	10.4	20.7	0.9
	65세 이상	56.7	36.5	6.9	20.8	33.8	12.0	10.1	22.2	1.0

57)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문항

귀하는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38.2%가 “자동차 배출가스”, 34.7%가 “공장 등 산업시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화력발전소” 12.2%, “생활주변 불법 소각”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를 가장 악화시킨다는 응답 비율이 시 지역은 39.6%, 군 지역은 30.3%였으며, 군 지역은 “생활주변 불법 소각”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10.7%로 시 지역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7>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표 57>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

(단위 : %)

		합계	화력 발전소	공장 등 산업 시설	자동차 배출 가스	가정 및 상가의 보일러 시설	건설 공사장	생활 주변 불법 소각	선박 및 항만	기 타
	2020	100.0	11.2	36.6	39.6	1.5	2.3	5.8	0.6	2.5
	2022	100.0	12.2	34.7	38.2	2.1	3.7	6.5	0.7	1.9
지역별	시 지역	100.0	11.3	34.7	39.6	2.2	3.6	5.7	0.7	2.2
	군 지역	100.0	17.6	34.6	30.3	1.6	4.0	10.7	0.7	0.5
성별	남 자	100.0	13.3	34.4	37.9	1.9	3.6	5.8	0.8	2.3
	여 자	100.0	11.1	34.9	38.6	2.4	3.8	7.1	0.6	1.5
연령별	15~19세	100.0	10.9	34.6	40.5	2.1	2.9	7.0	0.7	1.2
	20~29세	100.0	10.2	37.7	35.9	1.4	3.9	6.7	0.5	3.7
	30~39세	100.0	12.1	40.2	28.6	2.2	3.3	7.5	0.9	5.1
	40~49세	100.0	12.2	37.5	37.5	1.7	3.4	4.9	0.6	2.0
	50~59세	100.0	13.2	32.2	42.2	2.0	3.4	5.3	0.7	1.1
	60세 이상	100.0	12.6	31.1	40.6	2.7	4.3	7.5	0.7	0.5
	65세 이상	100.0	12.1	31.3	40.1	2.8	4.5	8.1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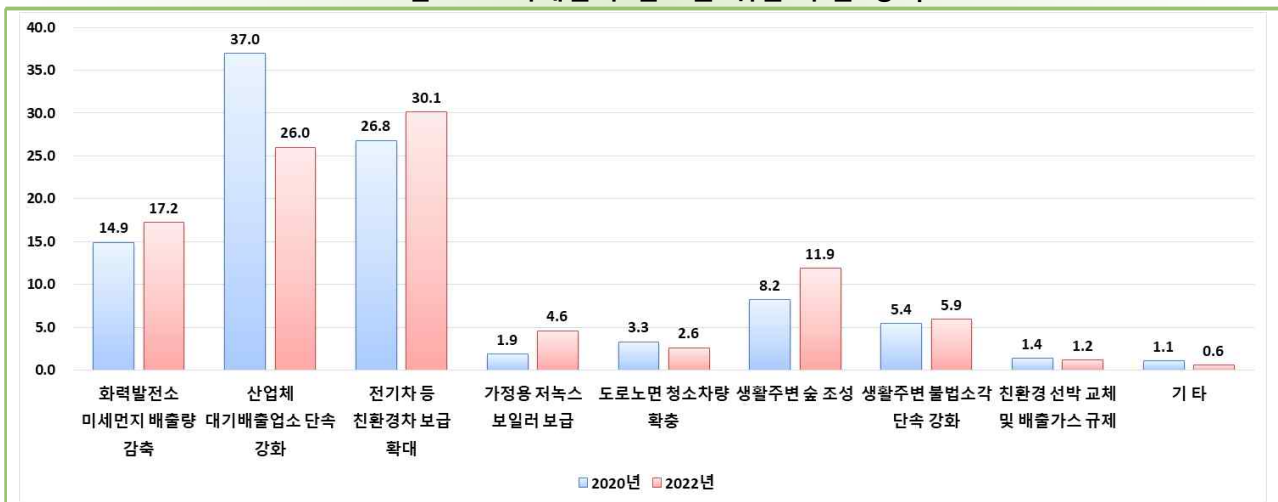
58)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문항

귀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30.1%, “산업체 대기배출업소 단속 강화” 26.0%,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표 58>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추진 정책

(단위 : %)

		합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산업체 대기배출 업소단속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도로노면 청소차량 확충	생활주변 숲 조성	생활주변 불법소각 단속 강화	친환경 선박 교체 및 배출가스 규제	기타
	2020	100.0	14.9	37.0	26.8	1.9	3.3	8.2	5.4	1.4	1.1
	2022	100.0	17.2	26.0	30.1	4.6	2.6	11.9	5.9	1.2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16.7	25.4	30.8	4.9	2.7	12.6	5.2	1.2	0.6
	군 지역	100.0	20.4	29.2	26.3	2.8	1.9	7.9	10.3	1.0	0.3
	전체	100.0	17.7	25.9	31.0	4.5	2.5	10.8	5.4	1.3	0.8
성별	남 자	100.0	17.7	25.9	31.0	4.5	2.5	10.8	5.4	1.3	0.8
	여 자	100.0	16.7	26.0	29.2	4.6	2.8	12.9	6.4	1.0	0.4
	15~19세	100.0	17.2	20.0	34.7	6.0	1.7	11.9	6.8	1.4	0.4
	20~29세	100.0	17.7	24.7	29.0	4.1	2.5	13.5	6.2	1.3	1.1
	30~39세	100.0	17.7	27.2	27.5	3.9	2.1	12.1	6.8	1.3	1.5
	40~49세	100.0	18.6	28.2	30.8	3.2	2.2	11.5	4.0	1.0	0.6
	50~59세	100.0	17.8	25.5	31.1	4.4	3.1	11.7	4.8	1.4	0.3
	60세 이상	100.0	15.8	25.9	29.9	5.7	3.0	11.5	7.1	0.9	0.2
	65세 이상	100.0	15.5	26.3	28.9	6.0	2.9	11.7	7.7	0.8	0.1

6. 부가조사

[조사항목별 요약]

59) 이주계획

- 다른 시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경남도민은 29.9%로 나타났고, 예상 시기는 평균적으로 향후 3.2년으로 나타남
- 이주하려는 지역으로는 “동남권”이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 40.2%, “대경권”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의 세부 지역으로는 “부산” 67.4%, “경남” 26.1%, “울산” 6.5%로 나타남
- 경남을 떠나려는 이유는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 5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 23.2%, “문화,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창업)하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이 있어서” 34.6%, “통근·통학 및 교통이 편리해서”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60)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지도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알고 있는 경남도민은 38.1%로 나타남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이 3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광역교통 인프라구축 정책” 28.1%, “인구 유입 증대 및 유출 감소 정책”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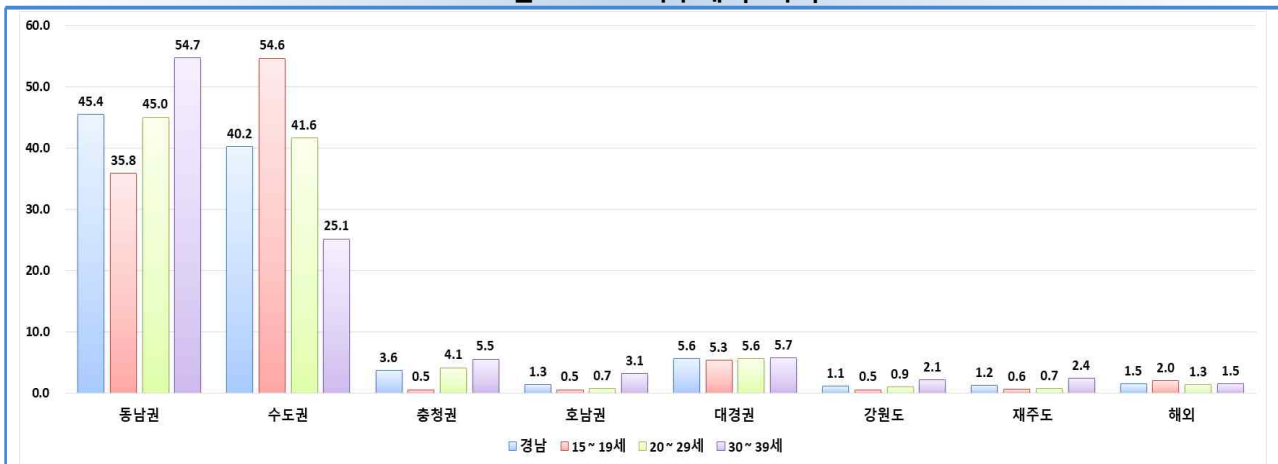
59) 이주계획

문항	(만 15세~39세 이하만 응답) 귀하는 향후 현재 살고 있는 시도 외 다른 시도로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 후에 이주할 계획입니까? 이주하려는 다른 지역은 어디입니까?
----	--

이주계획 및 지역

- 다른 시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경남도민은 29.9%로 나타났고, 예상 시기는 평균적으로 향후 3.2년으로 나타남
- 이주하려는 지역으로는 “동남권”이 45.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 40.2%, “대경권”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의 세부 지역으로는 “부산” 67.4%, “경남” 26.1%, “울산” 6.5%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남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수도권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는 사람이 많게 나타남

<그림 59-1> 이주계획 지역



<표 59-1> 이주계획 및 지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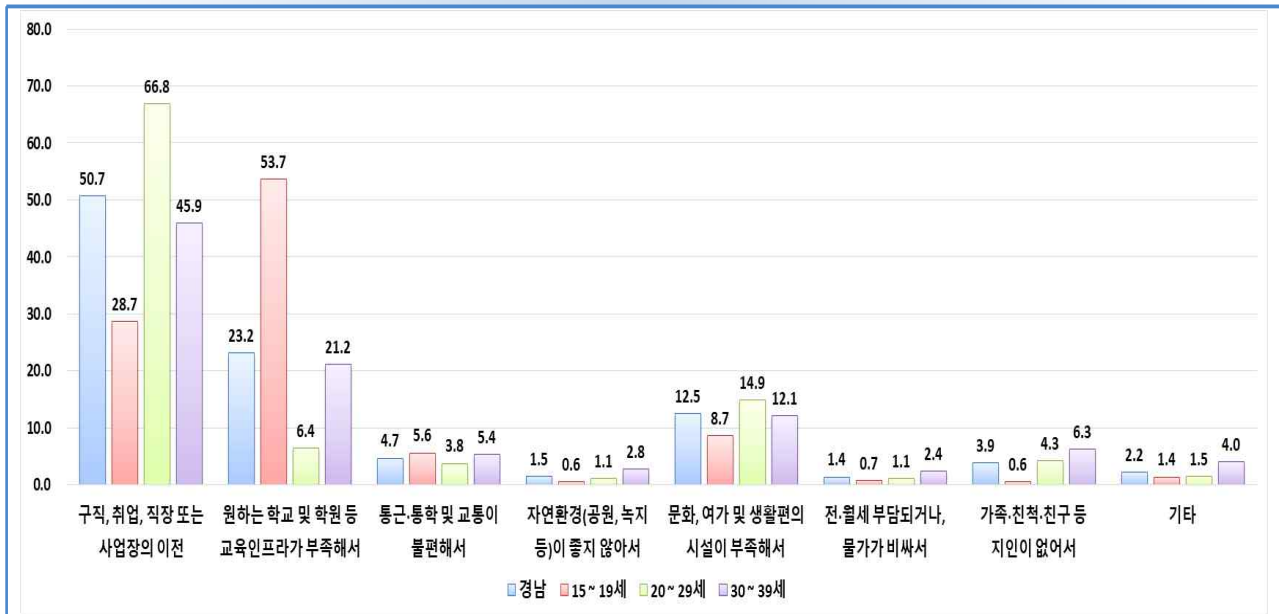
		있다	향후 이주 계획 (년)	향후 이주 지역								동남권 이주 세부지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 (대구, 경북)	강원도	제주도	해외	부산	울산	경남
2022		29.9	3.2	45.4	40.2	3.6	1.3	5.6	1.1	1.2	1.5	67.4	6.5	26.1
지역별	시 지역	28.9	3.2	46.4	39.8	3.7	1.4	4.7	1.2	1.3	1.6	68.7	7.2	24.1
	군 지역	39.7	2.8	38.6	43.7	3.1	0.8	11.5	1.0	0.5	1.0	56.5	0.5	43.1
성별	남 자	28.6	3.2	46.3	38.6	4.8	0.8	5.0	1.2	1.7	1.5	66.9	5.9	27.2
	여 자	31.4	3.1	44.4	42.0	2.3	1.9	6.1	1.1	0.6	1.6	68.0	7.2	24.8
연령별	15~19세	45.4	2.8	35.8	54.6	0.5	0.5	5.3	0.5	0.6	2.0	77.7	9.0	13.3
	20~29세	33.1	3.1	45.0	41.6	4.1	0.7	5.6	0.9	0.7	1.3	70.9	5.2	23.8
	30~39세	20.4	3.6	54.7	25.1	5.5	3.1	5.7	2.1	2.4	1.5	56.7	6.7	36.6

이주하려는 이유

○ 경남을 떠나려는 이유는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 5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 23.2%, “문화,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의 경우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대와 30대의 경우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59-2> 이주하려는 이유



<표 59-2>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

		합계	구직, 취업,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	통근·통학 및 교통이 불편해서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좋지 않아서	문화,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전·월세 부담되거나, 물가가 비싸서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이 없어서	기타
	2022	100.0	50.7	23.2	4.7	1.5	12.5	1.4	3.9	2.2
지역별	시 지역	100.0	51.3	21.9	4.8	1.7	12.3	1.4	4.4	2.3
	군 지역	100.0	46.1	33.0	4.1	0.1	13.5	1.1	0.5	1.6
성별	남 자	100.0	58.3	19.1	3.9	1.4	9.5	1.1	4.3	2.4
	여 자	100.0	42.5	27.6	5.6	1.6	15.6	1.6	3.5	2.0
연령별	15~19세	100.0	28.7	53.7	5.6	0.6	8.7	0.7	0.6	1.4
	20~29세	100.0	66.8	6.4	3.8	1.1	14.9	1.1	4.3	1.5
	30~39세	100.0	45.9	21.2	5.4	2.8	12.1	2.4	6.3	4.0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 경남에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창업)하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이 있어서” 34.6%, “통근·통학 및 교통이 편리해서”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이 있어서”의 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창업)하기 위해”의 비중이 높음

<그림 59-3>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표 59-3> 계속 거주하려는 이유

(단위 : %)

		합계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창업)하기 위해	원하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풍부해서	통근·통학 및 교통이 편리해서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좋아서	문화, 여가 및 생활편의 시설이 풍부해서	전·월세 부담되거나, 물가가 싸서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이 있어서	기타
2022		100.0	43.5	4.9	8.1	3.2	2.4	2.7	34.6	0.6
지역별	시 지역	100.0	42.5	4.9	8.5	3.3	2.5	2.8	34.8	0.7
	군 지역	100.0	54.4	4.8	2.5	2.3	0.4	2.2	33.2	0.3
성별	남 자	100.0	46.1	5.3	9.3	3.2	2.2	2.9	30.3	0.7
	여 자	100.0	40.2	4.4	6.5	3.2	2.7	2.5	39.9	0.6
연령별	15~19세	100.0	8.5	9.6	25.6	3.4	2.1	0.8	48.4	1.5
	20~29세	100.0	42.0	4.3	7.4	3.0	1.5	3.1	38.4	0.3
	30~39세	100.0	54.5	4.0	3.6	3.3	3.2	2.9	27.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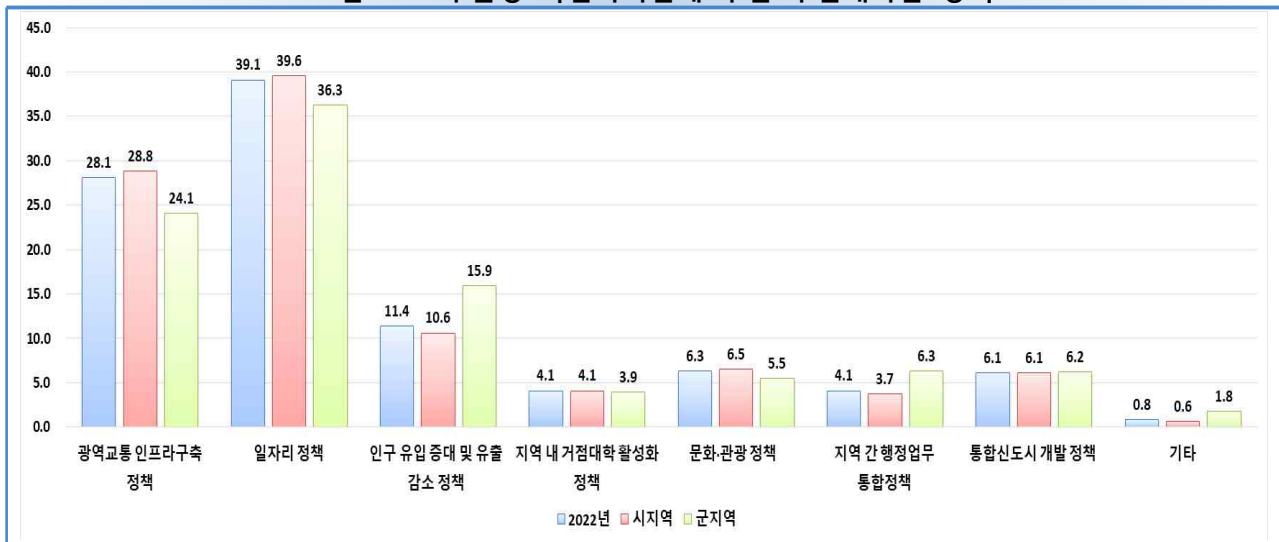
60)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인지도

문항

(만 18세 이상만 응답) 귀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알고 있는 경남도민은 38.1%로 나타남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이 39.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광역교통 인프라구축 정책” 28.1%, “인구 유입 증대 및 유출 감소 정책”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0>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



<표 60>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인지도

(단위 : %)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							
				광역교통 (대중교통체계) 인프라구축 정책	일자리 (기업유치 포함) 정책	인구 유입 및 증대 유출 감소 정책	지역 내 거점대학 활성화 정책	문화·관광 정책	지역 간 행정업무 통합정책	통합신도시 개발 정책	기타
2022		38.1	61.9	28.1	39.1	11.4	4.1	6.3	4.1	6.1	0.8
지역별	시 지역	38.4	61.6	28.8	39.6	10.6	4.1	6.5	3.7	6.1	0.6
	군 지역	36.4	63.6	24.1	36.3	15.9	3.9	5.5	6.3	6.2	1.8
성별	남 자	44.7	55.3	28.6	39.6	11.3	4.2	5.5	4.3	5.8	0.6
	여 자	31.5	68.5	27.6	38.6	11.5	4.0	7.2	3.8	6.4	1.0
연령별	15~19세	23.9	76.1	22.6	46.5	8.7	8.5	5.1	4.0	4.5	0.1
	20~29세	31.7	68.3	24.4	48.3	7.5	5.0	7.1	3.5	3.9	0.3
	30~39세	41.8	58.2	29.9	40.0	10.2	3.8	5.6	4.5	5.5	0.5
	40~49세	46.8	53.2	31.2	38.2	9.6	3.6	5.7	4.3	7.1	0.3
	50~59세	46.8	53.2	28.5	38.5	11.6	3.9	6.2	4.3	6.3	0.6
	60세 이상	29.4	70.6	27.2	35.5	14.5	4.0	6.8	3.8	6.6	1.6
	65세 이상	24.2	75.8	26.2	35.5	14.4	4.1	7.1	4.2	6.6	1.9